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21-05

연구보고 07-R12-4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노자(오슬로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고미숙(연구공간 수유+너머)
권인숙(명지대학교 교수)
나임윤경(연세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신정민(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안혜원(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소화(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7-21-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7-21-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덕 여대, 이화여대, 델라웨어대 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 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 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 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 대학
07-21-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 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 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 대학
07-21-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슬 로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연구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 전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게이오 대학교 (일본)	Hideki Watanabe 교수	Shigeki Matsuda (다이이치세메 경제연구소) 배지혜 (게이오 대학) Yasuaki Aota(게이오 대학) Masayuki Ozawa(게이오대학)
	델라웨어 대학교(미국)	Bahira Sherif Trask 교수	Melina McConatha Rosle (델라웨어대학) Bethany Willis Hepp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교 (독일)	Gudrun Quenzel 박사	Michaela Janotta (뒤스브르크에센대학) Janina Herrmann (뒤스브르크에센대학)
	남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	최연혁 교수	Peter Strandbrink (남스톡홀름 대학)
	오슬로 대학교 (노르웨이)	박노자(Tikonov) 교수	고미숙(연구공간 수유+너머) 나임윤경(연세대학교) 권인숙(명지대학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방향성을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찾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어떻게 성인과 구별되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가 만들어졌으며, 근대사회의 담론들이 규율의 내면화를 통해서 어떻게 근대적 청소년상을 만들어왔는지, 그리고 국민만들기의 틀 속에서 청소년들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떻게 구축되어왔는지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계몽기로부터 80년대까지의 신문·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관련 담론들을 분석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

- 근대계몽기에 있어 소년과 청년은 엄격히 구별되지 않았으나 1910년대와 193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소년기, 청년기, 아동기, 어린이기, 유년기가 분화되어 갔음. 이러한 분화과정 속에서 청소년기에 대한 국가, 학교, 가족의 통제가 강화되어 갔음. 그러나 시대를 뛰어 넘어 민주주의가 진보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욱 조밀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하는 국가와 사교육에 올인하는 가족, 여전히 자율적이기보다는 통제적인 학교, 이 세 축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패기를 상실하고 있음.
- 식민지 시기에 근대 학교교육제도는 도덕을 “충효”, “선량한 황민”의 논리로 대체시킨 반면 규율의 차원에서 극단적 억압성을 드러내고, 근대교육제도는 “자유”의 가치, 개인주의와 인권의식을 뿌리내리기보다는 “지나친 또는 비교육적인 체벌”, “질서적 생활”, “신체단련”과 같은

억압적 훈육의 이념을 생산해 냈음. 민족주의적 계몽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청소년상이라는 것도 “민족적 전사”에 다름아닌 “쾌남아”, “영웅”, “천재”와 같은 이미지였으며, 이는 오늘날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민족”, “성공”, “경쟁”의 가치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60대년 초 국가재건기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과 ‘같은’ 존재로서 국가 재건과 생산 노동자로서의 임무를 부여 받으며 ‘작은 국민’으로 호명되지만, 60년대 초반 이후에는 남성의 생산 노동을 보조하는 재생산 노동자로서 기대를 받았으며, 60년대 후반 이후 잡지에서 청소년들은 성애화되면서 연애의 주체가 되고, 70년대 초반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성공과 함께 여학생들의 과잉 소비가 질타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검소하고 순결한 미래의 ‘어머니’로 호명되는 동시에 남학생들과는 차별적 존재로 부각됨. 그러나 이러한 여성성의 강조는 ‘알파 걸’, ‘킹콩 걸’이 회자되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남자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국가 중심의 국민의식과 반공의식, 친미의식을 상식화하는 과정이며 현모양처를 지켜주고 감싸줄 수 있는 대범한 남성성을 가져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한국전쟁이후 청소년 잡지기사 분석을 통해 확인됨. 남자 청소년은 정치, 사회의 주체로서 여자 청소년은 소비와 가정의 주체로서 현모양처로 이상화되고, 50년대 장래 국가의 기대주로서 희망적 존재로서 부각됨. 60년대 70년대에는 여학생의 소비습관과 성행동 등 여성성에 대한 경계의식이 부각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사회, 정치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단련이 요구되는 이성적 기대주로 부각되면서도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용을 보이는 등 젠더 간의 차이가 드러남.

목 차

I. 서론

II. 근대계몽기 위생담론과 ‘(청)소년’기의 탄생

1. 프롤로그	7
2. 위생담론과 (청)소년기의 탄생	9
3. 인구론과 생체권력	10
4. 성의 통제와 결연방식	14
5. (청)소년기의 탄생	18
6. 마무리	37

III. 쾌남아 (快男兒), 천재, 영웅 키우기—1910~30년대 아동·청소년 훈육 담론의 전개

1. 머리말 - 근대의 “훈육” 관념 성립과 발전.	43
2. 1910년대: <소년>과 <학지광>에서의 훈육론(論)	49
3. 1920-30년대의 “신여성”, “개성 (個性)”, 훈육.	63
4. 결론을 대신하여: 근대적 훈육 이념의 명암	77

IV.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청소년 여성성 구성과 관련한 담론 분석: “변한 것이 없다”

1. 60, 70년대 학계에서 구축된 청소년 담론	90
2. 학생잡지 「학원」과 「여학생」을 통해 구축되었던 60, 70년대 청소년 담론	94
3. 결론	124

V. 한국 전쟁이후 청소년의 남성성과 관련한 담론 연구

1. 기억속의 청소년 제도 교육과 국민 만들기	134
2. 무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	136
3. 연구의 의의와 방법	139

4. 변화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140
5. 청소년의 국민 만들기	142
6.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박정희정권의 내용적 독창성은? ·	146
7. 국민 만들기의 약한 고리: 서구화	149
8. 근대화와 함께 진행된 국민의 성별화	151
9. 순결문화와 남성의 대범한 섹슈얼리티	156
10. 결론	159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165
2. 결론	166

I. 서론

I. 서론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협동연구로 진행하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중 2년차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방향성을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찾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여기서 다뤄진 주제들은 어떻게 성인과 구별되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가 만들어졌는가? 근대사회의 담론들이 규율의 내면화를 통해서 어떻게 근대적 청소년상을 만들어갔는가? 경제개발독재시대를 국민만들기 틀 속에서 청소년들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떻게 구축되어갔는가? 등이다. 계몽기로부터 80년대까지의 긴 역사적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지만, 공통된 주제는 이 사회가 특정한 류의 전형적인 청소년상을 끊임없이 구축해 왔으며, 그것이 결국 청소년들을 어떤 틀에 속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관성이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가 각 장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청소년기 사회화는 결코 가치중립적인 말일 수 없다. 이 연구는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즉, 과거에 강조되었던 사회화 덕목들의 이면에 깔린 담론의 부당성, 은밀성을 파헤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논문들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논쟁적인 가치를 토대로 사회화의 방향을 설정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근대 이후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 왔던 청소년들에 대한 상을 토대로 미래 사회의 청소년기 사회화를 논하는 일은 분명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해도 일상 속 청소년들의 삶의 파헤쳐보면, 근대 이후 그들의 삶과 정신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더 일상화되고, 어떤 점에서는 더 폭력화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그 와중에 에너지를 소진한 청소년들의 군상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속박의 근원을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집필되었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일관되게 한국의 근대사회가 어떤 유형의 청소년상을 만들어냈는가라는 점에 모아져 있다. 즉, 근대사회가 특정한 사회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투영시켜 왔으며,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어떠한 담론을 구축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계몽기에서 80년대까지의 신문·잡지기사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택하였다. 각 시기의 분석자료와 방법은 각 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Ⅱ. 근대계몽기 위생담론과 ‘(청)소년’기의 탄생

1. 프롤로그
2. 위생담론과 (청)소년기의 탄생
3. 인구론과 생체권력
4. 성의 통제와 결연방식
5. (청)소년기의 탄생
6. 마무리

II. 근대계몽기 위생담론과 ‘(청)소년’기의 탄생

1. 프롤로그

여자는 7세에 신기(腎氣)가 왕성해져서 이를 갈고 머리가 길어지며 14세에는 천계(天癸)가 짝 차서 임맥(任脈)이 통하고 태충맥(太衝脈)이 왕성하여 월경이 때맞추어 나오므로 자식을 둘 수 있으며, 21세에는 신기가 고르게 되어 진아(眞牙)가 나고 성장이 극에 이르며, 28세에는 근골이 견고해지고 머리카락의 성장이 극에 이르면서 신체가 장성하다.

남자는 8세에 신기가 싹해져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이를 갈며, 16세에는 신기가 왕성해져 천계가 짝 차며 정기가 흘러넘쳐 음양이 조화되므로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24세에는 신기가 고르게 되고 근골이 단단해지므로 진아가 생기면서 성장이 극에 이르며, 32세에는 근골이 융성하고 기육이 팽팽해지고 굳세게 된다.

<동의보감 ‘내경편’>¹⁾

이것이 동아시아 의학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동의보감>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런 생체주기이다. 이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성적 욕망이 가장 왕성한 건 10대 중반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춘향과 이몽룡, 변강쇠와 웅녀 등 고전에 등장하는 ‘연애의 화신들’은 모두 ‘이팔청춘’에 해당하는 16,7세에 열정적인 연애를 하고 화끈한 섹스를 즐겼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만약 지금 어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누군가와 열렬히 사랑에 빠지고 화끈한 섹스를 누린다는 것이 밝혀지면 주변의 반응은 어떨까? ‘정신 나갔

1) 허준 지음, 동의과학연구소 편, 동의보감 제 1권(내경편), 휴머니스트, 2002, 115면.

구나! 대학은 포기했나부지? 분명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을거야?’ - 대충 이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 이팔청춘의 첫 번째 섹스는 금지되거나,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개 슬프게 끝이 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서 섹스를 할 권리를 누릴 수 없을뿐더러, 결혼 혹은 동거가 불가능하다는 뻔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섹스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16세에서 14년이 더 흐른 30세에 첫출산을 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평균적 소녀는 남자 배우자가 군대를 7번 갔다 올 시간까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셈이다. 사회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 ‘세대’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인간이라는 존재는 16세부터 배우자를 찾거나 섹스를 원하게 되어 있다. 그런 자신의 섹스 파트너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최소한 3천년 동안 인류가 안정적으로 스스로를 재생산하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역사적이며 생물학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들은 거의 3천년 만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모든 걸 유보하도록 집단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²⁾

IMF(1997년) 이후의 우리나라 20대를 ‘88만원 세대’로 규정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이다. 3천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져온 생물학적 흐름이 문명의 이름으로 제압당하고 있다는 저자의 평가는 옳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88만원 세대’에 한정되는 사항일까? 그 이전에는? 이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대조건이야 약간씩 다르지만, 7,80년대에도, 아니 20세기 에 들어 우리나라 10대에게 행복한 섹스가 보장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왜? 이 연령대는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팔청춘과 청소년 - 이 둘은 같은 연령대를 지시하고 있지만, 둘을 에워싸고 있는 표상 간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전자가 자연적 생체주기를 염

2) 우석훈, 88만원세대, 레디앙, 2007. 32면.

두에 둔 것이라면, 후자는 근대 문명이 부과한 아주 ‘특별한’ 호명체계다. 쉽게 말하면, 16세가 된 어떤 인간을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결혼이나 동거 따위를 꿈꾸어서는 안된다. 부모의 적극적 배려를 받으며 착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대학입시를 위해 분투해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청소년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세대규정은 1895-1910년, 소위 근대계몽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시기에 서구문명의 도래와 함께 인간의 생체주기에 대한 새로운 표상이 구획되었고, 그와 더불어 소년, 청년이라 불리는 특별한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시대와 더불어 더더욱 세분되면서 이 땅의 모든 10대는 청소년기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청소년기가 처음 어떤 맥락에서 탄생되었는지, 거기에 부과된 표상체계는 어떤 것인지를 계보학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근대계몽기 문명담론의 첨병이었던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잡지 <소년> 등을 주요자료로 삼았다.

2. 위생담론과 (청)소년기의 탄생

1896년 <독립신문>의 창간과 더불어 이땅에 서구의 문명담론이 홍수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기독교적 우주론으로 대체하는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민족, 국가, 개화 등과 같이 국민국가의 정치적 배치에 관한 것, 그리고 의식주의 매너 전반에 걸친 일상개조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층위의 기저에는 위생담론이 자리하고 있다. 병리학 혹은 임상의학으로 불리기도 하는 위생담론은 몸과 일상을 조직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가장 미시적인 영역에 해당하지만, 근대 국가의 생체권력적 전략 및 기독교적 인식론의 구축 역시 바로 그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옥균을 비롯하여 서재필, 유길준, 신채호 등 당사의 내노라 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위생담론에 관한한 노선과 이념에 상관없이 전면수용을 강변

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근본적이면서 절박한 테제라고 간주했던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청년기의 탄생 역시 위생담론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람의 어떤 시기를 청년, 소년기라는 범주로 묶는다는 건 몸과 생체리듬, 그리고 삶의 지향점에 대한 표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생담론이 어떤 배치 하에서 청년 소년기라는 특별한 세대규정을 만들어내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인구론과 생체권력

“지금 구미의 모든 나라에서는 호적의 법을 실시하여, 매년 호구를 조사하여 남녀의 죽고, 살고, 옮겨가는 수자를 명료하게 알고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이 어지러우면 화폐를 만들고 병정을 뽑는 것도 또한 실시할 수가 없다.”

(〈治道略論〉)

이 글은 갑신정변의 풍운아 김옥균의 것이다. <치도약론>은 김옥균의 개혁프로젝트가 담겨 있는 유일한 텍스트다. 그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호적법이다. 호적법이야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건 그닥 새로울 바가 없다. 그런데 김옥균은 새삼 호적법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준거를 ‘구미의 모든 나라’에서 끌고 온다. 화폐를 만들고 병정을 뽑는 것, 다시 말해 부국강병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인구의 정확한 파악에 있다고 본 것이다.

위생담론이 근대인들의 일상을 장악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그 기저에 인구론이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듯, 임상의학은 인간과 자연, 건강과 질병,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엄격한 거리화를 전제로 한다. 즉 전통적인 한의학이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연속적 평면 위에서 파악하고, 둘 사이의 조화를 터득하는 양생적 관점을 취했던 데에 반해, 임상의학은 인간과 자연을 날카롭게

단절함으로써 둘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는 위생적 관점을 취한다. 후자적 시각에 입각하면, 질병은 세균의 침입이 되고, 치료는 세균의 제거나 환부의 절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선 인간과 자연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과 개인, 몸과 몸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별화된 신체들은 그대로 계속 파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이라는 새로운 집합체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푸코의 말을 빌리면, “근대 권력의 인체 장악은 개인화가 아니라 전체화” 다시 말해 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권력행사였다.³⁾ 좀더 설명하면, 서구에서 19세기의 기본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소위 생명에 대한 권력의 관심의 대두라고 한다. 중세에는 신민의 삶과 죽음은 군주의 의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였는데, 이것은 항상 죽음의 편에서 불균형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군주권의 효력은 군주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살게 내버려두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권리가 아니라,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 19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권력은 정반대의 권리, 즉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 권력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은 개인의 생명, 종으로서의 인간이었다. ‘생물정치학’ 혹은 ‘생체권력 bio power’이라 이름할 만한 이 권력기술은 출생과 사망의 비율, 재생산의 비율, 인구의 생식력 등의 과정을 삶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 통계에 기초한 인구론이 권력의 토대로 부상하게 되는 건 이런 맥락에서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은 인종 개량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인종의 우수성이야말로 국력의 가장 근본토대이기 때문이다.

근대계몽기의 계몽주의자들은 이런 전제들을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대한매일신보>에는 인종론적 담론들이 과잉이다싶을 정도로 흘러넘친다.

3) 미셸 푸코/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8, 281면.

#론설(1910.3.29. 823호)

국민의 외양과 국가의 성쇠 (소년 잡지에서 등지함)

(.....)

사람의 얼굴스빛은 그 사람의 속만 발표될 뿐 아니라 그 집안과 그 나라의 형편스지라도 발표가되는 것이라 홍성훈 나라스사람의 얼굴을 보며 쇠망훈 나라스사람의 얼굴을 볼지어다 속일수업는 설명서가 얼굴스빛과 외양에 내여 박히지 아니호엿던가

태서스사람들은 보라 그 안식의 화력함과 원기의 왕성함과 행동의 활발함을 누가보면 쇠망훈 나라스사람이라 호리오 판에 박힌 홍성훈 나라스사람이로다

눈을 들어 청인이나 안남인이나 비록빈인을 볼진디 황인종의 피부가 누른거슨 당연호건마는 그 사람들의 누른 것은 병이드려 누른거시오 본식으로 누른거시아니며 동셔러지게 흰 것은 쏘호 병이드려 흰 거시오 본식으로 흰 것이 아니라 이러케 혈식은 조금도 업는 안식에 괴력이라고는 호 썸도 업거늘 더욱 썸최호 의복으로 장속호고 흐늬 흐늬호는 몸을 어치령어치령 움죽이니 이것을 소경드려 만져보라호 여도 반드시 망국민이라호리니 무슨 팔즈에 이말을 면호리오

태서스사람의 얼굴에는 격렬호 심존경징에 쏘이는 눈과 밧삭다른 입이 어울니지 아늬은 아니나 이러케 스개가 썸마즌 모양은 결단코 처음부터 그러케 싱긴것도 아니오 심존경징으로서만 싱겨나온것도 아니오 거쳐 범절과 다른 외면 관계로만 제절노 싱긴것도 아니라 대개 오릭 슈련호 결과라 호국민은 곳 오릭 슈련호 인민이오 오릭 슈련호 인민은 곳 호국민이되느니 오릭 슈련호거시 그 얼굴에 나타나서 그 호국민됨을 설명호여 아모가 보와도 발키 알아보느니라

우리나라스사람의 안식을 보면 태서사람에게 비호여 혈식도 부족호고 화기도 부족호다호지라 통구대도에 서서 얼마스동안이든지 진가는 형인을 볼진디 둬이 천이면 봉 호나히 잇다고 그러호듯호 사람아조업는 것은 아니로디 대테는 병황이 끼인 사람들이오 슈심이 그득호 사람들이며 싱기는 작년부터 다 일허버린 사람들 썸이라 안식으로 그 나라의 형세를 설명호다호므로 말호진디 우리 일반 국민의

안식에 나타났도다 몇히 전에 외국에 가서 학교 슈신과의 교슈를 밧을 쎄에 처음 입학호는 싱도에게 정신을 슈양호고 신테를 슈련호라는 말을 히석홀시 여러 가지로 몸과 므음을 단련치 아니호는 해를 말호고 그 쏫해 널으디 어는 나라이든지 쇠호는 나라를 보고져 홀진디 몬져 그 국민의 얼굴브터 볼지니 멀니 볼 것업시 갓가온 청국인과 조선인을 보면 그 얼굴에 광치가 업고 눈퓍지 못호다호더라 그 쎄에 이 말을 드를제는 속으로 분호기도 한량업섯스나 억제치 못호도록은 분이 쏫치아니호거슨 대개 우리 나라이라호면 괴를 쓰고 험담을 호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고로 그 당장에는 그져 드럿더니 이제와서 그 말을 싱각호고 맞나는 사름의 얼굴을 슴혀보니 그 쎄 그 말이 과연 아조 험담만흠이 아니로다

우리나라의 지금 형세로 말홀진디 산천과 던야와 거처와 싱화와 스위에 호가지도 기량치아닐거시 업지마는 데일 몬져홀거시 국민의 혈관을 슈섬이질호고 얼굴을 대패질호여 번듯호 인물을 몬드려 혈식도 잇는 얼굴이 되게호는 거슬 몬져 홀지며 교육으로 말호지라도 감당치 못홀 연약호 창즈에 억지로 지식을 만히 너허주고져호는것보다 지혜와 근골이 흠쑈 커지게호여 이 테력의 내음식와 이 정기와 소리가 퍼져서 금슈긋흔 강산이되여 병든 사름의 거처호 곳이 되지아니케호며 바둑판긋흔 가로상에는 쏫쑫호고도 얼썩진 사름의 돈니는 길이 되지 아니케호고 굿센 원기로 세츠게 일호는 국민이 되게 호는 거시 더욱 긴호리로다 춤말이지 다른 거슨 다 그만두고라도 얼굴에 쇠망호는 국민의 패를 들고 돈니기는 진정 슬토다

(<대한매일신보>)

저자는 태서인과 아시아의 황인종을 먼저 비교한다. 황인종의 누렇게 뜬 얼굴과 눈빛은 고스란히 망국의 조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표정과 화기에서 국가의 흥망을 그래도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혈관을 슈섬이질호고 얼굴을 대패질호여 번듯호 인물을 몬드려 혈식도 잇는 얼굴이 되게호는” 것이라고 한다. 수세미질이나 대패질이라

는 과격한 용어를 쓸 만큼 인종개량을 절박한 과제로 삼고 있다.

개량의 구체적 전략은? 당연히 임상의학이다. 주지하듯, 임상의학의 토대는 세균론과 해부학이다. 전자는 근대 이전, 주기적으로 덮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을 퇴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후자는 전쟁시의 외과수술과 깊은 연관이 있다. 20세기 초 임상의학은 이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이 땅에 도래하였다. 그와 더불어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양생술은 위생관리로 대체되고 말았다. 이런 교체가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부국강병의 원천이 인구수와 인종개량에 있다는 강력한 믿음 때문이었다.

4. 성의 통제와 결연방식

국가가 인구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의 토대가 되는 성생활을 적극 통제해야 한다. 여기에는 남녀간의 결연방식 및 결혼제도를 포함하여 성윤리 전반이 모두 포함된다. 기독교가 근대정치와 손을 잡는 것도 이 대목이다. 임상의학이 건강과 질병, 청결과 위생, 정상과 비정상을 엄격하게 분리하듯, 기독교는 병과 악을 동일시하고, 성욕에 대해서도 원죄 혹은 도덕적 불결로 규정짓기 때문이다. 근대문명의 골조를 이루는 ‘국가-의료-종교’의 트리아드가 구축되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식의 담론을 유포하는데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독립신문>의 계몽주의자들이었다. 다음이 그 대표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 논설 ■ 1896.6.6, 27호

남편과 아내란 것은 평생에 쓰고 단 것을 함께 건디고 만사를 서로 의논하여 집안일을 하며 서로 믿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여 아내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남편은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서로 돕고 서로 훈수하여 세상에 좋은 친구 같이 지내야 할 터인데 조선 사람들은 당초에 아내를 얻을 때에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여편네가 그 사나이를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면서 남의 말만 듣고 혼인할 때 상약하기를 둘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

하며 미쁘게 평생을 같이 살자 하니 이런 소중한 약속을 서로 하며 서로 보지도 못하고 서로 성품이 어떤지 모르고 이런 약조들을 하니 이렇게 한 약조가 어찌 성실이 되리요(.....) 사나이와 여편네가 평생을 같이 살며 집안을 보호하고 자식을 생육하자 하면서 백지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약조들을 하니 실상을 생각하면 어찌 우습지 않으리요(.....)

(『독립신문』)

일단 이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군신과 부자, 장유의 위상에 가려져 있었던 부부의 위상이 바야흐로 사회적 관계에 있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성적 욕망이 생식기능의 중대함 속에 남김없이 흡수되어 버린다.”⁴⁾는 걸 의미한다. 즉 성욕은 곧 한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하는 인구론적 배치하에 포섭된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와 사회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전제에 입각해 보면, 조선의 혼인제도는 미개하기 짝이 없다. 이어지는 대목을 좀더 살펴보자.

사람이 스물 이삼 세가 되어야 겨우 지각이 나고 세상이 어떤 줄을 알고 옳고 그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을 조그마한 어린 아해들을 압제로 혼인을 시켜 서로 살라 하니 아해들이 어렸을 때에 혼인이 무엇인 줄 모르고 부모가 하란 대로 하였거니와 지각들이 난 후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라 그런 고로 음심 있는 사나이들은 첩을 얻고 음행을 하는 폐단이 생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참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조선 여편네들을 압제로 풍속을 만들어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게 하는 까닭에 속에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감히 말을 못 하니 이런 부부 사는 집안이 어찌 화목하며 복이 있으리요 또 제일 국가에 해로운 일은 골격이 자라기 전에 아해들이 혼인을 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 자식들이 튼

4) 같은 책, 24면.

튼치가 못하고 사람의 씨가 차차 줄어 가는지라 아해들이 혼인하는 일은 정부에서 금치 않아서는 못할 터이요

이 글에 따르면 조선의 나쁜 풍속은 모두 ‘조혼’과 ‘억혼’ 때문이다.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이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 아내들이 꺾박당하는 것,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 등 모든 폐단은 ‘아주 이른 나이’에 자신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억지로 혼인을 치렀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이런 풍속은 생식에 치명적이다. 즉, “제일 국가에 해로운 일은 골격이 자라기 전에 아해들이 혼인을 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 자식들이 튼튼치가 못하고 사람의 씨가 차차 줄어 가는” 결과를 낳고 만다. 한마디로 인구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열등해진다는 것이다.

신소설 최초의 작품이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한 <혈의 누>의 주인공 구완서는 한술더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 부모가 내 나이 열두 서너 살부터 장가를 들이려 하는 것을 내가 마다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입에서 젖내가 모랑모랑 나는 것을 장가들이면 짐승의 자웅같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음양배합의 낙만 알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짐승같이 제몸이나 알고 제 계집 제 새끼나 알고 나라를 위하기는 고사하고 나라 재물을 도둑질하여 먹으려고 눈이 벌겍게 뒤집혀서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그의 논법에 따르면, 성욕은 그야말로 동물적 충동에 휩싸인 것이라 학문이나 애국같은 가치와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서양인종은 혼인을 늦게 하기 때문에 “남녀에게 크게 유익하여 사람마다 혈기가 왕성하고 기질이 견확한 고로 그 자손들도 자연히 장대하고 번성하여 해마다 인구가 늘어”⁵⁾간다. 요컨대 인구가 늘고 인종이 개량되려면 남녀의 성은 적극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 압제혼인법을 없애고 남녀의 혼인할 년

5) 독립신문, 1899.6.20 <논설>

기(나이)도 걱정하며 또 병신과 비렁뱅이들과 천치들은 당초에 혼인을 못하게 하며 누구든지 혼인하려면 그 고을 관원이 친히 신랑신부의 년기와 사세와 소원을 자세히 사실하여 법률상에 마땅한 연후라야 혼인하는 것을 관하여 주는 것이 나라에 큰 사업이”⁶⁾라는 매우 생산적(?) 대안을 제시한다. 정상인들은 법과 제도의 엄격한 관리하에 들어가고 병신과 비렁뱅이들과 천치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 혹은 정상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열등한 소수자들에게는 생식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 이것이 전근대적 압제혼인법을 벗어난 근대적 ‘자유연애, 자유결혼’의 실상이었다.

그럼 청춘남녀는 어떤 식으로 결연을 맺고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일단 나이가 22,3살쯤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전적으로 교육제도에 달려 있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의 88만원 세대들은 20대 초반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게 되었다. 교육제도가 진보할수록 인간의 자연적 리듬은 거세될 수밖에 없는 이 지독한 역설 혹은 아이러니! 어쨌건 당시로선 공교육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대충 20대 초반이 되었기에 이런 식의 대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헌데, 나이도 나이지만, 결연방식도 참으로 자연적이지 못하다.

위에 인용된 <독립신문> 논설의 중간 부분을 보면, “남의 나라에서는 사나리와 여편네가 나이 지각이 날 만한 후에 서로 학교든지 교당이든지 친구의 집이든지 모꼬지 같은 데서 만나 만일 사나이가 여편네를 보아 사랑할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부인 집으로 가서 자주 찾아 보고 서로 친구 같이 이삼 년 동안 지내 보아 만일 서로 참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는 사나이가 부인에게 자기 아내 되기를 청하고 만일 그 부인이 그 사나이가 마음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아내 될 수가 없노라고 대답하는 법이요 만일 마음에 합의할 것 같으면 허락한 후에 몇 달이고 몇 해 동안은 또 서로 지내 보아 영영 서로 단단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때는 혼인 택일하여 교당에 가서 하느님께 서로 맹세하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돕겠노라고 하며 관가에 가서 관허를 맡아 혼인하는 일자와 남녀의 성

6) 독립신문, 1898.2.12 <논설>

명과 부모들의 성명과 거주와 나이를 다 정부 문적에 기록하여 두고 만일 사나이든지 여편네가 이 약속한 대로 행신을 아니 하면 그 때는 관가에 소지하고 부부의 의를 끊는 법이라”고 되어 있다. 이른바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은 도무지 자연스럽지도, 자유롭게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서로를 탐색하고 교회와 관가의 허락을 받는, 매우 세심하게 관리되고 제어된 관계일 뿐이다. 여기에 성적 욕망이나 열정적 파토스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변이와 생성의 가능성 역시 차단되었다.⁷⁾

요약하자면, 인구론의 대두와 더불어 모든 생식관계는 결혼으로 수렴되었고, 그와 더불어 결혼연령은 대폭 연장되었으며, 결혼에 이르는 과정 역시 사회 각 기관의 세심한 배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5. (청)소년기의 탄생

서두에서 보았듯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람은 10대 중반이면 신체적으로 성인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만약 그때부터 바로 사회적으로도 어른으로 인정될 경우, 미성년과 성년 사이의 갭은 그다지 크지도, 중요하지도 않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가 그런 젊은이를 여전히 미성년으로 간주할 경우, 어른과 아이 사이의 시간적 간극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

만약 이 세대를 그냥 방치한다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10대의 성적 에너지가 어디로 튈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연령대가 탄생된 건 이런 맥락에서이다. 소년이라는 용어는 조선 시대에도 종종 쓰였지만, 그것은 노인에 대비되는 범박한 명칭이었지 특별한 표상을 거느리고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랐다. 소년은 장년, 노년에 대비되는 젊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용어의 등장과 더불어 인류가 3천년 동안 이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미숙, 나비와 전사. 휴머니스트, 2006. 3장 3절 ‘계몽담론과 성적 욕망의 배치’ 부분을 참조할 것.

어온 이팔청춘의 원리는 이땅에서 증발되고 말았다. 문명이 미치지 못한, 궁벽한 농촌이나 어촌 등에선 20세기 이후에도 아마 상당기간 10대에 살림을 차리고 성인이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근대 문명의 체제에 편입되는 순간, 그러한 자유는 불가능할뿐더러 비정상성으로 분류된다. 범죄나 이탈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민국가의 정상적 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이팔청춘이 아니라, 소년이나 청년으로서 존재해야 했다.

이미 <독립신문>부터 소년, 청년의 용어들이 범람하기 시작하여, 최남선은 <소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이 개념을 전파하는데 주력하였고, 그와 더불어 1908년 이후 계몽의 전초기지였던 <대한매일신보>는 소년과 더불어 청년이라는 표상을 집중적으로 유포, 활용하기에 이른다. 8)

#론설(1908.8.24. 75호) 미국 공립신보 론설을 등지함

청년 동포의게 경고함이라

청국지스(뜻잇는 선빅)량계초씨가 말하기를 로인은 흥상 지나간 일을 싱각하고 쇼년은 흥상 오논일을 싱각하느니 지나간 일을 싱각하느고로 지테하느 므음이 싱기고 오논일을 싱각하느고로 브라는 므음이 싱기며 므음이 지테하느고로 슈구홀 싱각만 잇고 므음이 브르느고로 진취홀 싱각이 잇스며 슈구하느고로 넘려함이 만코 진취하느고로 날노 새로오며 전일을 싱각하매 일마다 지나가는거시오
오논일을 싱각하매 일마다 새거시라 로인은 근심이 만코 쇼년은 즐거움이 잇느니 근심이 만흔고로 락심하고 즐거움이 만큰고로 활발하며 락심하느고로 겁약하고 활발하느고로 호기로오며 겁약하고 구츠하야 세계를 망케하고 호기로온고로 험함을 무릅써 세계를 흥케하며 로인은 흥상 일을 실행하고 쇼년은 흥상 일을 도화하느니 일을 실행하느고로 가히 홀일이 업고 일을 도화하느고로 가히 못홀일이 업느니라

8) 소년, 청년의 용어가 어떻게 유포,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권용선, ‘청년’개념의 분화과정과 자기구성의 논리, 김용성 외, 한국문학연구의 현단계, 역락, 2005 을 참조할 것.

이런고로 로인은 저녁뵈 궂고 쇼넨은 아춤뵈 궂흐며 로인은 슈척흔
 소와 궂고 쇼넨은 어린 범과 궂흐며 로인은 중과 궂고 쇼넨은 협궂
 궂흐며 로인은 썤러지는 현비 궂흐며 쇼넨은 대양의 산호섬 궂흐며
 로인은 익급나라 금즈탑궂고 쇼넨은 봄풀궂다흐엿스니 오늘은 과연
 청넨 세계요 로인 세계가 아니며 청넨 시딕요 로인 시딕는 아니로다
 서양 구미렐국의 일반 사회상에 절딕흔 스업을 진휘햐 전정의 형
 복을 도모흐는자ㅣ다 청넨인스ㅣ라 (<대한매일신보>)

이 글은 온갖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하여 노인과 소년의 차이를 부각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이유는 바야흐로 세계가 청년시대인 까닭이다. 청년의 힘과 열정, 속도가 요구되는 시대라는 뜻이다. 이리하여 노인과 소년 사이에는 날카로운 단절이 생겼고, 소년은 아주 특별한 연령대로 분류되었다. “일찌감치 가문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효의 윤리를 체득하도록 주입된 몸이 작은 어른, 그리고 장년과 노년에 예측된 존재였던 10대가 이제는 소년기라는 특별한 세대로 규정된 것이다.”⁹⁾ 전통사회가 노인을 중심으로 소년, 청년을 소외시켰다면, 근대사회는 소년을 내세워 노인들을 소외시키는 배치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한편으론 소년과 청년에 대한 특권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소년과 청년이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배려(통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런 통제와 배려 안에 있을 때만 청소년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점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자.

9) 이에 대해서는 오선민, 역사 속의 어린이, 어린이의 역사, 이진경 엮음, 모더니티의 지층들, 그린비, 2007을 참조할 것.

(청)소년을 둘러싼 세 가지 표상

1) 소년, 애국하는 존재!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 최남선(崔南善)

一

터.....크썩, 터.....크썩, 툅, 썩.....아.
따린다, 부순다, 문혀 바린다.
태산(泰山) 갇힌 눅흔 뵤, 땃태 갇흔 바위스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디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문혀 바린다.
터.....크썩, 터.....크썩, 툅, 튜르릉, 콧.

二

터.....크썩, 터.....크썩, 툅, 썩.....아.
내게는, 아모것, 두려움 업서,
육상(陸上)에서 아모런 힘과 권(權)을 부리던 자(者)라도,
나 압헤 와서는 꿈쩍 못하고,
아모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디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압헤는.
터.....크썩, 터.....크썩, 툅, 튜르릉, 콧.

六

터.....크썩, 터.....크썩, 툅, 썩.....아.
더 세상(世上) 더 사람 모다 미우나
그 중(中)에서 딱 한아 사랑하난 일이 잇스니,
담(膽) 크고 순정(純精)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才弄)터럼 귀(貴)엿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나라, 소년배(少年輩). 입맛터 듀마.

터.....르썸, 터.....르썸, 턱, 튜르릉, 콧.

최남선이 만든 일인잡지 <소년>의 창간호에 실린 신체시다. 근대계몽기 소년 표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에 속한다. 여기서 ‘바다’는 조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구다. “‘바다’는 국경선 바깥에 있지만, 국가의 외부가 아니다. 그것은 외부와 교통하는 통로이자 개척하여 전유해야 할 미지의 세계이며” “거대한 파도를 뚫고 바다로 나아가는 ‘소년’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종착지로서의 문명국가, 더 이상 국토의 끝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문명이 열리게 될 도래지로서의 바다,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의지와 염원”¹⁰⁾을 표현한다. 이제 이 바다를 통해 문명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고, 그 엄청난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건 소년뿐이다. 그래서 바다는 소년을 사랑한다.

여기에 담긴 소년의 이미지는 무엇보다 힘과 순정이다. 육상의 낯은 질서와 권세를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 그리고 어떤 권위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정열! 문제는 이 뜨거운 파토스가 어떤 벡터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여기에서 질풍노도나 낭만적 일탈과 저항 등을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소년 앞에 놓인 바다, 그것이 제시하는 비전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단락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바다는 문명과 국가, 민족이라는 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년>지에서는 다소 모호하고 나이브하게 전제되어 있지만, <대한매일신보>에 오면 사정은 달라진다. 여기에선 소년의 이미지에 국가와 민족이 고스란히 오버랩된다.

#론설(1910.7.1. 900호)

소년의 한국

우리한국의 력스를 상고홀진디 단군 괴즈이후로 삼한과 신라와 고려를 지나서 지금 스천여년이 되었스니 가히 늙은 나라이라 홀 듯 홀도다

10) 문성환, 얼굴과 신체의 정치학. 권보드래 외. [소년]과 [청춘]의 창, 이대출판부, 2007, 117면.

그러나 괴수의 변함과 풍조의 식로움을 인하여 전일의 부패한 습관을 소제하고 신선한 문화를 널리 펴서 타락한 인민의 지기를 불너서우고 미약한 국가의 실력을 북드려 쫓치게하여 나라의 명을 식롭게 하면 이는 수천여년 늙은 나라를 다시 변하여 소년나라를 일출지니 비유컨대 지은지 여러백년되는 집이 잇서서 동퇴서비하여 풍우를 가릴루지 못하고 거의 넘어지게 되었스면 이것은 늙은 집이라 할지나 도훈목슈가 그 집을 수리하고 기둥과 도리와 셋가리의 썩은 자는 썩여 버리고 식지목으로 바치고 기우러진 것을 바로 세우고 문혀진 장벽을 다시 싸하고 끼여진 문짝을 서로 바치고 허여진 도박을 일신히하여 창호가 찬란하고 문당이 정결하면 이는 몇백년 늙은 집이 다시 변하여 소년집이 됨과 같흔지라

구라파주 남부에 있는 이태리라하는 나라는 수천년된 오랜 나라으로 라마의 정치가 부패함을 인하여 전국의 분열되어 토지는 교황에게 속하고 정권은 오디리에 도라가며 그 압제와 학정을 인민이 참어 견디지 못하더니 마지니라 하는 사람은 이태리를 회복하던 삼걸중에 한사람이라 국스범으로 타국에 피신하여 회회를 조직하고 일함을 소년 이태리라 하니 이태리 전국에 지스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향응하여 이태리를 회복하여 구라파주 열강국과 다투는 하게 되었는지라 우리한국은 당당한 삼천리 강토와 름름한 수천만 국민중에 엇지 마지나 한사람이 업스리오 나히 늙은 사람의 흉상 전일을 싱각하고 나히 절은 사람은 흉상 장리를 싱각하느니 전일을 싱각하는 자는 보슈하기를 힘쓰고 장리를 싱각하는 자는 진보하기를 힘쓰는 거슨 자연히 리치라 동포들은 진보에 힘써서 나라으로 하여곰 강장한 소년국을 일출지어다
(<대한매일신보>)

소년나라, 소년집, 소년이태리, 소년국 등, 소년의 이미지를 국가와 민족, 역사에 그대로 투사하고 있다. 이 말은 한편 우리 민족과 역사가 소년처럼 밝고 새롭게 되기를 열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소년이 민족과 역사의 주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년국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은 소년이 곧 민족이 되는 것이다. 다음 자료는 그 점에 대해 더욱 뚜렷한 방향을

말해준다.

#론설(1908.11.22. 436호)

소년의 립심

더 늙은자는 지나간 국가의 주인이오 지나간 민족의 디표 | 라 그런고
로 그 전정이 길지못흐며 그 칙임이 중흐지못흐나 쇼년은 장력 민족
의 디표 | 라 그런고로 그 전정이 장원흐고 그 칙임이 중대흐도다
늙고 썩고 힘이 업서서 거울을 디하여 빅발을 슬허흐며 셔산락일에
흐르는 물을 탄식흐야 괴식이 엄어흔 늙은 이는 국가의 흥흥도 우리
싱각에 맞지못흐며 국가의 망흥도 쏘흔 우리싱각에 맞지못흐다함이
오히려 가흐거니와 더 전정이 만리긋고 괴운이 발발흐여 서암이 처
으 솟는 것긋흐며 히가 새로 돛는 것긋흔 쇼년드리야 그 전정이엇더
케 멀며 그 칙임이엇더케 중대흐나

국가가 멸망흐여 우마가되고 어육이되며 노래가되는 참혹흔 환난도
오죽 쇼년이 당홀지며 독립부강흐여 세계에 쐬어나고 룽대쥬에 밍쥬
가되느 영광도 쏘흔 쇼년이 누릴지니 장원흐다 쇼년의 전정이어
쇼년이 웅장흔즉 나르도 웅장흐고 쇼년이 강장한즉 나라도 강장흐며
쇼년이 즈유흐면 나라도 즈유흐고 쇼년이 독립하면 나라도독립흐며
쇼년이 진보흐면 나라도 진보흐느니 중대흐다 쇼년의칙임이어
이전정의 화복과 칙임의 선악이 전혀 그쫘을 세우는디 잇는지라 쇼
년의쫘이 독립민족이 되고저흐면 독립민족이 될거시오 망국민족이도
고저흐면 망국민족이 되거시며 강대흔나라를 몬들고저흐면 강대흔나
라가되고 잔약흔나라를 몬들고저흐면 잔약흔나라이되며사람이 되고
저흐면 사람이 되고 금슈가 되고저흐면 금슈가 되느니 쇼년 된자는
쫘을 갈희여 세우지 아니홀거시며 심신치 아니홀거신가

그디네는 과연 쫘을 덩흐야 우리는 한국의 주인이라흐며 우리는 한
국민족의 디표 | 라흐야 두가지로 변치아니홀쫘을 세워 신국가를 몬
들고 신민족을 몬들기를 브라노라

국가의 영광과 몰락, 독립과 예속, 강장과 쇠락 등 모든 운명이 소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소년은 뜻과 기개를 올곧게 세워 신국가, 신민족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말하자면, 아주 특별하고도 고귀한 지위에 올라간 셈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특권일까? 주지하듯이, 근대계몽기 민족담론은 모든 기호들의 차이를 흡인하는 블랙홀이자 초월적 좌표였다. 서구와 일제라는 대타자로 인해 국가와 민족이 발견되었지만, 사실은 ‘텅빈 기호’였다. 오직 부재를 통해서만 존재를 표현해야 하는 역설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기호들을 무차별적으로 흡인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족담론이 소년이라는 새로이 등장한 기호를 가차없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소년의 힘과 순정은 오직 민족, 국가를 향해야만 한다. 이 말은 민족과 국가와 무관하게 흘러넘치는 충동과 패기, 열정 따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에 해당한다. 이후 한국문학의 기저를 이루는 애국과 사랑을 선연하게 갈라놓는 이분법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요컨대, 계급, 지역, 학벌의 차이를 넘어 모든 10대를 소년, 청년이라는 명칭으로 묶어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위상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열정과 패기를 오로지 ‘애국’으로 재영토화하는 것 - 그것이 (청)소년이라는 표상에 담긴 첫 번째 기제다.

2) 애국의 무기- ‘교육과 지식’

“今에 我帝國은 우리 少年의 智力을 資하여 我帝國歷史에 大光彩를 添하고 世界文化에 大貢獻을 爲코려하나니 그 任은 重하고 그 責은 大한디라 本誌는 此責任을 克當할만한 活動的 進取的 發明的 大國民을 養成하기 爲하여 出來한 明星이라 新大韓의 少年은 須史 라도 可離육티 못할디라”

<소년> 창간호 표지에는 이런 출사표가 제시되어 있다. 소년을 둘러싸고 역사, 세계문화, 국민 등의 계몽담론의 핵심적 코드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

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민족의 역사를 빛낼 수도, 세계문화에 대공헌을 할 수도 없다.

물론 여기서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서구식 지식이다. 그리고 이 지식의 전수처는 학교뿐이다. 이 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의 도제제도가 있었던 중세와는 달리, 근대 국가는 학교만을 유일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그 결과, 이반 일리히가 비판해마지 않았듯, 학교가 모든 공부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학교가 아니면 무언가를 배운다는 발상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 물론 20세기 초에는 교회가 학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기독교청년회’들은 신문물을 유입하는 주요 교량역할을 하였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학교와 다른 교육기관이라기보다 학교를 보완해주는 하위기관에 해당되었던 셈이다.

이 당시 학교나 교회가 소년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신체의 규율과 신지식의 주입’이 그것이다. 전자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괴서(1909.9.12. 672호)

국가의 복강흡과 우리 사람의 건강흡을 의론함 빅영진

단군의 신성흔 민족 우리대한테국 이천만 동포중 쇼년제군들이여 제군은 영웅이 되고져 아니흐며 나라를 위흐여 진력지 아니코져 흐는가 제군이 만일 브라는바 영웅과 담당코져 하흐는바 의무를 달흐고 저홀진디 무엇을 힘쓰면 가흐며 무어슬 숭비흡이 가홀가 나는 테육흡이 가흐다흐노니 테육이라흡은 무엇을 가르침이뇨 신테를 건강흐고 활발케흐는자ㅣ며 공동단합력을 양성흐는자ㅣ며 용맹흐고 겁업는 막음 고통흐는자ㅣ며 약흐자를 강흐게 흐는자ㅣ며 병든자를 소싱케흐는자ㅣ며 국가를 부강케흐고 완전케흐는거시 테육이니라
그몸 파리흐게흐고 약흐게흐는자는 그 신테의 테육에 쫓이업는자ㅣ오 그나라를 쇠역케흐고 빈궁케흐는자는 그 인민의 테육을 발달치

못하느자니 슬프다 우리나라의 쇼년제군의 기상을 볼진디 활발하여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기상은 조금도 없고 나약하고 느려진 정신만 가득차서 반쯤 죽은사람의 모양과 같으며 누가 늙은이며 누가 젊은이 분별키가 어려우니 그런즉 엇지 나라의 쇠약함을 면하며 인민이 엇지 도탄을 면하리오 그런고로 건강하고 완전한거슨 만스의 근본이라 신체가 건강하면 나의 하고저 하는바 지식과 직능을 모다 가히 믿음되로 스용할거시오 간난하고 괴로움도 믿음되로 참아서 그 어대 쟁지든지 준덕하되로 나아가서 뜻되로 성공함을 보랄거시오 신체가 만일 건강치못하면 신체만 쇠약할뿐 아니라 그 전신까지 외하여 쾌활한 원기를 일흔지며 그 믿음이 현황하여 일등하지 못하고 평상에 병든사람과 같이 세상을 보낼지니 더 비록 경태위다하고 신출귀몰하는 기계묘척이 잇스든 엇지 스용함을 얻으리오 대개 이민은 국가의 원기라 원기가 싱하면 그나라는 반드시 부강하고 원기가 쇠하면 그나라는 반드시 쇠약할거슨 지혜가업는 무식한자나 리도 가히 알바라

즉금에 텃하각국이 동서몇천리 몇만리에 룡선화차가 서로 통하여 아침에가고 저녁에 와서 약한자를 강한자가 먹으며 범곳치보고 고리곳치 삼키는 오늘날 이십세기를 당하여 불가불 테육에 급히 주의하여야 가하리라호노라 오호라 쇼년제군이여 인류된갑슬 보전코져하며 국가의 부강함을 도모코져하거든 테육을 힘쓸지어다

나의 친구 오륙인이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정신으로 청년의 테육이 발달치못함을 개탄하여 일개 테육부를 설립하고 일흠을 청년테육부라 하니 나는 이거슬 감사함을 말 아니하며 일면으로 아침에 설립하였다가 저녁에 도로 폐하는 폐단이 잇슬가 념려하여 혼말노고 호노니 제군은 더욱 힘써서 오늘날 청년테육부가 타일에 대한테국청년테육부로 변경되어 확장하기를 바라노라 (<대한매일신보>)

이 글에 따르면, 신체의 건강함이야말로 애국의 기초이자 문명의 발판이다. 말 그대로 체력은 국력인 셈. 그럼 대체 체력을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가? 어느 사회건 몸을 단련하는 문화적 전통은 있는 법인바, 중요한건 체력

자체가 아니라 체력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이때 학교에서 주력한 체육종목은 체조와 운동회다. 체조는 신체를 직선적으로 분할하여 각 부분들을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기초운동이다. 쉽게 말하면 몸을 절도있게 다듬어주는 종목이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군대식 훈련방식에 해당한다. 운동회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의 소학교에서 행해진 운동회를 연구한 저서에 따르면, 초기에는 맨손체조.아령체조.공막대체고 등이 주류였다가 차츰 군사교련적 종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¹¹⁾ 일본의 체조를 고스란히 복제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대한매일신보 1909.7.24 <소년남자가>>

(일)무쇠골격 돌근육 소년 남자야/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다다렷네 다다렷네 우리나라의 소년의 활동시대 다다렷네 (후렴)만인대적 연습하여 후일전공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 아닌가
(이)신체를 발육하는 동시에/경쟁심 주의력 양성하려고/공기 좋고 구역 넓은 연기장으로 활발 발 나는 듯이 나아가네
(삼)충렬사의 더운 피 순환 잘되고/독립군의 팔다리 민활하도다/벽력과 부월이 당전하여도 우리는 조금도 두렵 없네
(사)돌리고 빼여 쥐는 백률적기는/신속함이 흑운 심쳐 번갯불 같고/보내고 받아차는 수구축국은 분함이 백일청천 소낙비로다
(오)해전과 육전의 모든 유희를/차례로 흥미있게 승부 결하니/개신문 두렷이 열리는 곳에 승전고 울려라 둥둥둥 우는 한인야구단 용창가

‘무쇠골격, 돌근육, 더운 피, 민활한 팔다리’ 등은 군대식 체육에 의해 단련된 신체의 이미지다. 이런 식의 체력은 “만인대적을 연습하여 해전과 육전의 모든 종목을 미리 연습해보는” 과정 속에서 키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년이 학교에 들어가 익히는 체육은 기본적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의 배양이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체력단련은 기본적으로 청년기의 성적 에너지를 흡수,

11) 요시미 순야외, 이태문 옮김, 운동회, 논형, 2007, 115면.

통제함과 동시에 일찌감치 집단적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탈성화되고 소속감이 투철한 청년들로 키워지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소년>지에서 <신시대청년의 신호흡>란을 만들어 청년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윤리적 덕목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항목들을 보면, ‘절제, 침묵, 규율, 과감, 검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평정, 겸손’ 등으로 되어 있다. 청년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할 만큼 금욕적이고 자기규율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소년>지는 이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점검표를 제시하여, 요일별, 분기별로 발전 단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¹²⁾ 요컨대, 체육을 통한 절도있는 신체와 욕망에 대한 자기검열식 윤리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교육과정은 신지식의 주입으로 완성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1908.5.1.> ◀ 변혁시되 당흔 청년 외국형편 몽미흐면 기명진보 엇지
홀고 집히 든 잠 일즉 썩여 신지식을 주의하니 봄이 가면 여름 온다

<1908.6.7.> ◀ 버들빛치 청청하다 각학교를 설립하고 총준즈데 모집하
야 신학문을 교슈하니 지식발달 진보함이 만리전정 이 아닌가 청년
신세 창창코나

<1908.7.3.> ◀ 각학교가 설립한 디 청년즈데 입학하야 디지 렉스 강습
하니 더 공부도 도커니와 외국가를 부를 제는 듯는 사람 감동하네
신세계가 되엇고나

<1908.9.5.> ◀ 타인들의 즈녀라도 내 즈식과 궂치 보고 열심으로 인도
하야 신지식을 발달하면 대한강산 삼천리에 이천만중 기명하야 일심
단테 되려니와 외국심이 절노 난다

◀ 청년즈데 교육하야 기예지능 성취하고 농업상권 확장키로 실디스
업 진보하면 문명국이 이 아니며 부강국이 아니 될가 태극기를 높이
들어 세계상에 놀녀 보세

<1908.12.12.> ◀ 대장부야 대장부야 전국청년 몰아다가 학교 중에 집

12) 소영현, ‘청년과 근대’ -소년을 중심으로, 61면)

어 넷코 각종학문 교수호야 인지양성 호 연후에 학계주인 되는 것도
대장부의 스업이오 (＜대한매일신보＞)

<1908.7.18.>

◀ 시스평론 ▶

◀ 시세형편 솟혀 보니 보국홀 이 누구런가 청년즈데 엇기 우에 메인
직척 중대하다

◀ 청년들아 청년들아 이 강토에 싱장호야 국민의무 업슬손가 국세
점점 미약호나 강장력을 양성호면 붓들 방척 즈직호니 새 정신을 썩
여 보세

◀ 청년들아 청년들아 고루거각 넘어질 제 호 나무로 고일손가 교육
상에 열심호야 외국스상 감발호면 단테력이 즈연 되니 새 정신을 썩
여 보세

◀ 청년들아 청년들아 급호 물결 막는 거슨 곳은 방축 이 아닌가 동
셔상용 힘을 써서 일심으로 진보호면 실디스업 비난호니 새 정신을
썩여 보세

◀ 청년들아 청년들아 외국제도 의방호야 신학문을 주의호고 열강풍
과 속습호야 환골탈퇴 호고 보면 기명인종 일반 되니 새 정신을 썩
여 보세 (＜대한매일신보＞)

이상에서 보듯, <대한매일신보>의 계몽주체들은 청년교육을 각성시키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시도한다. 그들에게 있어 청년은 신지식의 주체였고,
신지식으로 무장해야만 ‘새정신’을 지닐 수 있었다. 여기서 청년은 곧 학생
을 의미한다. 교육제도에 편입되지 않고서는 청년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 학
교는 신분, 지역, 출신과 기질 등 모든 이질성과 차이를 균질화하면서 근대
적 주체로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체제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입되는 근
대적 신지식이야말로 청년들이 사회와 세상, 인간과 우주를 동일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리즘이자 창구였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계몽담론은 신지식과 애국심을 곧바로 등가화한다는 점이다.

즉, 신지식으로 무장하면 곧바로 그는 애국심에 불타 신민족 신국가 건설에 앞장서리라고 보는 것.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에는 두 가지 전제가 담겨 있다. 하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지식이 보편적인 문명론이 아니라, 민족국가의 경계 안에 있다는 것. 즉, 그것은 문명이라는 보편성의 외양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국강병이라는 목표 아래 종속되어 있는 철저한 실용지라는 것. 사실 근대 이후 모든 학문은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 하나는 지식의 명제가 곧바로 행위를 유발하리라는 순진한 믿음이다. 즉, 알면 행한다고 생각한 것. 그만큼 새로운 삶에 대한 파토스가 흘러넘쳤고, 또 그에 비례하여 청년들에게 부과된 학생으로서의 임무는 절대적 명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족, 성적 통제의 장

“근대사회에서 승리한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족이다.”(아리에스)

과연 그렇다. 근대 사회에서 순수한 개인의 자리는 없다. 오직 가족단위로 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소년이나 청년 또한 마찬가지다. 소년이 개별 주체로서 존재할 통로는 없다. 어떤 가정의 소속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물론 근대 이전에도 가정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가문이나 마을이라는 단위가 더 일차적이었기 때문에 가정과 외부의 경계는 선명하지 않았다. 소년기나 유년기가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그런 사회적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하지만, 근대의 가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근대 이후 가족은 소규모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가족 외부와의 경계 또한 선명해졌다. 어린이의 탄생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즉, “19세기가 되면 아이들의 몸, 그 순수한 상태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강화된다. 이것은 특히 아이들의 성욕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었다. 아이들의 자위를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모나 성직자, 그리고 의사의 협동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때부터 가족 공동의 방, 공동의 침대는 사라진다. 한 사람 앞에 하나

씩의 침대를!..덕분에 부모는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다.놀랍도록 무성적인 배려가 발생한 것. ...아이에 대한 훈육과 통제의 규범을 뒷받침했던 것은 건강함이나 도덕적임에 대한 의학의 지식이었다. 이 시기의 의학은 과학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했는데, 이것은 아이러니였다.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창출되었던 가정과 오직 부모에 의해서만 독점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아이들이 과학과 의학이라는, 공적이며 때로는 국가적이었던 시선의 통치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¹³⁾

우리나라의 경우 1920년대가 되어야 ‘어린이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근대 계몽기에는 이런 식의 배려와 통제는 소년과 청년에게 주어졌다. 먼저 소년이나 청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방탕에 대한 욕구다. 학교체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반애국적이며 가장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년기야말로 그런 유혹이 가장 자연스러운 연령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한 경계의 언술들이 넘쳐난다.

<1908.7.11.>

◀ 시스평론 ▶

- ◀ 청년들께 시험하야 말 혼 마디 붓치노니 이 시딕가 어느 쎄노 신스 업을 등기하고 무정세월 허송하면 후회날 쎄 잇스리니 경계할 일 허다하다
- ◀ 경정하는 이 시딕에 혼 스업도 못 일우고 유의유식 일습다가 머리 우에 빅발 나면 던하기물 될 거시니 후회흔들 무엇 헐리 이것도 경계할 일
- ◀ 세계풍조 변환흔디 고무구습 못브리고 어둔 방에 드리 안저 신스샹 이 미기하면 이 던디가 넓다 혼들 이 혼 몸을 둘 디 업네 이것도 경계할 일

13) 'childhood'를 '어린이'라는 말로 옮겨옴으로써 연령별 수준차 학습에 기반한 교육제도와 모성애를 중핵으로 설정하는 가족애의 창출이 가능했다. 게다가 한국에서 어린이기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제국 일본의 병원과 학교, 위생경찰 체제, 위생조합 등의 제도적 장치를 작동시키는 고리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선민, 앞의 글, 194면을 참조할 것.

- ◀ 남북촌에 출입하니 친구 상종 업슬손가 손을 잡고 왕릭홀 제 썬말을 달게 녀여 오료평싱 못 썬듯고 우유도일 하지 마라 이것도 경계홀 일
 - ◀ 주스청루 주럼 속에 아미 그린 절디가인 혼번 보면 호탕하야 정신 업시 노닐 적에 용전여슈 하고 보면 여간자산 간 디 업다 이것도 경계홀 일
 - ◀ 모대관집 화투판에 지전 펄펄 놀니기로 산과 갯흔 허욕 나셔 몇 천 만 원 디미하고 졸디 부자 되랴 하나 내 직물만 탕진이라 이것도 경계홀 일
 - ◀ 외국물품 사드려서 룡라주의 찬란하니 그 즈본은 어셔 나며 그 직정은 흥상일가 외국으로 다 보내면 기한도끝 너썬일다 이것도 경계홀 일
 - ◀ 화조월석 도흔 세면 광무디와 장안샤에 모모관인 작반하야 왕릭하며 흥락홀 제 활슈단이 잇는 드시 불석천금 판이 난다 이것도 경계홀 일
 - ◀ 외국손님 상종홀 제 파성관과 화월루로 전별연희 자조 되야 진슈성찬 도흔 음식 특별하게 디접하면 일가산이 다 드느니 이것도 경계홀 일
 - ◀ 니웃 친구 불너내여 도흔 술집 돈니면서 밤낫으로 술 먹을 제 취호리지건곤하야 세샹스를 불게하면 패가망신 압헤 잇다 이것도 경계홀 일
- (<대한매일신보>)

<1908.3.24.> ◀ 슬슬 부러 봄브람에 호탕쇼년 놀아난다 광무디를 차져갈 제 동리친구 청텃하고 미인가직 동헝하야 무상왕릭 노닐기로 가산탕패 쇼고하니 오료평싱 하지 마

<1908.7.31.> ◀ 인력거에 권연문 이 경박쇼년 이 아닌가 학문스샹 일호 업고 주식장에 출입하며 전고후점 양양하니 그 테격이 데일 뵈디

<1908.8.2.> ◀ 또 혼편을 솟퍼 보니 주스청루 세럼 속에 이팔청춘 쇼년들은 용전여슈 하여가며 절디가인 희롱키로 무정세월 허송하야 오료평싱 하는 모양 지척갓치 력력하다

<1909.4.27> ◀ 지각업는 쇼년비는 제 아모리 미성호나 스샹들이 엇덜
 킬내 중대척임 저버리고 창부기싱 쥬축호야 춤도 쥬고 노래호노 방
 화슈류 골몰호여 허다전직 람용호고 탕패즈데 패를 차니 하우불이
 이 아닌가

<1909.5.8> ◀ 쇼년계로 말홀진디 늬의 집의 청년들은 학문연구 열심컨
 만 그런 일은 비우스며 제 부모의 모흔 직산 공것으로 알엇던지 동
 원도리 화기야와 록음방초 승화시면 동서분주 몰녀가며 주식장에 판
 이 나고

<1910.4.6> ◀ 지녕군에 장종근은 십륙세의 쇼년으로 인민지식 발달
 코져 나무 허다 푸는 디로 쓰지 안코 모왔다가 로동학교 세웠다니
 치하홀 일 그 아닌가 물 쓰드시 돈을 쓰며 청루방을 학교 습고 화투
 판을 과정습는 큰 부즈집 즈데들아 더 쇼년을 본밧으소

(<대한매일신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방탕의 핵심은 도박과 주색잡기다. 도박과 주색잡기
 는 어느 세대에나 문제지만 근대 이후 청년들에겐 특히 금지되어야 할 사항
 이다. 청년이 도박과 주색에 빠지는 건 장년이나 노인의 일탈에 비해 더욱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야흐로 ‘청년의 시대’이기 때문이요, 청년이
 곧 민족의 대표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자료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서를 말해준다.

#론설(1908.8.7. 353호)

쇼년동지회에 고희는 말

나의 공경호고 스랑호는 쇼년지스 제씨들이 동지회를 발기호고 취지
 셔를 공포호엇더라

괴자는 제씨의 면목도 보지 못호엿스며 담론도 듯지 못호엿스나 쇼
 년 두 글스즈에 찬미함을 말지 못호며 취지셔 혼장에 흠탄함을 이기
 지 못호야 혼말을 요호노니 읍흐다 쇼년동지회의 모든 쇼년들이여
 대더 쇼년이라 흠은 엇던 사름을 널킴인가 그 팔힘이 이미 쇠흔

자|면 이를 쇼년이라 하지 못할거시며 그 정신이 이미 모순한자|
 면 이를 쇼년이라 닐곳지 못할지니 반드시 괴력이 성대하고 정신이
 강장해야 험한거슬 맛나도 능히 피치아니하며 난을 당하여도 능히
 물니치고 혼번늘고 썩미 턴디가 빗줄 동하며 혼번 소리를 지르미 일
 만군스가 무릇 창을 하여야 이에 가히 쇼년이라 닐크를지니
 가히 스랑홀만흔 자도 쇼년이며 가히 두려울 자도 쇼년이라 쇼년의
 손과 팔은 이나라 디경을 방비하는 장창대검이며 쇼년의 거름은 이
 험하고 막힌거슬 통하게 하는 괴선과 화차이며 쇼년의 직희는거슨
 이 종류에 특립한 돌기둥이며 쇼년의 압력으로 나아가는 거슨 이 바야
 호로 자라는 봄남기라 전비의 청장못한 구채를 마감할자도 오죽 우
 리 쇼년이니 가히 스랑흡다 쇼년이며 쏘한 가히 두렵도다 쇼년이며
 무릇 쇼년의 전경이 이곳치 멀고 쇼년의 책임이 이곳치 중한거늘
 오호|라 즈전으로 한국쇼년을 볼진디 엇더하였는가 좀 먹은 칩상에
 묻지 안즌 칩을 디하여 취한 잠을 썩치지 못한 쇼년이 아니면 기성
 의 집애나 술저즈에서 음탕한 노래나 불으며 강개한 눈물이나 흘니
 는 쇼년이며 청풍명월에 시스구|나 지어서 스스로 방탕한 쇼년이
 아니면 세력있는집에 돈이며 의뢰하거나 일습는 쇼년이며 지리상에
 욕심이 도도한 쇼년이 아니면 산림중에 쏴어안져 죽거나 기다리는
 쇼년이니 오호|라 쇼년이며 쇼년이며 더러 쇼년들은 그 모양은 쇼
 년이오 그 년치는 쇼년이로되 그 뇌슈가 이미 썩고 그 괴운이 이미
 쇠하였스니 이는 로인이라 흠은 불가하며 죽은 사람이라 흠은 가한
 거니와 쇼년이라 흠은 불가도다
 숭하다 전국안에 이런 쇼년곳흐디 쇼년이 아닌 쇼년이 충만하였스니
 국가가 쇠하지 아니코져한들 엇을 수 잇스며 사회가 부패치 아니코
 져 한들 엇을 수 잇스리이
 그런고로 오늘날 비참한 정경에 니른거슨 몇백년뒤로 악쇼년의 업원
 으로 일운 바|라 만일 지금이라도 다만 더러한 쇼년이나 잇고보면
 장력에 비참한 일이 이나라에 다시 더 올지니
 힘쓸지어다 쇼년제군주여 이나라의 강하고 약하며 성하고 쇠한거
 슬 귀신이 쇠함이 아니며 이날야의 성패와 존망을 하늘이 맞춘 바|

아니라 쇼년제군즈가 맞흔 바 | 니 힘쓸지어다 제군즈여 늬이 흥나홀
 흥거든 나는 빅을 흥며 흥 소리로 서로 응흥야 아모도록 쇼년의 턴
 싱 직칙을 실행흥며 아모도록 쇼년의 명예를 일우어서 환산흥거슬
 단합케흥고 부패흥거슬 신션케흥야 제군즈는 이나라에 식쇼년이 되
 며 이나라는 세계에 쇼년국이 되게홀지어다 더 마지니나 가리파디는
 엇던 사릅이며 제군은 엇던 사릅이뇨
 이말은 다만 동지회에 고희이 아니오 전국 쇼년에게쓰지 고희노라

이런 논법에 입각해 볼 때, 소년들의 일탈적 욕구는 철저히 관리, 통제되
 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나 사회에서 이것을 다 담당하기는 벅차다. 따라서
 가정교육이 이 영역을 카바해주어야 한다. 모성애가 계몽담론의 지평에서
 부상하는 국면이 바로 여기이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21일

어려서부터 무식하고 미련한 어미에게서 함부로 자라난 것이 뇌수
 에 굳어서 생마와 같은 아해들만 줄지에 학교이니 신학문이니 하고
 몰아 넣으니 몇 날 동안에는 외양으로 흥미가 나는 듯하다가 뇌수에
 굳은 버릇이 줄연히 풀리지 못하였으매가정에서 한 가지도 배운
 것이 없는 아해들은 고상한 도덕으로 배양하며 제반 보통지식으로
 교수하면 어찌 어렵지 아니리오 그러므로 집집에서 가정교육을 힘쓰
 되 그 교사는 부인이 할지라 그런 고로 각처에 여학교를 설립함이
 가장 긴요하다 하노라

이같이 한즉 여자교육은 곧 사범교육이 될 줄로 나는 믿노라 남의
 어미되고 가정에 선생될 우리 여학도들이여 이 뜻을 깊이 생각하야
 도저히 힘을 쓰고 입학지 아니한 자매들은 하로 바빠 입학하여 가정
 에 선생될 자격을 양성하기를 천만 바라노라

이것은 정나헬이라는 십육세 여자가 쓴 글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여성이

교육을 배우는 목표는 가정교육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다. 즉 “어머니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유년기의 상당기간 동안 아이들의 직접적 교육담당자다. 어린이교육(당시에는 ‘동몽교육’이라 칭해졌는데)이 강조되면 될수록 여성의 임무는 막중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성교육의 위상 또한 한껏 높아질 수밖에 없다.”¹⁴⁾

이런 맥락에서 모성은 문명의 기초, 민족주의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어머니라는 지위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곧바로 남성의 전방위 보조자로서 모든 가족관계를 다 책임지는 위치에 놓인다. 즉, 어머니는 그 즉시 ‘남편의 교사요 고문관’으로서 형제자매, 시부모를 두루 봉양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한마디로 가족의 파수꾼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이들의 교육이다. 그리고 가정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다. 소년들이 밖으로 도는 것도 문제거니와 혼자 은밀히 성적 탐닉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다. 성에 대한 음란한 생각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성적 탐닉은 도덕적으로 불결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허약한 존재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¹⁵⁾ 이를테면, 학교와 사회가 다 카마할 수 없는 미세하고 조밀한 영역은 전적으로 가정이고, 곧 어머니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청소년의 범 죄 뒤에 늘 모성결핍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간주되는 것 역시 이런 배치의 산물이다.

6. 마무리

근대계몽기에 있어 소년은 청년과 구별되지 않는 범주였다. 소년, 청년은 통칭으로 서로 넘나들었다. 하지만, 1910년대 들어 청년이 10대 후반과 20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면서 소년은 점차 10대 초반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

14)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2장 ‘여성은 어떻게 국민이 되었나?’를 참조할 것.

15)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연숙, 근대 가족과 프라이버시의 탄생,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을 참조할 것.

고 1920년대에 들면 다시 10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아동기, 어린이기, 혹은 유년기가 탄생되었다. 소년이 청년을 낳고 다시 어린이를 낳는 식으로 분화되어 온 것이다. 말하자면, 문명이 진보할수록 모든 세대를 조밀하게 나누어 관리하는 체제가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금은 30대가 되어야 간신히 성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청년기가 연장되었다.

(여성) 35세에는 양명맥(陽明脈)이 쇠약해져서 얼굴이 초췌해지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때로 빠지며, 42세에는 삼양맥(三陽脈)이 위쪽에서부터 쇠약해져 얼굴이 모두 초췌해지고 머리카락이 희어지기 시작하며, 49세에는 임맥(任脈)이 허약해지고 태충맥이 쇠약해져 천계가 다 말라 월경이 통하지 않게 되므로 형이 허물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다.

(남성) 40세에는 신기가 쇠약해져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마르며, 48세에는 양기가 위쪽에서부터 쇠약해지고 고갈되어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카락과 구레나룻이 희끗희끗하게 된다.

동의보감의 연령별 생체주기다. 결국 지금 청년들은 육체적으로 쇠락하기 시작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성인이 되고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된다. 그야말로 자연에 ‘반하는’ 생체주기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국가, 학교, 가족의 통제가 더더욱 강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계몽기와 비교하면, 부국강병의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민주주의 역시 엄청난 진보를 거듭했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근대계몽기때보다 더 조밀한 통제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다. 국가는 경쟁력을 지나라고 외쳐대고, 가정은 사교육에 올인하고 학교 역시 학생들을 포위하는 감옥이 되었다. 국가, 학교, 가정 - 이 세 개의 축 사이에서 청년기의 열정과 패기는 한없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계몽기의 지평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허준 지음(2002), 동의과학연구소 편, 동의보감 제 1권(내경편), 휴머니스트.
- 미셸 푸코/박정자 옮김(199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 고미숙(2006), 나비와 전사. 휴머니스트.
- (2001),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 권용선(2005), ‘청년’개념의 분화과정과 자기구성의 논리, 김용성 외, 한국문학연구의
현 단계, 역락.
- 권보드래 외(2007), [소년]과 [청춘]의 창, 이대출판부.
- 요시미 순야외, 이태문 옮김(2007), 운동회, 논형.
- 김연숙(2007), 근대 가족과 프라이버시의 탄생,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 비.

<자료>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소년

Ⅲ. 쾌남아 (快男兒), 천재, 영웅 키우기

1. 머리말 - 근대의 “훈육” 개념 성립과 발전.
2. 1910년대: <소년>과 <학지광>에서의 훈육론(論)
3. 1920-30년대의 “신여성”, “개성 (個性)”, 훈육.
4. 결론을 대신하여: 근대적 훈육 이념의 명암

III. 쾌남아(快男兒), 천재, 영웅 키우기-1910~30년대 아동·청소년 훈육 담론의 전개

1. 머리말 - 근대의 “훈육” 관념 성립과 발전.

근대가 가져다준 변화 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 훈육 과정의 정기화, 대량화, 실용화 그리고 과학화다. 전통 사회의 훈육이 지배계급 구성원, 즉 소수 엘리트의 “도덕 자본” 축적 과정이었기에 대체로 능력별 “맞춤형”, 관념적인 “도덕 가치” 내면화 중심의,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종횡무진형 (縱橫無盡型)”, “만물박학” 달성 위주의 과정이었다. 전통 사회에서 많은 경우에는 훈육 과정이 가학 (家學), 즉 문중 안에서의 지식 전달과 자습, 독학에 의존하는 등 대체로 제도화의 정도는 낮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16세기 전성기의 전통 성리학을 빚낸 인물들 같으면 거의 다 가정에서의 독학을 통해 지식과 작문 능력을 배양했다. 예를 들어 16세기 성리학의 거물 중의 한 명인 남명 조식 (南冥 曹植: 1501-1572)은 7세부터 부친으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서경 (書經)·시경 (詩經) 등 다소 어려운 경전들을 우선 부친으로부터 “입과 귀”로 익히고, 18세부터 사서 (四書), 경서 (經書)부터 수학·의학까지 두루 독서하고, 19세에 산사 (山寺)에 들어가 친구와 함께 <주역> (周易)을 배웠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선생도 없었다¹⁾. 성리학에 있어서는 남명 조식과 은근한 경쟁을 벌였던 퇴계 이황 (退溪 李滉: 1501-1570)의 경우에도 6세부터 이웃집 노인으로부터 글을 깨치고 그 뒤로는 진주 월아산의 청곡산 (靑谷寺)에 들어가 형제와 함께 글 공부를 계속하고, 12세부터 숙부로부터 성리학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역시 그 후로도 주로 독학에 의존했던 편이었다. 23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두 달 동안 수학했던 것은 그의 정식 학교 수업 이수 경력의 전부이었다²⁾. 독학이 아닌 어느 정

1) <南冥先生文集> 附錄 編年 참조

2) 退溪先生 年譜, - 김시황, 윤무학 엮음, <퇴계학 연구 논총>, 대구: 경북대학교 퇴계

도 제도화된 훈육의 경우에도 각 학동의 능력에 따라 진도를 달리 나아가는 등 "개인 능력 위주"는 그대로이었다. 17세기 이후로 보편화된 서당 (書堂)의 경우에는, 학동마다 그 개인의 진도와 능력에 따라 하루마다 훈장 내지 그 보조원인 접장 (接長)으로부터 개인별 과제를 받곤 했다³⁾.

지식 전달과 작문 능력 배양 등과 함께 훈육의 주된 목적은 성리학의 추상적 가치들의 개인별 내면화와 그 구체적 실천, 즉 예의범절 엄수의 장려이었다. 이와 같은 훈육 목적론을, "內明者敬 外斷者義" (안을 밝게 하는 것은 敬, 바깥을 정리하는 것은 義)라는 검명 (劍銘)이 새겨져 주인의 방심 (放心)을 예방케 해야 했던 남명 조식의 그 유명한 칼이 잘 상징했다⁴⁾. 구체적 가치의 내용은 같을 리는 없었지만, 아동 훈육 과정의 전반적 테두리는 18세기 이전의 유럽에서도 위와 같은 조선시대의 방식과 유형적으로 흡사한 면이 많았다. 오늘과 같은 "아이"와 "어른"의 구분없이 아들이 어른들과 다를 것 없이 종교적 텍스트 암송과 종교적 가치 내면화에 열을 올려야 했고, 귀족 자제들이 보통 개인 교습 내지 개인 능력에 따르는 개별적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내면화된 가치들의 실천으로서의 올바른 예절의 엄수 등 "행실의 배양"이 특권층 교육에서 중심적 부분을 이루었다. 종교적 텍스트들은 핵심적 내용이었지만, 의학이나 수학까지 아우르는 "박학" 역시 장려됐다⁵⁾. 인본주의 (humanism)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16세기 중반 이후의 영국 같으면, Thomas Elyot (c. 1490-1546)과 같은 주요 교육 사상가들은 귀족 자제들에게 성경과 함께 희랍 및 로마 고전의 섭렵, 그리고 7세 이후의 젊은 여성과의 격리 등을 통한 "부도덕한 욕망의 억제와 도덕 수양", 그리고 무용 (舞踊) 연습을 통한 예의범절과 중도 (中道) 정신의 배양 등을 권고했다. 물

연구소, 1997, 17-133쪽

3) 김종수, 조선조 서당 교육 연구, - 계명대 한문학 연구회 발행 <한문학연구>, 제4집, 1987, 15-29쪽

4) 박익환, 남명 조식의 교육사상, -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서울: 집문당, 2003, 155-190쪽

5) Helen M. Jewell, Education in Early Modern England, NY: St. Martin's Press, 1998, pp. 7-15.

론 개인화된 지도와 기독교적 신앙심 배양의 중심성은 그 교육론의 전제이었다⁶⁾.

전통 사회의 추상적 가치 내면화 중심의 교훈주의적, 개인 교습 위주의 훈육 체계는 17세기 영국 부르주아 혁명 등 근대 초기의 진통 속에서 점차 균열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7세기말 영국 부르주아 입헌주의 철학가라 할 존 로크 (John Locke, 1632-1704)의 <교육 단상>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1693) 전통 교육에 존재하지 않았던 "흥미"의 관념을 도입해, "흥미 유발"을 통한 아동 내면에 대한 침투성이 보다 높은 새로운 훈육의 개념을 정립했다. 부르주아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시·음악 등이 "실용성이 떨어지는" 과목들이 폐기 대상으로 지목되는가 하면, 중세 사회의 욕망 억제 논리가 근대적으로 변용돼 "신체 단련", "내면 단련", "인고 (忍苦) 정신 배양" 등의 새로운 훈육 방법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했다. 훈육이 "개인의 선악 여부를 결정짓는 사람되기의 핵심적 요인"으로 평가 받았지만, 체벌 위주의 과거의 "노예적" 훈육 방법들이 혹독하게 비판받기도 했다⁷⁾. 로크의 영향을 받은 존 뉴베리 (John Newberry, 1713-1767) 등의 초기 아동 서적 저자, 출판업자들은 "근면성과 성실성을 통해 자수성가한 가난한 아이의 이야기" 등의 "작은 영웅 평전"들을 통해 청교도적 가치들을 "흥미 있게" 아동들에게 주입시키려 노력했다⁸⁾. 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로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 훈육 방법들이 18세기말 이후부터 점차 개발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방법은 학급 편성과 교사 중심의 교실의 공간적 배치, 지속적인 시험을 통한 아동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통제 등을 도입했던 조세프 랭커스터 (Joseph Lancaster, 1778-1838)의 빈민 자제 교육 방법론이었다. 로크의 체벌 폐지 논리를 계승한 랭커스터는 그 대신에 경쟁 및 성취 등 일

6) Alice T. Friedman, *The Influence of Humanism on the Education of Girls and Boys in Tudor England*,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25:1/2 (1985), pp. 57-70

7) Nathan Tarcov, *Locke's Education for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8) Samuel F Pickering, Jr. *John Locke and Children's Books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81

부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긍정해 아동 사이의 "경쟁 욕구"와 "성취 욕구"를 장려하는 훈육 방법을 정리했다⁹⁾. 그렇게 해서 "감동"과 "분발" 등 아동의 욕망을 피(被)훈육의 원동력으로 삼아 아동이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고 정신", "근면성", "성실성" 등을 남과 경쟁적으로 배양하려고 하게끔 그 욕망들을 교묘하게 배치시켜주는 새로운 "유도적(誘導的)" 훈육 체계가 조금씩 형성돼 갔다. 다소 추상적인 원리들의 내면화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에게 그 원리들의 이해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허용했던 전통 시대와 달리, 새 시대의 훈육은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인간 형에 정확하게 자신을 맞추는 쪽으로 유도했으며, 피(被) 훈육자 소집단 안에서의 "모범생 되기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침투성을 발휘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근면, 성실하고 경쟁력과 성취욕을 갖춘" 어린 부르주아 만들기 프로젝트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예컨대 독일 민족주의 교육 운동의 이론가라 할 프리드리히 류트윅 얀(Friedrich Ludwig Jahn, 1778-1852)은 그의 초기 명작인 <독일 민족 전승>(Deutsches Volksthum, 1810)에서 "민족 부흥을 위한 의무교육론", 고전언어 등 "비(非)민족적" 교과 폐지, 민족주의적 의미가 있는 과목(독일어, 독일문학, 군사 교육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체육 등) 주시, "민족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의 중요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교육입국적"인 민족주의적 발상을 내비쳤다. 비스마르크 등 독일 민족주의 역사상 중심적 위치를 점하는 19세기 후반의 많은 인물들이 한 때에 다녔던 얀 계통 영향 하의 플람만 인스티투트(Plamann Institute) 등의 학교들의 특징으로는 체육의 중요성과 교사, 학생 사이의 위계관계의 상대화, 즉 "민족 공동체"를 쉽게 상상케 하는 "교육 공동체적" 분위기가 자주 언급된다¹⁰⁾. 얀 등에 의해서 새롭게 체계화된 체육의 새로운 위상은, 훈육 과정이 "전사(戰士)"가 될 수 있

9) David Hogan, The Market Revolution and Disciplinary Power: Joseph Lancaster and the Psychology of the Early Classroom System,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29:3 (1989), pp. 381-417

10) Rolland R. Lutz, "Father" Jahn and his Teacher-Revolutionaries from the German Student Movement,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48:2 (1976), pp. 1-34.

는 군사화된 남성의 신체까지도 철저히 다듬을 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 등에 의해서 "민족 교육"이 "민족 정신을 만드는 기본 조건"으로 칭송되는 한편, 그 훈육의 방법론이 심화되고 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들까지 보다 강력하게 동원하게 됐다. 안의 교육 사상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프리드리히 프뢰벨 (Friedrich Froebel, 1782-1852)이 취학 연령 이전의 아동을 "순진무구한, 논리적 사고가 덜 발달돼도 이성이 충분히 갖추어진 존재"로 간주하여 이렇게 이상화 (理想化) 된 "소년"과 '소녀'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개발시키기 위해 "깨끗한 아이"들이 "더러운 세상"과 격리되어 "기독교 신앙과 도덕성"에 기반한 "아이의 능력에 맞추어진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진무구한 아동의 인격 수양"이 이루어질 장소는 바로 프뢰벨이 창시한 "유치원" ("아동의 정원" - kindergarten)이었는데, 조기 도덕 훈육이 산업 사회가 일으키는 온갖 문제점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 "이상적 인격"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1860년대 이후의 미국 등 구미 지역 선진 사회에 퍼져 19세기 후반의 "유치원 설립 붐"으로 이어졌다¹¹⁾. 한 마디로 개인 교습 중심의, 다양한 고전의 섭렵과 해박한 박식, 그리고 종교적 가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 시대의 훈육은, 유치원과 학교, 대학교 등 제도화된 "과정" 중심의, 부르주아 사회가 요구하는 "성실성"과 "근면성", 그리고 국민 국가가 요구하는 "군사화된 남성"의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근대적 훈육 체계로 탈바꿈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훈육 체계에서 훈육이 유치원 단계, 즉 2-6세부터 시작되는 등 아동의 조기 제도권 교육 편입이 중시됐으며, "소년/소녀" 시대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부르주아 국민 국가의 "완벽한 구성원"이 될 바탕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인식됐다. "소년", "청년"에게 "바른 훈육"을 받아 "도덕적이며 애국적" 국민이 될 의무가 부여되는 한편, 그에게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의식도 보편화됐다.

1868 명치 유신 이래 유럽 근대의 훈육 이념들이 동아시아에서 수용되어

11) Dom Cavallo, From Perfection to Habit: Moral Training in the American Kindergarten, 1860-192,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16:2 (1976), pp. 147-161

“동아시아적” 색채를 띠어 토착화되기 시작했는데, 개회기 및 일제시기 초기 한국의 경우에는 이 수용 과정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일본어로 번역 내지 번안된 유럽 교육 사상가들의 저서나 교육학 관련 서적들이 특히 도입 유학과 지식인들에 의해서 읽혀져 번역되어 수용되고, 또 한편으로는 양계초(梁啓超, 1873-1929) 등 일본 영향을 다분히 받은 청나라 말기 중국 개혁파 사상가들의 교육 관련 저서들이 신문과 잡지 등 근대적 매체에서 번역된 채 연재돼 교양인들 사이에서 대중화됐다. 후자의 훈육 사상은 근대적 훈육 이념의 근저를 동아시아 고전들과 자주 비교하여 “성현의 가르침”과 유럽 사상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의 차원에서 개신 유럽과 같은 구한말 개화파의 “다수파”의 구미에 잘 맞아 한국 훈육 이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양계초는 고대 중국의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단계적 공부, 피(被)교육자의 흥미 유발을 통한 훈육, 경험과 이론적 이해의 결합을 통한 공부 등을 강조했다. 예컨대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이 번역한 양계초의 <논유학> (論幼學)에서 단계적인 훈육방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됐다:

“其爲道也이 先識字하며 次辨訓하며 次造句하며 次成文하야 不躐等也오. 識字之始에 必從眼前名物指點하야 不好難也오. 必敎以天文地學淺理하되 如演戲法하니 童子의 所樂知也오. 必敎以古今雜事하되 如說鼓詞하니 童子의 所樂聞也오. 必敎以數國語言하되 童子의 舌本이 未強하니 易於學也오. 必敎以算하니 百業所必用也오. (중략). 必習體操는 强其筋骨하고 且使人人可爲兵也오. 每日授學에 不過 三時는 使無太勞하야 致畏難也오. 不妄施扑敎는 使無傷腦氣하고 且養其廉恥也오. 父母가 不得溺愛荒學은 使無棄材也오” (그 [서구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문자를 익히고 그 다음에 말하기, 문구 만들기, 작문하기 등을 익히 단계를 뛰어넘지 않는다. 문자 익히기 전에 먼저 눈 앞의 물건의 이름들을 꼭 배우니 그걸 싫어하기가 어렵다. 꼭 천문학과 지리학의 쉬운 이치를 가르치되 놀이처럼 하니 아동들이 앓을 줄진다. 고금의 각종의 일들을 가르치되 마치 장구 치면서 시를 외우듯

하니 아동들이 듣기를 즐긴다. 몇 가지 외국어를 가르치되 아동들의 허뿌리가 아직 딱딱해지기 전에 하니 아동들에게 배우기가 쉽다. 꼭 계산법을 가르치니 백 가지 실용적인 일에 쓸모가 있다 (중략) 꼭 체조를 연습케 하니 그 근골을 강하게 하여 사람들을 군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든다.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이 세 시간 넘지 않고 아동들을 과로시키지 않으니 이를 크게 두려워하기가 어렵다. 종아리를 치는 체벌을 지나치게 베풀지 않으니 아동들의 뇌 기운을 상하지 않게 하여 그 수치심을 키운다.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공부를 황폐시키지 않고 그 재능을 버리게 하지 않는다) (“論幼學” 一, - <서우>, 제6호, 1907년5월, 12-17쪽).

양계초는 로크와 랭커스터, 안의 근대 훈육 전통대로 체벌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다. 그는 같은 글의 다른 곳에서 “몸과 두뇌를 파괴하는 체벌(鞭笞)”, 그리고 “배고프고 춥고 쉬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수업의 좋지 않은 환경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삼는다 (“論幼學” 二, - <서우>, 제7호, 1907년6월, 8-11쪽)¹²⁾. 그럼에도 그가 유교적 훈육 관습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사의 체벌에 대한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남용”만을 비판하는 등 박은식 등에게 호소력이 높았던 전통에 대한 “융합적” 태도를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1895-96년부터 청일전쟁에서의 중국의 패배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서구의 ‘군사화된 남성성’ 담론의 영향을 다분히 받기 시작한 양계초가 “모든 남성들을 군인으로 만들 수 있는 체조”를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하는데, 새 훈육 방법의 군사주의적 측면들이 개화기, 일제 시기에 한국에서도 계속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2. 1910년대: <소년>과 <학지광>에서의 훈육론(論)

1910년대, 즉 일제 감정기 초반의 훈육 행위와 훈육 담론을 크게 두 가지

12) 박은식이 역술한 <논유학>의 전문(全文)을, <朴殷植 全集>, 서울: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1975, 하권, 140-157쪽 참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피(被)식민지인들을 '선량한 신민'으로 길들이려 했던 식민지 당국의 훈육 행위와 그 행위를 뒷받침해주었던 담론적 장치이었고, 또 하나는 "국권 회복"의 꿈을 끝내 접지 못하고 있었던 한국의 근대적 민족주의자들의 훈육 행위와 훈육 담론이었다. 이 둘은 정치적으로는 한 쪽이 그 초지(初志)를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로 융합될 수 없었지만 "근대성"이라는 공동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만큼 서로 충분히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었고 나름의 접점(接點)을 가질 수 있었다. 일제는 비록 "조선의 문명화"를 식민화의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1910년대에 근대교육기관들의 확충이 부진하는 것은 물론 "교육" 그 자체는 아직도 소수의 특권으로 남아 있었다. 1912-1917년간 4년제 관립보통학교들의 재학생 수가 41,063명부터 73,157명까지 약 두 배로밖에 늘지 않았으며, 일반서당과 개량서당, 사립 보통학교까지 가산해도 취학자 수는 382,115명, 즉 전체 취학 연령 아동들의 약 35%에 불과했다. 만약 관립 및 사립 보통학교라는 근대적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동들만을 계산한다면 1917년 식민지 조선의 취학률은 약 6,7%이었다¹³⁾. 다수의 아동들이 문맹자인 가난한 부모의 손에서 전통적 방법대로 컸지만, 근대 교육의 영향권에 들어온 이들에게 일제가 과연 어떤 방식의 훈육을 실시하려 했는가?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찌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가 그 유명한 훈시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일본의 "국시" (國是)에 맞는 "도덕과 품성"을 갖춘, 즉 순종적이고 근면한 "제국 신민" 만들기가 최우선의 과제이었다¹⁴⁾. "친일적 성향의 근대적 상류, 중산층 양성"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한국 근현대 교육사>, 성남: 1995, 106-107쪽; 김정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역사, 2004, 276-286쪽

14) "조선은 아직 내지와 사정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은 특히 그 힘을 덕성의 함양과 국어 (필자: 일어) 보급에 써서 제국 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만일 空理를 말하고 실행을 멀리하며 근로를 싫어하고 안일에 흐르며 質實敦厚의 미숙을 버리고 輕佻浮薄의 악풍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면 이것은 교육의 본지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일신을 그르치고 그 누를 국가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시세와 민도에 맞게 함으로써 양선한 효과를 얻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朝鮮總督府 엮음, <施政二十五年>, 京城:1935, 168쪽

일제 교육자들이 취했던 훈육적 수단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전체 틀과 상당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전근대적 요소들이 함께 아우러지고 있었다. 예컨대 수학자(修學者)에 대한 근대적 통제와 감독의 수단으로서 1910년대 보통학교에서 기말고사제도와 학생 성적, 품행 평가 제도, 그리고 담임교원 제도 등의 전형적인 근대적 장치들이 시행됐다. 품행 평가는 1910년대에 비해 1920-1930년대에 훨씬 강화됐지만, 철저한 시험제는 이미 1910년대에 자리잡았다. 1911년10월20일에 채택된 <보통학교 규칙>제30조에서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교과와 졸업의 인정할 때는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못박혀 있었고, 실제 그 시절에 학교에 다녔던 이들은 "중간 시험을 수시로 보고, 점수가 불량한 학생들이 다음 시간에 교실에 앉지 못하고 복도에서 선 채로 선생님의 말씀을 창 넘어 들어야 하는 고역을 겪는" 엄숙한 훈육적 분위기를 회상하기도 한다¹⁵⁾. 또 지식 전달보다 통제와 훈육이 더 중시됐던 보통학교에서 학급마다 담임이 배정돼 학동들에 대한 감시를 맡았다¹⁶⁾.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 체벌에 대한 공식적인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¹⁷⁾ - 초등, 중등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비교적으로 "가벼운" 손찌검부터 비인간적 구타까지 당하는 등 전근대적 체벌의 관행은 그대로 이어져 공포 유발 속의 규율 내면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했다¹⁸⁾.

이와 같은 훈육 방법과 그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훈육적 이상(理想)은 과

15) 김경자, 김민경, 김인전, 이경진, <한국근대초등교육의 좌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136쪽.

16) 이혜영, <한국 근대학교교육 100년 연구 (II):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267-268쪽

17) 일제가 처음에 발표한 "보통학교 규칙" (1911년10월20일 조선총독부 부령 제100호)에서 "훈육상 필요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29조) 고 돼 있을 뿐 체벌 허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그리고 개정된 "보통학교 규칙" (1922년2월20일 조선총독부 부령 제8호)에서는 명시적으로 "교육상 필요한 징계를 아동들에게 가할 수 있지만 체벌을 가할 수 없다"고 못박혀 있었다 (제79조). 김경자, 김민경, 김인전, 이경진, <한국근대초등교육의 좌절>, 224-251쪽

18) 박철휘, 일제강점기 중등학교의 학생규율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 제30집 제1호, 2003, 85-102쪽

연 어떻게 달랐던가? 피(被)식민인들의 민족주의적 훈육관(觀)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소년>지(1908년11월-1911년5월)이었다. 이미 서울에서 기초적 한문을 익힌 최남선이 1904년과 1906-19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유학을 하여 "일본적 근대"를 풍부하게 접한데다가 1907년에 동경에서 안창호(安昌浩, 1878-1938)를 만난 뒤에 그의 강한 영향을 받게 돼 안창호가 주도한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의 합법적 표면단체인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 1908년8월 설립)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는 등 안창호 계통이 대표하는 서구적, 기독교적 색채의 근대적 세계관의 세례까지 받았다¹⁹⁾. 그가 수용, 소화한 "근대"가 매우 중첩적이었던 만큼 그가 제시했던 훈육의 방법들도 꽤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대표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시대의 다른 민족주의적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제도권 밖에 있었으며 어떤 강력한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소년>지가 일부 사립 학교에서 교과서로 이용됐지만, 그 판매 부수가 보통 100권 안팎이었을 뿐²⁰⁾, 그 당시 출판물 시장에서 "혜게모니"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입장이 비교적으로 취약했던 만큼 그가 독자들의 국가적, 민족적 위기 의식에 강력하게 호소하여 "구국"(救國)의 방안으로서의 근대적 훈육의 자율적 실시를 강조해야 했다. 그러기에 이 청소년 잡지의 어투에서는 초지일관되게 국가적/민족적 비장감(悲壯感)이 감돌고 있었다. 이미 창간호 모두(冒頭)의 "소년시언"(少年時言)에서 최남선이 "작계는 개인과 그 가문, 크게는 나라와 천하의 운명이 뜻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전제하여 "소년 입지(立志)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에 "辱에辱을 더하고,恥에恥를 곁하는" 현재 조선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 소년보다 한층 더 크고 깊이 [뜻을] 세워서 한층 더 장하고 쾌한 일을 하여 한층 더 찬란하고 煌赫한 광채를 역사상에 드리우지 않을 수 없다"고 위기감과 민족주의적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다²¹⁾. 위기감 조성의 "이론적" 도구는, 최남선이 안간힘을 다하여 대중화

19) 李光洙, 六堂崔南善論, - <李光洙全集>, 서울:우신사, 1979, 제8권, 487-489쪽; 趙容萬, <六堂崔南善>, 서울:삼중당, 1964, 64-84쪽

20) 崔南善, 十年, - <六堂崔南善全集>, 서울:현암사, 1973, 481쪽.

21) <소년> 제1권, 1908년11월, 9쪽

하러 했던 사회진화론이었다. 그가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사회진화론의 교조를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생물계에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하여 경쟁이란 일이 생겨서 우(優)한 자는 승(勝)하고 열(劣)한 자는 패(敗)하며, 적(適)한 자는 생존하고 부적(不適)한 자는 사멸(死滅)하는 것이 한 공례(公例)가 되었소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생물계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중략) 간에도 자연의 추세로 이 경쟁이란 공례가 행(行)하여 연방(連方) 넘어지고 연방 일어남이 다름이 아니라 이 경쟁의 강약에 말미암음이니 그럼으로 이 다음 이 법례(法例)가 없어지는 날 몰라 그러하되 오늘날도 말하면 자기네들의 국가를 언제까지든지 융성(隆盛)한 채로 가지고 가려고 자기네들의 민족을 언제까지든지 강대(強大)한 대로 가지려면 힘을 다하여 이 실력(實力)을 양성하기에 부지런히 아니하면 아니되나이다”²²⁾

“실력 양성”이란 안창호의 개신교적 “근면 성실”의 중시의 영향을 받은 최남선으로서 “안일하게 지내는 일없이 근근자자(勤勤孜孜)하게 노동역작”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청소년 각자가 그렇게 하지 못해 국세가 쇠약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 모두들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나라의 압제와 다른 민족의 채찍”이었다는 것은 그의 의식이었다. 그런데 “실력 양성”은 “노동역작”에 그치지 않았다. 최남선이 “인류적 의미의 국가 경쟁력”의 요소로 “체력”이나 “도덕”, “학문” 등을 지목했는데²³⁾, 아이들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된다고 인식되는 성격을 키우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실력 양성” 프로그램의 일부이었다. 계몽주의자 최남선으로서 (서구적) “신지식”뿐만 아니라 양계초 등이 찬양했던 “모험을 즐기는 진취적 성격”, 그리고 그 성격과 어울리는 강력한 체력 등을 두루 겸비하는 청소년이야말로 이상적 “쾌남아”(快男兒)이었다. 이 “쾌남아”의 여름 방학을 최남선이 다음과 같은 “즐거운 탐

22) 국가의 경쟁력, - <소년>, 제10권, 1909년11월, 108쪽

23) 국가의 경쟁력, - <소년>, 제10권, 1909년11월, 109쪽

힘과 배움의 계절”로 노래했다:

“우리 다리는 무쇠 다리, 내어 디디면
험한 길, 어려운 곳 앞에 없도다
바람 맞추어 활기 차고 돌아다닐 때
산악(山岳)은 앞드리고 하해(河海) 떠노나

즐겁도다 여름되니 이를 시험해
호장(豪壯)한 남아(男兒) 기운 발양(發揚)하리라
감발(感發)한다, 나서노라, 사양(辭讓) 안노라
대자연의 고대(苦待)함, 내가 아노라.

화술(火率) 이고 열사(熱砂) 밟아 땀을 벗어나
남 아니간 경역(境域)도 탐험할지오
앞에 고래 뒤에 경어(鯨魚) 적수(敵手) 삼아서
해천(海天)을 삼키면서 헤엄도 하리라

마음 쾌쾌(快快) 기력 튼튼 정성(精誠) 겸하리
간대 족족 지식을 발견할지라
몸과 배움 상진(上進) 위해 애쓰는 우리
어찌 참으리 기회 허송(虛送)하리오”²⁴⁾

“신지식”에다가 정기적 운동을 통해 단련된 튼튼한 체력, 그리고 왕성한 승부욕과 성취욕, 탐험에의 욕망을 갖춘 젊은이는 최남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근대적 청소년”이었다. 최남선이 인식하는 주된 독자층은 근대 교육 기관들의 “학생”들이었고 그가 그들에게 권하는 것은 우선 “공부”이었지만, “남을 이기는 동시에 자기를 극복하는” 의지력도, “지혜로운 두뇌”와 균형을 이루는 “완력”도 “힘껏 웃고 시원하게 울 수 있는” 근대적 감수성도 동시에

24) 소년의 여름, - <소년>, 제6권, 1910년6월, 25쪽

권장됐다²⁵⁾. 랭커스터와 같은 “고전적” 부르주아 교육 사상가들의 이상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 다른 급우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행실을 더 잘 닦는” 나이 어린 “승리자형(形)”의 개인이었지만 최남선은 거기에다가 이 “승부 의지” 담론을 “국운”(國運)과 연결시켜 집단주의적으로 색칠해주었다.

그러면, 뇌력(腦力)과 완력, 도덕력, 그리고 성취욕 등으로 국가/민족의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이 “이상적 인격자”가 과연 어떤 교육 기관에서 훈육돼야 했던가? <소년>에 기고를 했던 독일 유학과 출신들이 조선에서 그들의 근대적 욕망에 부합될 만한 훈육 기관이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여 무엇보다 “자각(自覺), 자수(自修), 자양(自養)”, 즉 독서의 경험에 의거한 각자의 “스스로의 훈육”의 길을 권했다. 예컨대 이광수가 <소년>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조선에서 청소년들을 근대적으로 “교도”(敎導)할 “어른”의 부재, 근대적 청소년들이 이어받아 계승할 수 있는 기존의 “직분”(職分: 사업)의 부재 등을 지적하여 조선에 있는 학교의 구할(九割)이 “우리를 교도(敎導)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신대한 국민(新大韓 國民)의 자격”을 얻지 못하여 조선민족 전체가 세계적인 “경쟁”에서 밀려 “열패 민족”(劣敗 民族)이 되는 일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이광수가 “개인적 수양”과 함께 같은 뜻의 근대 지향적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단체적 수양”을 난관 타개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어른”이 부재하는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쇠 팔뚝과 돌 주먹(鐵腕石拳)을 써보는 절호의 기회”라는 “비관 속의 낙관”을 피력하기도 했다²⁶⁾. 이 “단체 수양”의 논리는 나중에 <민족개조론> (1922)으로 대표되는 1920-1930년대 이광수의 “수양 단체”, “개조 단체”, “개조의 중추 계급”, “지도 단체”의 논리로 발전되게 돼 있었다. 이 논리는 신식 훈육을 받는, 주로 유산(有産), 유식(有識) 계층 출신의 학생들을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의 “구원자”(救援者)로 설정하여 그들의 자율적 훈육, 즉 “수양”에 절대적인 “국가적”, 역사적 의미를 부

25) 학생은 모름지기, - <소년>, 제6권, 1910년6월, 31쪽

26) 孤舟, 今日 我韓青年의 境遇, - <소년>, 제6권, 1910년6월, 26-30쪽

여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서 이광수의 “수양론”은 그 당시 계몽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주된 담론인 “영웅대망론”(英雄待望論)과도 맞닿아 있었다. <소년>에 기고한 또 하나의 글에서 이광수가 “강의(剛毅), 희망, 광명, 자유를 표상하는, 조선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가진 나라의 청년들이 최근세의 타락을 극복하고 “대황조(大皇祖) 단군”다운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나 다른 시대의 청년들에 비해 “몇 천 배 더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고” 몇 천 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영웅다운 청년 되기”를 호소했다. 그에 의하면 이 “영웅”들의 “윤리 표준”은 국가와 민족의 “생”(生)을 보지 발전시키는 일이어야 했고, 이 일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가 끼치는 “국가와 사회의 공적(公敵)”을 마땅히 “박멸해야 하고 때려죽여야” 했다²⁷⁾. 계몽주의적 “훈육”에의 열성, 사회진화론적 “생존 본위주의”가 그 배타적인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경쟁의 시대에 단군의 민족을 구원할 영웅”을 훈육 기관들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원격”(遠隔)으로 훈육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근대인 내지 애국자, “진정한 남아(男兒)”로서의 “자각”(自覺)을 불러일으키는 말, 즉 각종의 훈화(訓話)들이었다. 가장 직설적인 훈화의 종류는 격언(格言) 류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각종의 “고전”(古典)에서 인용됐고, 일부는 최남선과 그 동지들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는 사뭇 비장감(悲壯感)이 감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꽤나 극단적인 발언들도 있었다.

“모든 것의 앞에 죽을지어다. 죽을 작정을 할지어다 죽을 차림을 할지어다, 약한 사람, 적은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도리는 이 밖에 다시 없나이다. 우리는 참아 이렇게 더럽고 흉하고 모질고 간사한 세상에 살 수 없도다. 그러나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따서 그를 피함은 이 가장 겁약한 자의 일이라. 그러나 그를 제(除)하기 위하여, 그 반대를 얻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싸우면서 죽을 때까지 애 쓰다가 죽는 마당에야 그침은 이 가장 용맹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27) 孤舟, 朝鮮 사람인 靑年들에게, - <소년>, 제8권, 1910년8월, 30-39쪽

(…) 죽으라, 이 이김이니라, 그러나 싸우지 않고 죽는 것과 같은 겁
약한 일이 또 다시 없나니라”²⁸⁾.

그러나 다수의 격언들은 이보다 훨씬 덜 극단적이었다. 예컨대 대한제국
의 국권이 완전히 무너진 직후인 1910년12월에 <소년>은 정치 문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10년11월20일에 별세한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1828-1910) 기념 특집을 내고 그 뒤에는 이와 같은 훈계(訓戒)조의
“명언”을 실었다:

“승첩(勝捷)은 마지막까지 믿는 자에게 돌아가며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돌아가며 마지막까지 일하는 자에게 돌아가며 마지막까지 고
생하는 자에게 돌아가며 마지막까지 처음 뜻을 변치 않는 자에게 돌
아가나니라. 승첩은 마지막에 얻는 것이라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에
골도 있으며 떨어지기도 할 것이오 물도 있으니 빠지기도 할 것이오
돌도 있으니 그 부리를 걷어차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오 뱀도 있으니
그 허리를 밟고서 물리기도 할지라. 그러나 이는 다 한 때요. 맨 마
지막까지 가자면 거치지 않지 못하는 역로 (歷路)이니 이를 당할 때
에 부질없이 뒤 소망 (所望)을 앞길이 한(限)이 없건마는 중로 (中路)
에 주저 앓음은 일이라 하기에 어렵겠도다”²⁹⁾

최남선이 흠모했다던 톨스토이의 “영성” (靈性)과 사회진화론적 “승리주
의”의 냄새가 짙게 났던 이와 같은 “명언”들은 사실 잘 어울리지도 않았지
만 이 만큼 <소년>이 생산했던 “근대”의 담론은 중첩적, 절충주의적 (折衷主
義: eclectic) 성격이 강했던 것이었다.

각종의 “명언” 이외에 함께 언어적 훈육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위인전” (偉人傳) 게재를 통한 “위인”, “영웅” 찬양 분위기의 조성,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했던 “영웅 모방”의 장려이었다. <소년>초기부터

28) 少年時言, - <소년>, 제8권, 1910년8월, 7-8쪽

29) <소년>, 제9권, 1910년12월, 41쪽

개화기 계몽주의자들이 가장 애호했던 피터 (Peter) 1세 대제나 나폴레옹과 같은 “역사 영웅”들의 장문의 전기들이 연재됐지만, 유럽에서 “부국강병”을 이룬 군주들로만 모방의 대상이 국한되지 않았다. 예컨대 일제에 의한 폐간 조치 이전의 최종호인 1911년5월의 2권 (통권 23호)에서 박은식의 <왕양명 선생실기> (王陽明先生實記)가 실리는 등 “동양의 위인”들도 꼭 괄시의 대상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왕양명 (1472-1529)의 전기의 모두 (冒頭) 부분, 유년 시절의 왕양명이 받았던 훈육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가 14세부터 승마와 궁술 등을 적극적으로 익히고 병법 서적을 애독하고 “건장한 친구”들과의 장거리 여행을 즐겼다는 것이 특히 강조됐다. “동양 영웅” 이야기에서도 “군사화된 남성”의 모습을 찾으려 하는 것은 그 당시 계몽주의자들의 일반적 태도이었다³⁰. “서양 영웅” 같으면, “부국강병”을 이루었다고 판단되어지는 정치인 이외에 양계초 등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애호했던 “모험, 진취 정신”의 대표자라 할 탐험가들도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예컨대 1910년6월호 <소년>의 표지에 “쾌남아” (快男兒)의 대표격으로 생각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각각 1908년과 1909년에 북극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던 두 명의 미국 탐험가, 프레데릭 쿡 (Frederick Cook)과 로버트 페아리 (Robert Peary)의 사진이 함께 실렸다. 최남선이 발췌, 국역한 외국 잡지들의 기사에서도 쿡의 “북극 도달” 주장에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쿡과 페아리 사이에 “최초 북극 도달 기록”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³¹, 최남선이 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북극 탐험 영웅”들을 거론하면서 “강렬한 욕망을 성취하려면 강렬한 노력을 앞세워야 함 인사 (人事)의 몇몇함이라. 그럼으로 그 동안으로 말하면 한 번도 만족한 결과를 얻은 자 없더니 마지막까지 견인 (堅忍)하는 자는 필경에 월계관을 쓰는지라. (중략) 내가 죽어 없어지나 어디 해보자고 덤비는 쾌남아 페아리 쿠옥 두 사람 앞에는 저는 이러한 놈이올시다 하고 가슴을 헤

30) 실제로 청소년 시절의 왕양명은 병법 이외에도 도교와 불교 등 폭넓은 종교, 철학적 관심을 지녔고 승마, 궁술 못지않게 독서에도 열성적이었다. 유명중, <宋明哲學>, 서울: 형설출판사, 1992, 258-260쪽

31) Cook의 주장에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보는 것은 현재로서 일반적이다. Robert M. Bruce, *Cook and Peary, the Polar Controversy, Resolved*, Stackpole Books, 1997

쳤으니 이는 곧 일천구백구년을 장식하는 보옥(寶玉)이라” 라고 “육망과 의지”의 찬가를 올렸다³²⁾. 국과 페아리처럼 자연, 그리고 서로서로와 극렬하게 경쟁하는 “우승 (優勝) 지향적 인간형” 만들기야말로 <소년>지가 펼쳤던 훈육론(訓育論)의 목적이었다.

“명언”과 “위인전”을 읽고 “분발”하여 “수양”에 힘을 쓰는 “자각한 젊은이”가 지향할 수 있었던 “영웅”의 하나의 부류는 “천재” (天才)이었다. 나폴레옹과 왕양명 급의 “영웅”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운, 너무나 먼 대상이었지만 “특정 분야에서 우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이”라는 의미의 “천재”는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훈육의 목표이었다. “천재”에 대해 논하기를 다소 좋아했던 이광수는 “천재”를 “부모 등 어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기를 키워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사람”으로 보고 “보통 교육을 받아 보통 상식을 키우면서도 자신만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놓고 그 재능을 중심으로 키우라”고 권고했다. 과거, 전통 시대의 권위가 부정될 수 있었던 근대 초기의 상황인 만큼 이광수의 “천재 훈육론”은 반(反) 권위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었다. 안 계통의 19세기 중반 독일의 “실험 학교”의 탈(脫)권위적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문장에서 이광수가 어른의 지도를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닌, 참고해도 될 고문의 의견” 정도로 규정하고 “자각”에 의한 “천재”의 자율적 “수양”을 강조했다³³⁾. 물론 그렇다고 해서 1910년대 이광수의 “천재 교육론”은 원론적 의미의 “자유주의”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소년>지 폐간 이후인 1916년에 이광수가 독일 유학생들의 기관지인 <학지광> (學之光)에다가 다시 한 번 “천재론” 성격의 글을 기고했는데, 거기에서 그가 “천재와 위인”들을 “국가와 사회의 보물”로 인식하고 천재를 일차적으로 “사회를 근심하고 사랑하는 충정으로”,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천명(天命)을 사회를 위해 바쳐 일하는 헌신형(獻身形) 인간으로 정리했다. 이광수가 생각하는 천재는 명예도 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애국자 등 이타적 지향의 인간이었지만 천재들의 기여가 사회의 진화를 결정짓는 이상 천재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중요했다. 이광수가 근대 사회를 “천

32) 北極到達의 兩大快男兒, - <소년>, 제6권, 1910년6월, 63-64쪽

33) 孤舟, 天才, - <소년>, 제8권, 1910년8월, 23-29쪽

재를 알아볼 줄 아는 사회”, 천재가 그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인식하는 동시 조선을 그 반대로 “천재를 시기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말라죽이는”, 그래서 잘 발전되어지지 않는 사회로 여겼다³⁴⁾. “천재에 대한 마땅한 대접”의 요구가 대(對)사회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 “신지식” 보유자라는 새로운 지식 계급의 사회로부터의 인정 (認定)을 받으려는 욕망, 그리고 “성취의 적당한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주의자들의 실력주의적 입장 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영웅대망론”의 연장선상에서 “쾌남아”, “천재” 등을 키워 “국가와 사회에의 공헌”을 하게끔 하려고 담론적으로도 신천적으로도 (예컨대 민족주의 계열의 사립 학교에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서구의 근대적 훈육론을 열심히 소개, 소화했다. 예컨대 유명한 친일파 거두이자 재벌인 민영휘 (閔泳徽)의 아들 민규식 (閔圭植, 당시 慶應義塾의 학생)은 1914년에 <학지광>에다가 프랑스 교육가 에드몬 데몰린 (Edmond Demolins, 1852-1907)의 명저 (名著) <A quoi tient la supériorité des Anglo-Saxons?> (<앵글로색슨족 우월선의 원천은 무엇인가?>, 초판: 파리, 1897년)의 교육 관련 일부분을 초역(抄譯)했는데, 거기에서 “영미 (英美)의 우월한 훈육법”은 “아동을 독립적 인격으로 취급하여 가급적 일찍 독립시키는 방임주의”,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아동의 책임감 키우기”, “아동 훈육에 있어서의 위생과 체력, 기력 키우기 강조”, “아이로 하여금 손재주를 익히게 하기”, “아이와의 유쾌한 담소(談笑)를 통한 지식 및 경험의 전달”, “친권 남용 (濫用) 삼가기, 청년의 취업 선택 등 사생활에의 불간섭의 태도” 등으로 요약했다³⁵⁾. 쉽게 볼 수 있다시피,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테제라든가 ”동등하고 유쾌한 부모와 자녀 사이 대화의 강조”, “체력 및 기력 키우기 중요성” 등 민규식이 번역, 소개한 텍스트의 요점들은 결국 “아이들을 이성적인 독립적 인격체로 대해야 하고 그들의 체력과 인고력(忍苦力)부터 키워야 한다”는 존 로크의 명제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³⁶⁾. “아동이 가급적이면 어른과 같은 대우를 받

34) 이광수, 천재야 천재야, - <학지광>, 12호, 1916년9월, 6-12쪽

35) 민규식, 英美人及佛國人の 子女教育法比較, - <학지광>, 3호, 1914년12월, 31-33쪽

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보다 빨리 성숙돼 독립돼야 한다”는 로크의 교육 철학에서 개인을 보다 신속하게 독립된 이윤 추구 활동의 주체로 만들려 했던 부르주아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아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 근대적 훈육론은 분명히 진보적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훈육 이념이 하나의 권위 있는 이론으로 소개된 것은, “생존, 승리, 국가와 사회에의 헌신적 공헌” 등의 집단주의적인 사회진화론적 교육론이 근대 초기 조선 사회의 유일한 훈육사상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서구의 자유주의적 훈육론이 번역, 소개됐다 해도 여전히 조선 계몽주의자 자신들이 생산했던 훈육 담론은 “실력/힘”, “성공”, 그리고 “사회에의 헌신” 위주이었다. <학지광>에 나온 글들 같으면, “실력만이 천지(天地)를 뒤엎을 수 있다”는 류의 “전문적 실력 예찬론”³⁷⁾이라든가, “책임 의식과 사회적 성공에의 욕망”을 강조하는 “성공 성취론”³⁸⁾, “불굴의 의지와 담력, 용맹”을 찬미하는 “담력 예찬론”³⁹⁾, “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세계에서 생존과 생명 향유의 유일한 담보인 힘의 키우기, 무용적 정신(武勇的精神) 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⁴⁰⁾ 등을 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로크 류의 자유주의적 “독립적 인격체” 논리와 사회진화론적 “힘 키우기”의 논리가 꼭 완전히 상충(相衝)되는 것이 아니고 “힘의 보유”가 “독립”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일단 무엇보다 먼저 훈육 대상자의 “독립성”, “인격권”보다 “생존권”의 담보로서의 “힘”, “담력”, “실력”, 그리고 집단적(民族的) “성공”을 목표로 하는 “민족에의 공헌” 등이 일차적으로 강조된 것이었다. “개인 실력 연마”에 대한 근대주의적 집착과 “민족에의 공헌”을 강조하는, 근원적으로 “충”(忠)의 이념으로부터 파생되는 민족주의적 “헌신”의 논리는 사실상 서로 충돌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보통 이

36) Locke, John.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and Of the Conduct of the Understanding* Eds. Ruth W. Grant and Nathan Tarcov.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1996, pp. 11-25, 68

37) 김영섭, 理想의 人物의 實力과 修養, - <학지광>, 3호, 1914년12월, 12-14쪽

38) 김이준, 半島靑年의 覺悟, - <학지광>, 4호, 1915년2월, 22-24쪽

39) 無名人, 膽力을 養하라, - <학지광>, 6호, 1915년7월, 41-42쪽

40) 현상윤, 強力主義와 朝鮮靑年, - <학지광>, 6호, 1915년7월, 43-49쪽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계몽주의자들이 “실력양성”과 “민족에의 공헌”을 무조건 연결시키기만 했다.

그러면 그들의 “민족에의 공헌” 논리는 과연 전통시대 유교적 훈육의 “충의”(忠義) 가치 내면화 관습을 따른 것이었을까? 유교적 영향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도덕”이란 그 자체로서의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민족” 만들기의 수단이었던 듯하다. 사실, 이 “도덕의 상대화”야말로 근대적 훈육이 전통적 훈육과 상당부분 단절됐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학지광> 5호에서 도일(渡日) 학생 그룹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몇 명의 “청년 이념가”들이 “도덕”과 “교육”을 주제로 한 글을 같이 기고한 일이 있었는데, 이 글들은 그 당시 근대 지향적 “신지식인”들의 도덕관을 잘 보여준다. 비교적 급진적인 쪽에서 송진우(宋鎭禹, 1889-1945)는 유교(“孔敎”)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여 “모고적(慕古的)이며 배타적이며 전제주의적 가르침”으로 치부하는 한편 기존의 유교적 “도덕 교육”을 단지 “몽상 교육”, “허영(虛榮) 교육”이라고 무용지물이자 개화의 방해물로 여겼고⁴¹⁾, 이상천(李相天)은 “무조건적으로 살인이나 도둑질을 금기시켰던 구(舊)도덕”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생물로서의 인간의 생존욕구(生存慾求)”를 그 근원이자 목표로 하는, “당사자의 강약(強弱)과 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새 도덕”을 제창하여 “도덕이란 무엇보다도 민족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족 단결의 수단이지 그 자체로서는 목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⁴²⁾. 이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에서 이광수가 과거 “마을 공화국”(촌락 공동체)의 “덕치”(德治), “아랫사람의 몸이 조상의 것이다라는 관념”, “자신과 가족을 한 몸으로 여기는 정신” 등을 복고주의적 향수가 어린 눈으로 회상하면서도 “오늘날 조선에서 도덕이 이미 깨지고 말았다”. “옛 도덕이 깨졌으면서도 새 도덕은 아직 서지 못했다”고 진단했다⁴³⁾. 그런데 이처럼 유교적인 도덕 훈육의 불가능성을 한탄스럽게 여겼던 이광수도 일찍이 <소년>지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으로 “생

41) 송진우, 사상개혁론, - <학지광>, 5호, 1915년5월, 2-9쪽

42) 이상천, 새 도덕론, - <학지광>, 5호, 1915년5월, 18-23쪽

43) 孤舟, 공화국의 멸망, - <학지광>, 5호, 1915년5월, 9-12쪽.

존육구”를 파악하여 인간이 생존이 가능한 방향을 이성적으로 파악해서 이 방향을 쫓아가야 한다. 그리고 개인 생존의 유일한 담보가 국가의 힘인 이상 “국가의 성립이 옳았는지 글렀는지 알 필요도 없이” 일단 국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었다⁴⁴⁾. 사회진화론적 국가주의의 입장에서는 도덕은 독립적 “가치”라기보다는 “생존”, “우리 집단의 경쟁에서의 승리”의 수단 정도로 이해됐다. “도덕적 자기 완성”, 즉 전통 사회가 지배층에서의 소속의 조건으로 여겼던 “도덕 자본의 축적”은 훈육의 목표로서 그 의미를 잃었으며, 그 대신에 개인과 집단 “생존” 위주의 훈육 목적관(觀)과 “출세/성공을 위한 훈육”의 논리가 “신지식인” 사이에서 헤게모니를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 습득은 전통사회 지식인들이 귀중히 여겼던 “박학”보다 우위에 두어져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담론적 위치를 갖게 됐다⁴⁵⁾.

3. 1920-30년대의 “신여성”, “개성 (個性)”, 훈육.

1920-3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서 가정 훈육의 주된 담당자인 여성의 상황은 다소의 변화를 겪었다. 교육은 여전히 기회가 불충분하고 제도가 차별적이었지만 점차 여성의 교육 기회가 넓어져갔다. 1920년에 12,9%에 불과했던 보통학교 학생 중의 여성 비율은 1940년에 이르러 36%에 달하고, 여아(女兒)들의 보통 학교 취학률이 1920년의 3,1%에서 1940년의 30,4%로 대폭으로 증가되는 등 주로 도회지 중산층과 지주층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육이 점차 보급돼갔다. 물론 1940년에 접어들어도 고등보통학교 여학생의 수는 전국적으로 9957명에 불과했지만, 일단 경성을 비롯한 도시들의 부유층, 유식층에서 점차 여성교육이 일반화돼가고 있었다⁴⁶⁾. 일제 식민통치 기관들이나 관변 지식인도 여성 교육의 목표로 근대적인 “제국 신민”이 될 수 있는

44) 孤舟, 余의 自覺한 人生, - <소년>, 제8권, 1910년8월, 16-23쪽

45) 예컨대 노익근(盧翼根)은 “특수”(專門) 교육의 진흥을 부원(富源) 개발의 주된 조건으로 보고 조선의 가장 시급한 급선무로 파악하는 등 전문 지식의 발달과 민족 생존을 직접 연결시켰다: 富를 증가함에 대하여, - <학지광>, 10호, 1916년9월, 20-24쪽

46) 김정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276-286쪽

남아들을 키울 “현모양처”의 양성을 삼았지만⁴⁷⁾, 수많은 조선인 남성 지식인들도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에게 일차적으로 “아이를 잘 키우는 아내이자 어머니” 되기를 요구하곤 했다⁴⁸⁾. 교육 받은 여성에게 “진정한 근대인 키우기”가 가장 기대되어졌던 그 때의 상황에서, 유식층 여성들이 평소에 열람할 수 있었던 시사 잡지, 교양 잡지의 지상(紙上)에서 훈육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그들이 실리게 됐다. 많은 경우에는 이 글들은 “신여성”들에게 쓰여지거나 그들에게의 직접적 권고의 성격을 지녔다.

여성들을 “계몽”하려고 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든, “신여성” 자신들의 입장에서든 아동 훈육이란 “계몽 프로젝트”에 있어서 거의 중심적 요소이었다. 식민지라는 억압적 상황에서 기성 세대의 명실상부한 “계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였지만, “2세”가 일찌감치 달라질 경우 “민족의 웅비(雄飛)”가 가능하다는 것은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 일찍이 1918년에 <자녀 중심론>이라는, 그 당시로서 꽤나 파격적 제목 하의 글에서 “우리는 선조 없는 사람들이다, 신(新)종족으로 자처하면서 최선을 다 하여 [우리가 건설한 근대를] 건전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한⁴⁹⁾ 이광수는, 1920-30년대에도 내내 “자녀 교육”을 “민족 사업”의 핵심으로 설파하고 있었다:

“(상략) 조선민족을 개조하는데 가장 큰 소임(所任)을 가진 이는 처(妻)와 모(母)로서의 조선여자입니다. 아동의 어른의 아버지라 하거니와 아동시대의 훈련이 잘못되고는 좋은 어른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격이란 기초되는 신앙 위에 세워진 여러 가지 정의적(情意的) 습관의 총화(總和)를 의미하거니와 세 살 때의 버릇은 아흔 살 가도 못 고친다는 격언 모양으로 어려서 가정에서 일러진 정조, 예의, 습

47) 高橋濱吉, 婦人敎育の觀點から朝鮮婦人問題, - <조선>, 257호, 1936년10

48) 白波, 所謂 新女性과 良妻賢母主義?, - <현대평론>, 1호, 1927년1월; 조은, 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 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8: 여성>,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190-194쪽

49) 자녀 중심론, 청춘 통권15호, 1918년9월

관 등은 일생의 인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훈도(薰陶)의 임(任)을 맡은 성자(聖者)는 여자입니다. 예전 독일황제 카이세르가 좋은 국민을 짓기 위하여서는 k자 세 개, 즉 교회와 부엌과 유치원이라 하였거니와 부엌이란 곧 가정의 여자의 영역이란 뜻입니다. 과연 지당한 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現今) 조선에서는 여자교육을 한 여흥으로 아는 경향이 있고, 또 여자교육기관의 교육방침도 어떠한가입니다. 근로는 조선 농촌여자의 미풍(美風)이거니와 헌신봉사도 그러합니다. 이 근로와 봉사의 덕(德)은 남녀에게 다 필요할 것이지만 특히 자녀를 양육 훈련하는 모성으로서의 덕성(德性)의 기초(基調)가 될 것입니다. 깨끗한 세레질, 깨끗한 빨래, 깨끗한 걸레질, 엄정한 질서, 모든 이기적 안한(安閑)과 향락을 제거한 자기희생적 헌신봉사 — 자녀가 그 어머니에게서 이 정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온다 하면 그는 반드시 개인으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로는 유용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 도덕의 모든 귀중한 정조(情操)는 어머니에게서 받음이 가장 많음에랴. 그럼으로 어머니는 가정의 교주(敎主)요 성자(聖者)라야 할 것이니 이것이 인생에 가장 고비(高費)한 직분(職分)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이러한 성자(聖者)가 없이 좋은 민족은 양성해 낼 수가 없으니 여자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민족적 생명 유관의 중대사가 아닙니까? 그럼으로 민족개조는 반드시 여자교육에서 시(始)할 것이요 여자교육의 기초는 모성훈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략)⁵⁰⁾

유교 등 이미 쇠퇴해가는 전근대적 “과거”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급진적인 부정으로 한 때에 일관했던 이광수는,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근대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보수적 입장에 서게 된다. “민족 개조” 계획의 중심으로서의

50) 민족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삼천리>, 7권 9호, 1935년10월, 62쪽

“자녀 양육훈련”의 주된 책임은 “성자” (聖者), “가정의 교주 (敎主)” 등으로 높이 칭송되는 여성에게 돌아가지만, “민족을 위한 자녀 양육” 이외에는 여성에게 어떤 독립적, 자율적 역할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 폭력이 각종의 도덕주의적 수사 (修辭)로 호도되는 것이다. 근대적 여성이 “자녀 양육 담당자”로 규정되어지는 동시 가정 생활 전체가 “아이가 평생의 습관들을 익히는 교육의 장”으로 정의되어지고, 이 “교육의 장”에서 여성에게 “근대다운” 청결, 위생, 질서 등을 지키기 위해 무한정 “자기 희생”한다는 것은 강요된다. 남성이 “민족의 전사 (戰士)”로 이해되는 계몽 프로젝트 맥락에서는, 여성은 “집안, 양육의 전사 (戰士)”로 파악된다. 그러나 물론 이미 1910년대에 “혈기왕성 (血氣旺盛)의 쾌남아 (快男兒)”로 정의된 근대적 남성과 달리, 근대적 여성의 “무기” 역시 (남성우월주의적 입장에서 파악된) “여성성”이었다. 이광수가 지은 “신여성의 10계명” 중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았다:

“젊은 여성은 가정과 그 몸이 있는 곳에 평화와 빛을 주는 것이니 천부 (天賦)의 성직 (聖職)이니 항상 유쾌와 자애와 겸손의 덕을 가지고 분노 질책, 질투, 분쟁의 형상을 보이지 마시기”⁵¹⁾

“자녀 양육”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집안의 시공간에서 “젊은 여성”은 한편으로는 근대적 “위생과 질서”에 철저히 해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 자아 통제, 즉 “겸손”까지도 강요 받아야 했다. 1910년대에 이광수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소년>지를 비롯한 계몽 잡지들이 남성 영웅, 즉 “쾌남아” (快男兒)들의 전기를 실어 근대인의 모범으로 삼게끔 했지만, 1930년대에 “성자” (聖者)다운, “아이 기르는 여성”도 계몽문학의 본격적 주제 중의 하나가 된다. 예컨대 이태준 (李泰俊, 1904-?)의 신문 연재 소설 <성모> (聖母: 1935년5월26일부터 1936년1월19일까지 <조선중앙일보> 연재)는 상당히 통속화된 “모성과 교육 정신의 찬양”으로 읽혀진다. 부잣집 딸의 유혹에 홀려 동경 (東京)으로 떠나버린 동거남을 잃은 뒤에 온갖 역경 속에서 그 아들 철진

51) 新女性の 十戒銘, 젊은 신 姉妹께 바라는 十個條, - <만국부인>, 1호, 1932년10월, 3쪽

을 낳아 기르는 “사생아의 어머니”인 주인공 안순모는 말 그대로 “성모”로 그려진다. “천생미인”이면서도 이성간의 성관계를 “야수적인 것”으로 느껴 거부감을 갖는 만큼 “깔끔한 성품”의 탈성애화(脫性愛化: desexualized)된 안순모는, 남성에게는 소극적이며 수줍은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어머니”로서는 늘 헌신성과 강인함, 근대적 계획성, 합리성과 철저함을 과시한다. 아들을 “내 몸의 일부분, 내 뼈의 뼈, 내 살의 살”로 보는 안순모는 철진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모체(母體)의 위생과 태교, 유아 교육부터 조선어와 조선문화 교육, “정신의 운동 선수”와 같은 의지력, 대중 통솔 능력 양성 방법 등까지 차례대로 다 동원한다. 시대의 대세대로 그녀가 아들에게 성교육까지 “과학적으로” 실시하여 “연애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라는 충고를 하는 등 “민족의 일꾼”이 올바른 “민족의 길”로만 가게끔 섬세하게 잡아주기도 한다. 아이 훈육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 어머니는, 집안이라는 시공간에서 하나의 “민족적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다⁵²⁾.

이광수나 이태준처럼 다소 보수적인 근대주의적 남성 지식인들은 “모성 찬가”를 불렀던 반면 일부 급진적인 “신여성”은 이 부분에 대해 “직업” 등의 가치의 중요성을 내세워 반대하기도 했다. 예컨대 실생활에서도 일본 청년 지식인 오타 세이조(太田清藏)와의 사이에서 가지게 된 아들(김태신: 일당스님)을 타인에게 맡기고 직접 키우지 않는 등 사회의 “모성에 지상주의적” 압박에 저항적 태도를 보였던 김일엽(金一葉, 1896-1971)은 자전적 소설 <자각>⁵³⁾에서 배신한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대신에 “공부”의 길을 선택한 “순실”이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김일엽 자신은 자기 아들의 양육 포기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해 결국 불문(佛門)에 귀의하는 것으로 “신여성”으로서의 파란만장의 여정을 마감했지만⁵⁴⁾, “나는 자식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전(全)생활을 절대로 희생할 수 없

52) <이태준 전집>, 서울: 서음출판사, 1988, 7권; 심진경, 이태준의 <성모> 연구, - 상허학회 엮음, <희귀 잡지로 본 문학사>, 서울: 깊은 샘, 2002, 125-148쪽; 박현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 소설의 성격>, 서울: 소명, 1999, 221-222쪽

53) <동아일보> 1926년 19-26일 연재.

54)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314-326쪽

다”는 “순실”의 “권리 선언”은 1920년대 “여성”과 “아이 훈육”의 담론의 장에서 중대한 도전적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급진적 “신여성”들도 - “모성에 지상주의” 강요에 저항하면서도 - 아이 양육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가정”의 상(像)을 그렸다. 나혜석(羅蕙錫, 1896-1948) 같은 이미 1920년대 초반에 “전제 군주 국가처럼 모든 편의와 이익이 다만 어른을 위하여 시행되는”, 그리고 동시에 “아이의 양육에 대한 이상과 주견, 연구가 없는” 전통 시대의 가정을 비판하고 과감한 “아이 중심주의”, 즉 “아이 훈육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이상을 제시했다⁵⁵⁾. 이 훈육의 구체적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했던가? 나혜석이 자신의 훈육 경험을 요약한 한 글에서 아이의 독립심 키우기(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하는 습관 키우기 등), 질서 감각 키우기, 기력과 건강에 좋은 얇은 의복 입히기 등 심신(心身) 차원에서의 “근대적 주체” 만들기를 강조했다. 재미있게도 “반(反)권위주의적 경향”의 지식인으로 알려진 그녀마저도 아이들에게 매우 어린 나이부터 “떡다”와 “잡수시다”의 차이를 익히게 하는 등 차별화된 언어 습관을 내면화케 하고 간헐적으로 체벌까지 이용하는 등 당대의 일상화된 권위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⁵⁶⁾. 실제로 나혜석의 가정을 1925년에 방문하여 취재한 최은희(崔恩喜, 1904-1984) 기자에 의하면 나혜석의 딸 딸 김나열과 아들 김선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익혔던 노래들을 저녁에 집에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등 근대적인 제도화된 양육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⁵⁷⁾. 나혜석도 “한 살 반부터 어른들과 따로 재우기”, “실외와 실내 옷을 구별하여 옷 갈아 입히기”, “지나치게 짜거나 매운 음식을 스스로 꺼리게끔 가르쳐두기” 등의 세부적인 “어린이 키우기 법칙”을 언급하지만 그 당시의 잡지들은 근대적인 어린이 위생, 건강 관리 관련 계몽적인 글들을 자주 실어 일부 “법칙”들이 도회지 중산계층 여성 사이에서 통념화된 것 같았다. 예컨대 <동광>이 다음과 같이 정리한 “어린이 건강 11칙”은 여러 출판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55) 아이는 가정의 복두성, - <동명>, 1호, 1922년9월3일.

56) 내가 어린이에 기른 경험, - <조선일보>, 1926년1월3일, -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서울: 태학사, 1999, 266-271쪽.

57) 여류화가 나혜석여사 가정방문기, - <조선일보>, 1925년11월26일, -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613-615쪽

”건강은 건강의 습관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 아래 열한 가지를 늘 지키면 병중에 열에 아홉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매일 이것을 외우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가르쳐줍시다:

나는 곧게 앉고 곧게 서고 곧게 걷습니다.

나는 매일 열 시간 이상 창문을 열고 잡니다.

나는 음식 먹기 전에 반듯이 비누로 내 손과 손톱 사이를 씻습니다.

나는 하루에 두 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 후에 한 번 이를 닦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목욕을 합니다.

나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립니다.

나는 침을 뱉지 않습니다.

나는 내 먹는 젓가락으로 여러 사람 먹는 음식을 다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음식을 오래 씹어 먹습니다.

나는 하루 한 번 정한 시간에 대변을 봅니다.

병은 전염되기 쉬운 고로 내가 간호하러 가는 외에는 병인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⁵⁸⁾

위와 같은 “과학적 규칙” 준수의 여부는, “근대적으로” 키워진 중산층의 아이와 그렇지 못한 하층민의 아이 사이의 철저한 “구별”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새로운 “일상적 건강 과학”을 따른다는 것은 깨끗한 물과 비누, 목욕탕, 위생적 주거 등에서의 자유로운 접근을 그 조건으로 했는데, 이는 그 당시 조선인 대다수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주요한 (朱耀翰, 1900-1979)과 같은 당시 기독교적 계몽주의의 대표자의 시에서 “붉은 손을 가진 어린이”, “장래를 위하여 있는 어린이”, “무지개가 뜰 곳을 찾아가는 어린이”의 극도로 낭만적인 이미지도 보이는데⁵⁹⁾, 생존 그 자체가 불확실했던 다수의 식민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린이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충고들도 이와 같은 어린이의 낭만화도 “판 세상”의 이야기이었다.

58) 어린이의 건강 11칙, - <동광>, 2호, 1926년6월, 5쪽

59) 어린이어, - <개벽>, 57호, 1925년3월, 56쪽.

어린이는 나혜석과 같은 중산층 여성 운동가들에게 “귀여운 존재”로 인식되고⁶⁰⁾, 그들의 건강부터 장난감 고르는 일까지⁶¹⁾ 근대 계몽적 매체들의 관심사로 종종 등장되곤 했다. 또 1913-1914년부터 본격적으로 - 처음에 주로 내한 (來韓) 선교사들과 기독교인에 의해 - 그 활동을 개시한 근대적 유치원들은 1921년에 11개 유치원에서 809명의 원아 (園兒)를 키우는 선에서 극소수에게만 이용됐지만, 1930년에 이르러 217개의 유치원에 8443명의 원아가 다니게 되는 등 점차 도심 중산층 사이에서 보편화됐다⁶²⁾. 유치원의 보모들도 원아 부모들이나 유치원 비평을 하는 지식인들도 유치원을 무엇보다도 “놀이를 통해 모범적인 [근대적] 사회인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곳”으로 인식했다. 이화보육 학교를 졸업하여 보모가 될 이들은 “아이들의 놀이 동무가 되겠다”, “놀이를 통해 참 기쁨을 주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던가 하면⁶³⁾, “유치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당히 긍정적으로 답한 채필근 (蔡弼近) 목사는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않게 하기 위해, 장난감이 부족한 집안 환경 속에서 나쁜 장난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놀이를 통해 교육을 받기 위해 유치원이 유익한 기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⁶⁴⁾. <신가정>지 같은 호(號)에서 유치원에 대한 평론을 실은 다른 도미 (渡美), 도일 (渡日) 유학과, 기독교계 지식인들 (최순주, 장혁주, 윤성순, 사공환 등)은 대체로 올바르게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동의 “개성 (個性)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유치원에서 형성되는 “사회성(性)”, “사교성” 등을 주시

60) 나혜석은 <매일신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만약 나에게 어린이들의 빵긋빵긋하고 웃는 얼굴과 엄마 엄마하고 불러주는 기쁨이 없다면 도무지 생활이 건조무미하면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린애처럼 귀여우며 매일 싫지 않고 볼수록 귀여운 것이 어디 또 있을까요”, -살림과 육아: 그들의 취미, - <매일신보>, 1930년6월6일,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639쪽

61) 조선 토산의 장난감에 대한 개관을 예컨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팔극, 장난감의 가지수와 우리의 것, - <부인>, 2권4호, 1923년4월, 56-57쪽

62) 이윤진, <일제하 유아보육사 연구>, 서울: 혜안, 2006, 67-101쪽. 일본에는 유치원들은 1875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됐다. Roberta Wollons, The Black Forest in a Bamboo Garden: Missionary Kindergartens in Japan, 1868-191, -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Vol. 33, No. 1, 1993, pp. 1-35

63) 어린이의 동무되려, - <신가정>, 1935년3월호, 25쪽

64) 채필근, 유익한 기관이다, - <신가정>, 1935년3월호, 32-33쪽

하여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이 가족의 좁은 세계에서만 갇혔던 아이들보다 나중에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더 쉽게, 더 잘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곤 했다.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이 나중에 보통학교에서 선생의 말을 덜 잘 듣고 제멋대로 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뉴욕대학 박사 출신의 연희전문학교 교수 최순주(崔淳周: 1904-1956)가 “조선 초등 학교의 목적이 아동 개성의 발달에 있지 않고 다른 방면, 특히 어학에 두어져 있다. 자유 발달 위주의 훈육을 유치원에서 받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일정한 목적을 위한 ‘구속 교육’을 받게 되어 결국 선생의 ‘말’을 잘 안듣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일본어 학습과 타율적인 규율 위주의 식민지 시대 관립 보통학교 교육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⁶⁵⁾. 즉, 유치원이 보통학교와 달리 “흥미 유발을 통한 개성적 사회 교육”의 장(場)으로 인식됐다. 동시에 일부 논자들이 유치원의 보모들이 부모에 비해 근대적인 과학적 육아법에 더 조예가 깊다는 점, 그리고 “유치원에 다닐 만한 집안의 아이라면 다 괜찮은 집안 자녀일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전문인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을 받는 중산계층 자녀들의 집합소”로서의 유치원의 위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⁶⁶⁾. 유치원의 “과학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유개성의 발달”이라는 프뢰벨의 모토와 함께 그 계급성도 충분히 인식됐던 것이었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 동산”인 유치원의 반대편에 섰던 것은 이미 1930년대에 “아동 학대”로 개념화된 과격한 체벌이 다반사이었던 구식(舊式) 가정들이었다.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한 그 당시의 기독교계 지식인들의 조언들을 들어보면, “기독교 신자가 되어 같이 가정 예배를 보면서 화평한 가정을 이루는 것” (“정신적 근대화”)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색종이, 연필, 가위 등 좋은 장난감을 많이 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쁜 장난으로 부모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 (“어린이 생활의 물질적 근대화”)와 같은 방책들이 제안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⁶⁷⁾. 그 당시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이와 같은 조언을 실천할 만한 가정들이 다수가

65) 최순주, 유치원이 필요하다; 장혁주, 야인으로 기르리라; 윤성순, 근본적으로는 찬의; 사공환, 가장 선량한 요람, - <신가정>, 1935년3월호, 33-44쪽

66) 이극로, 절대로 필요한 것, - <신가정>, 1935년3월호, 40쪽

67) 장정심,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여론 - 인격적으로 기르자, - <신가정>, 1935년9월호, 143-145쪽

아니었음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귀여움”으로 특징지어지는 어린이들과 달리 특히 보통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민족의 운명”을 등에 짊어질, 무엇보다도 “민족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민족적 자각”의 주체여야 했다. 전통시대와의 극적인 단절, 그리고 식민지적 상황에서 가중되어지는 “민족 일원으로서의 책임”은 이미 “젊은이들의 자각”을 촉구했던 <소년>지의 글에서도 엿보였지만 같은 어투는 1920-30년대의 계몽주의적 저술들에서도 지속됐다. 예컨대 그 당시로서 서북 지역 기독교적 지식인들에게 가장 권위가 높았던 안창호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민족적 헌신과 자각”, 그리고 “자율적 훈육”을 설파했다:

“현하 우리는 민족적으로 남과 다른 경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문화는 극도로 쇠퇴하고 신문화는 지금 움 돋는 시기에 있습니다. 또 구도덕은 깨어지고 신도덕은 없어서 혼란상태에 있습니다. 또 영미국의 학생들은 그의 부모나 인리 (隣里)나 연장되는 이가 선진자 계급에 있음으로 그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조선의 청년은 선도자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하는 이 없는 가련한 이들이 제 맘대로 국내 국외에 뛰놀아 무엇을 배우려 합니다. 또 다른 나라 학생들은 학자 (學資)가 넉넉하여 배우고 싶은 것은 다 배우지만은 우리 조선 학생은 그렇지 못하외다. 비교적 학비가 덜 드는 문학이나 신학 같은 것은 배워도 공학 같은 기술적 학문은 좀처럼 배우게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유혹이나 물들기 쉬운 험악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가공한 경우에 처한 조선 학생으로서 그 직분은 매우 크외다. 이 학생된 이의 손으로 우리의 집이나 사회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영멸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조선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남의 흉내나 내지 말고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학생 그네들에게도 다행이 되고 온 민족에게도 다행이 되겠습니다.

첫째 남은 알든지 모르든지 조선 민족에 대한 헌신적 정신과 희생적 정신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조선 민족을 다시 살릴 직분을 가진 자로

써 이 정신이 없으면 안되겠습니다. 자주라 독립이라 평등이라 함이 다 자기를 본위로 하는 이지적(理智的)이외다. 어떤 때에 일시적 자극으로 떠들다가도 그 맘이 깔아지면 다시 이기심(利己心)이 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본위로 함은 이것이 진리요 자연이외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몸과 목숨을 내놓고 부모나 형제나 동포나 국가를 건진다 함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외다 이 헌신적과 희생적으로 하여야 부모와 형제가 안보되고 민족과 사회가 유지되는 동시에 자기의 몸도 있고 생명도 있으려니와 만일 이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몸과 아울러 사회가 다 보전되지 못하는 법이외다. 가령 상업이나 공업을 하는 것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헌신적과 희생적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우에 말한 바 이지적으로 뿐 아니라 정의적(情意的)으로도 민족에 대한 일어나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헌신적 희생적 활동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 학생된 이는 옛날에 자기의 명리(名利)를 위하여 과거(科擧)하려는 듯이 하지 말고 불상한 내 민족에 대한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하여야겠습니다. (중략)

오늘의 조선 학생은 인도자가 없는 것을 이미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구제방법을 말하려 합니다. 곧 오늘의 조선 학생은 제각기 산산이 헤어져서 있지 말고 다 함께 뭉치어 그 뭉친 덩어리로 한낱 선도자를 삼아서 여기 속한 이들이 자치적 훈육을 받으라 함이외다. 그리하면 그 힘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훈육을 줄만한 선도자와 및 완전한 훈육의 기관을 가진 다른 선진국의 학생들도 오히려 자치적 훈육의 도를 취하거든 하물며 아무 것도 못 가진 오늘의 조선 학생으로써 어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국내 국외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양의 단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좋은 경향이외다. 이렇게 일어난 단체들이 또 각각 따로 서 있지 말고 다 한 대로 모여 하나가 되면 그 힘이 더욱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략)⁶⁸⁾

68) 山翁, 오늘의 조선 학생, 오늘의 조선 경우에서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조선 학생으로서 어떠한 정신에 살아야 할까, - <동광>, 8호, 1926년12월, 2-5쪽

“이치적 평등과 자유”보다 “정의적 민족애와 자기 헌신”을 강조하는 어투는 꽤나 억압적 뉘앙스를 풍기지만, “자체 훈육”, 즉 민족주의적 학생들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장려하는 언사는 “제도”가 결여되는 피(被)식민 민족주의의 특색을 보여주기도 한다. “민족에 대한 헌신”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준비하기 위한 자율적인 “민족 주체 자각”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안창호처럼 미국을 궁극적인 이상적 모델로 삼거나 유럽 유학의 경험을 가졌던, 또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익힌 바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은 보통 식민지 학교 교육의 억압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내지 암묵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곤 했다. 주요섭(朱耀燮, 1902-1972, 스탠퍼드대학 교육학 석사 출신)은 미국 유학을 마친 뒤에 조선에 돌아와서 쓴 <조선 교육의 결함>이라는 저서(1930년)에서 “교실에서 들어가 앉은 생도는 곧 생각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그저 죽은 송장처럼 또는 목재로 만든 통처럼 가만이 앉아 있어야만 하는”, “암기하는 기계”가 된 학생이 오직 교과서만을 읽고 해석하는 교원의 말을 무조건 외우기만 해야 하는 몰개성적(沒個性的) “주입식 교육”, 모든 학생들에게 똑 같은 교복을 입히고 똑 같은 방법으로 똑 같은 지식을 전달하려 하는 “일률주의적 교육” 등을 소리 높여 성토했다⁶⁹⁾. 1930년9월18일에 조선총독부가 중등학교에서 시험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평소 성적 고찰”(즉, 평상시 고사에 의한 대신 평가)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제를 채택하자⁷⁰⁾ 주요섭이 이를 “개성 발달을 보다 중요시하는 미국식 교육 제도로의 이행의 징조”로 받아들여 한층 더 객관적, 개별적 평가를 위한 교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시험철폐는 교원의 손으로부터 아주 간편한 성적제작기(成績製作機)를 빼앗아서 버린 셈이 된다. 이 편리한 기계(그러나 유해한

69) 주요섭, <조선 교육의 결함>, 경성: 세계서원, 1930, 35-43쪽

70) 朝鮮總督府 官報, 1115호, 1930. 9. 18, 조선총독부령 73~78; 이 개정의 배경에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의 저항 운동을 시험제 폐지와 같은 “선심성 정책”을 통해 누그러뜨리려는 총독부의 의도가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경숙, 1930년 조선총독부의 시험폐지 규정과 교육담론, - <정신문화연구>, 29권 3호, 2006년 가을, 225-253쪽

機械)를 빼앗긴 교원은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 좀 더 상태적 좀 더
공정한 성적을 작성하기에 노력을 차해야 할 것이니 교원의 책임이
한층 더 중해진 것을 느낄 따름이다”⁷¹⁾

식민지 학교의 “기계성(機械性)”, 억압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비판적 평가는, 주요섭과 같은 도미(渡美) 유학과 출신만의 의견이 아니었
다. 예컨대 도일(渡日) 유학과 출신의 민태원(閔泰瑗, 1894-1935)은 웅변 대
회에서 “군대식으로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벌려 “기착(氣着) 자세에 가까운
앙연(昂然)한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을 비판했고⁷²⁾, 불교 지식인으로서 프
랑스 유학의 경험을 가졌던 김법린(金法麟, 1899-1964)은 프랑스 일부 가톨
릭 계통의 기숙 학교들의 “병영식(兵營式) 생활”을 은근히 비판적 어투로
서술하면서 “교수나 강사가 어떠한 문제를 취급할 때 결코 독단적 결론을
학생에게 고압적으로 주입하려”하지 않는, “학생의 이상상 자유비판에다 문
제의 구경(究竟) 해결을 맡기는” 프랑스 식 “학생 인격과 이성 본위”의 대
학 교육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⁷³⁾. 역시 1920-30년대의 <동아일보>
는 비록 학교 일상에서의 체벌의 완전 근절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학생에
게 부상을 입히는 “도 넘는 체벌”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을 내보내기도 하
고⁷⁴⁾, “체벌보다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훈육론을 펴기도 했다⁷⁵⁾. 그
러한 측면에서는, 존 로크 등을 원조로 하는 근대적 “이성(理性), 개성(個性)
본위의 훈육” 이념은 적어도 1930년대말 이전까지 많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호소력이 높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놀이 동산”, “아기 개성 발달의 장소”인 유

71) 주요섭, 시험철페와 그 대책, - <동아일보>, 1930년11월14일.

72) 민태원, 全朝鮮中等, 專門學生雄辯을 들은 小感, <별건곤>, 10호, 1927년12월, 107쪽

73) 김법린, 世界各國의 學生生活, 모든 行動이 軍隊式化, 佛蘭西의 學生生活, - <별건
곤>, 14호, 1920년7월, 87-89쪽.

74) 敎員暴打로 學童이 失神 말 안듣는다고 차고 때리어 郡北公普校 學父兄憤慨 對策
講究(咸安), - <동아일보>, 1930년2월13일, 3면.

75) 꾸짖고 칭찬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른 행동을 표준하여 꾸짖지 말자
때리기 전에 잘못된 일을 살필 것. 칭찬하는 것도 좋으나 함께 감격하는 마음 현
상식으로 지도하지 말 것, - <동아일보>, 1938년10월1일, 4면.

치원에 대한 찬양이나 식민지 학교 규율의 억압성에 대한 비판 등은 근대 자유주의적 교육사상이 훈육 담론의 핵심을 차지했다는 것을 꼭 의미하지 않았다. “인격적 대우”, “인격 발달”은 특히 1920년대에 인기 있는 구호가 됐지만, 이광수와 같은 주요 우파 계몽 사상가들은 “인격 발달”의 목적으로 근대인답게 “맡은 임무를 성실히 다하고 나쁜 습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기적인 본능을 스스로 극복하는”, 그리고 “오로지 조선만을 사랑과 관심,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영웅”을 양성시키는 것을 제시했다⁷⁶⁾. “민족”과 민족에의 “헌신”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자기 훈련” 등의 “고상한” 대상들을 벗어난 일탈적 욕망들은 비교적 자유주의적 경향의 근대주의자들에게 의해서도 어김없이 “풍기문란”으로 취급돼 극복 대상으로 여겨졌다. 집단적인 차원에서 안창호 계열의 근대주의자들에게 조선인들의 “비겁함, 나태함, 허위, 소극성” 등이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됐지만⁷⁷⁾, 개인적 차원에서도 주요섭 같은 기독교적 지식인들은 “젊은이들이 술을 덜 마시고 담배를 덜 피우게끔 훈육시키고 설득시키는 것”, “기숙생들의 수음(手淫: 자위 행위)과 계간(鷄姦: 그룹섹스)을 방지하기 위해 한 방에 2명씩 이상 입주시키는 것”, “성 충동을 느낄 때마다 나아가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 등을 권고하는 등⁷⁸⁾ 특히 “일탈적” 성적 욕망의 순치(馴致)에 큰 비중을 두었다.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학교(大成學校) 출신으로서 주요섭과 함께 1930년에 중등학교에서의 시험 폐지를 반겼던 최규동(崔奎東, 1882-1950)은 피(被)교육자들의 “사적인 욕망”의 억제에 “군자(君子)의 이상” 등 전통 사상도 같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⁷⁹⁾. 물론 이 경우에는 “대의”(大義), “군자” 등은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보다는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의 “조선

76) 이광수, 新年을 當하야 學生에게 보내는 公開狀, 英雄이 되라, - <동광>, 40호, 1933년1월, 2-3쪽

77) 김윤경, 務實力行信義勇氣 人格完成과 團結訓練에 不可缺한 要素, - <동광>, 10호, 1927년2월, 4-5쪽

78) 주요섭, 학생풍기물란론, - <동광>, 28호, 1931년12월, 50-53쪽

79) 최규동, 동양정취와 대의, - <조선일보>, 1939년2월3일; 김경미, 학교운영 논리와 파시즘 교육체계: 한 실력양성론자의 사립학교 경영을 사례로, - 방기중 엮음,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 서울: 해안, 2005, 199-232쪽

인다운 인격” 완성의 수단으로 인식된 듯했다. 즉, 1920-1930년대의 교육 담론에 존 로크나 프리드리히 프뢰벨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인주의, “인격주의”, “이성(理性)본위주의”적 요소들이 도입되긴 했지만 근대적 “개인”에 대한 이해 자체는 이미 집단 (민족)의 우월적 의미와 규율의 내면화, 집단의 목적에 적합한 욕망의 배치 등을 전제로 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근대적 훈육 이념의 명암

근대 이전의 조선 지배층의 자녀 훈육은 제도화된 “학교”가 비교적으로 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도덕적 가치들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도덕적 자본 축적”을 주된 목표로 했으며, 식민지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근대 학교 교육 제도는 도덕을 국가화시켜 “충효”, “선량한 황민”의 논리로 해석시키는 반면 규율의 차원에서 극단적 억압성을 드러냈다. 전통 속에서도 근대적 교육 제도의 현실에서도 “자유”가 별로 발견되어지지 않는, 대단히 암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근대 지식인들은 존 로크나 프리드리히 프뢰벨 계통의 자유주의적 훈육론을 받아들여 “흥미 유발”과 “개성 발달”을 주된 과정으로 삼는 새로운 교육의 이상을 제시했다. <소년>지의 “쾌남아” (快男兒)나 <학지광>의 “천재”, 거의 모든 계몽 잡지에서 개화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등장되는 “영웅”, 그리고 1920-30년대 계몽 매체의 “자각한 학생” 등은 공론화(空論化)된 과거의 “도덕” 위주의 “군자” (君子) 이상과도, 일제가 제시한 “선량한 제국 신민”의 이상과도 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자기 개성이 발전되는” 1920-1930년대의 “귀여운 어린이” 역시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본격적인 구별을 하지 않았던 전통시대의 도덕주의와 일제 식민지 제도교육의 “일률주의” (一律主義)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측면도 있었다. 전통시대 일상의 일부분으로서 일제 학교 제도에서 크기 심화, 악질화된 체벌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 못해도, 적어도 양계초의 교육 관련 저서들이 개화기에 소개된 이래로 “지나친 체벌”, “비교육적인 체벌” 등은 일괄되게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신에 특히 나혜석이나 주요섭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인격적 대우”의 이상을 제시했으며 이광수 등 영향력이 높았던 우파적 계몽주의 담론의 주도 인물들도 적어도 1930년대말 이전까지 이 이상을 표면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개성과 인격이 발달된 쾌남아 (快男兒), 영웅, 천재”를 양성하려는 욕망의 배경에 사회진화론을 기본 전제로 하는 “민족 사이의 경쟁”에서의 조선인의 집단적 “영멸 (永滅)”에 대한 공포심, 피(被)식민자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열등성 (劣等性) 극복”의 논리, “민족적 웅비 (雄飛)”의 꿈이 있었으며, “쾌남아” (快男兒) 내지 영웅의 “체력, 기력, 혈기 왕성한”, “용기에 가득 찬”, “자기 통제, 욕망 자제를 완벽하게 할 줄 아는” 상 (像) 역시 근대의 군사화된 남성다움의 이상을 그 바탕으로 했다. 조선의 새로운 교육이 훈육시켜 배출해야 할 “쾌남아” (快男兒)와 “영웅”은 근본적으로 “민족의 전사 (戰士)”이었다. 민족주의적 계몽주의자들이 “민족”과 일본이라는 식민지 국가를 따로 생각할 때에 - 즉, 궁극적 “독립”의 이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 “민족의 전사”의 모습은 “제국의 군인”의 모습과 나름대로 다를 수도 있었지만 계급적인 이해관계와 일제 당국의 강제에 따라 전쟁 총동원 시기 (1937-1945년)에 “민족”과 (일제라는) “국가”가 동일시되자 “민족 전사”를 부르짖었던 목소리들은 꽤나 자연스럽게 “제국 군인”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평상시의 훈육 담론은 비록 “군사주의”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군사주의”를 용인할 수 있는 소지를 애당초부터 내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젊은이들의 “일탈적 욕망”을 규탄하고 “절대적인 단결과 자기 헌신”을 부르짖는 차원에서 이태리 등 유럽 파시스트 국가의 군사주의적 정치에 노골적인 찬사를 보냈던⁸⁰⁾ 이광수로서, 전시 총동원 시기에 “명령을 받은 위치에서 순(殉)하겠다는 병졸의 마음”, “국가를

80) “우리는(중략) 伊太利의 파시스트를 배우고 싶다. 剛健한 質實한 靑年 男女들이 굳고 큰 團結을 모아서 강한 壓力으로 世間の 淫逸한 여러 男女를 膺懲하고 싶다. 朝鮮과 같이 貧窮이 절박한 民族에게 (중략) 부르주 말기의 頹廢氣風을 容許할 여유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상한 복장을 입고 낮에 분을 바르고 다니는 무리는 朝鮮의 적이다”, - 野獸에의 復歸, 靑年아 團結하야 時代 惡과 싸호자, - <동광>, 21호, 1931년5월, 43쪽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봉공(奉公)의 정신”⁸¹⁾을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광수와 달리 끝내 뚜렷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포기하지 않았던 최규동도 젊은이들을 “진정한 사나이, 군인”으로 만들 징병제의 도입을 반긴다는 일문 글을 남겼으며⁸²⁾, 이광수와 달리 일찍이 극우 파시스트 정치보다 미국 자유주의에 다 가까웠던 도미(渡美) 유학과 출신의 박인덕(朴仁德, 1897-1980)도 “여학생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군사교련을 함으로 단체행동, 질서적 생활, 신체 달련 등을 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⁸³⁾라고 하여 남성은 물론 여성의 군사화까지 적극 찬성할 정도이었다. 물론 “총동원”의 분위기에서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피력했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에게 “질서적 생활”과 “신체 단련”을 위주로 하는 억압적 훈육론을 견제할 만한 철저한 개인주의적, 인권주의적 의식이 크게 결여됐으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근대적인 개인 주체 형성론은 어디까지나 전체적 주체(민족 내지 국가)와의 위계적 관계와 전체적 주체가 강요하는 규율성의 내면화를 전체로 깔고 있었던 것이었다.

일제 시절 지식인들이 논했던 “근대적 훈육”은, 계급 사회의 경쟁에서 “인격”과 “전문 지식”이 구비된 개인이 “성공”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현실이나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을 원칙상 부정하는 억압적 국가제도, 또한 개인보다 우위에 두어진 “민족”의 담론적 위치를 거의 무조건적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시각에서 상당히 “구태의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10-30년대 지식인들이 논의했던 많은 훈육 문제들은 지금도 사실상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현실의 일부로 남아 있다. 예컨대 보성전문학교 교장 박승빈(朴勝彬, 1880-1943)이 일찍이 1920년대에 “아이들에게도 예의 개념을 인식시키고 싸움질 등 서로에 대한 존경의 부족에서 발생되

81) 一兵の心構へ, <경성일보>, 1940년7월14일, - 김원모, 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향: 춘원 이광수의 친일 문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130-132쪽.

82) 崔奎東, 徵兵制度實施の感激(死を以て君恩に報い奉る), - <文教の朝鮮>, 1942년6월.

83) 我校の女學生 軍事教練案, - <삼천리>, 14권1호, 1942년1월, 105쪽

는 부정적 현상을 예방시키기 위해 경어(敬語)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었는데⁸⁴⁾, 교실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관습을 바꾸는 문제는 지금도 사실상 해결되지 않고 있다⁸⁵⁾. 일제 당국들도 주목하고 있었던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의 체벌 문제에 대한 논의⁸⁶⁾도, 체벌들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 시절에서 여전히 시의적 의미를 지닌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타율성이 불가피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아동의 교육”, “인격 본위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일제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늘 고민하면서도 풀지 못하고 있었던 화두를 놓고 오늘날 우리도 - “민족”이나 “성공”, “경쟁”에 대한 환상과 집착들에 훨씬 덜 주박(呪縛)되는 상황에서 -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84) 朴勝彬, 現代朝鮮教育制度缺陷に對する意見(一), - <朝鮮思想通信>, 275호, 1927년3월, 59쪽

85) 김이정민, 교사의 존댓말은 평등 가르치는 일, - <일다>, 2003년11월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7&aid=000000017>, 2007년11월29일 접속

86) <朝鮮通信>이 한 조선 어린이가 과도한 체벌을 당해 사망한 사건을 중심에 놓고 아동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체벌들의 실질적 금지를 요구하는 <조선일보>의 사설을 번역하여 논의하기도 했다: 教育上體罰問題, - <조선통신>, 139호, 1937, 1-5쪽.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高橋濱吉, 婦人敎觀の觀點から朝鮮婦人問題, - <조선>, 257호, 1936년10월
- 孤舟 (이광수), 今日 我韓靑年의 境遇, - <소년>, 제6권, 1910년6월,
- 孤舟 (이광수), 余의 自覺한 人生, - <소년>, 제8권, 1910년8월
- 孤舟 (이광수), 天才, - <소년>, 제8권, 1910년8월
- 孤舟 (이광수), 朝鮮 사람인 靑年들에게, - <소년>, 제8권, 1910년8월
- 孤舟 (이광수), 공화국의 멸망, - <학지광>, 5호, 1915년5월
- 敎育上體罰問題, - <조선통신>, 139호, 1937, 1-5쪽.
- 敎員暴打로 學童이 失神 말 안듣는다고 차고 때리어 郡北公普校 學父兄憤慨 對策 講究(咸安), - <동아일보>, 1930년2월13일
- 꾸짖고 칭찬하는 일이 아이들께 미치는 영향, 어른 행동을 표준해야 꾸짖지 말자
때리기 전에 잘못된 일을 살필 것. 칭찬하는 것도 좋으나 함께 감격하는 마음
현상식으로 지도하지 말 것, - <동아일보>, 1938년10월1일
- 국가의 경쟁력, - <소년>, 제10권, 1909년11월
- 김법린, 世界各國의 學生生活, 모든 行動이 軍隊式化, 佛蘭西의 學生生活, - <별건
곤>, 14호, 1920년7월
- 김영섭, 理想的 人物의 實力과 修養, - <학지광>, 3호, 1914년12월
- 김이준, 半島靑年의 覺悟, - <학지광>, 4호, 1915년2월
- 김운경, 務實力行信義勇氣 人格完成과 團結訓練에 不可缺한 要素, - <동광>, 10호,
1927년2월
- 나혜석, 아이는 가정의 복두성, - <동명>, 1호, 1922년9월3일
- 나혜석, 내가 어린애 기른 경험, - <조선일보>, 1926년1월3일
<南冥先生文集>
- 노익근, 富를 증가함에 대하여, - <학지광>, 10호, 1916년9월
- 無名人, 膽力을 養하라, - <학지광>, 6호, 1915년7월
- 민규식, 英美人及佛國人の 子女敎育法比較, - <학지광>, 3호, 1914년12월
- 민태원, 全朝鮮中等, 專門學生雄辯을 들은 小感, - <별건곤>, 10호, 1927년12월
- 朴勝彬, 現代朝鮮敎育制度缺陷に對する意見(一), - <朝鮮思想通信>, 275호, 1927년3
월,
- <朴殷植 全集>, 서울: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1975, 1-3권
- 白波, 所謂 新女性과 良妻賢母主義?, - <현대평론>, 1호, 1927년1월

北極到達의 兩大快男兒, - <소년>, 제6권, 1910년6월
 사공환, 가장 선량한 요람, - <신가정>, 1935년3월호
 山翁, 오늘의 조선 학생, 오늘의 조선 경우에서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조선 학생으
 로서 어떠한 정신에 살아야 할까, - <동광>, 8호, 1926년12월
 少年時言, - <소년>, 제8권, 1910년8월,
 소년의 여름, - <소년>, 제6권, 1910년6월
 송진우, 사상개혁론, - <학지광>, 5호, 1915년5월
 我校의 女學生 軍事教練案, - <삼천리>, 14권1호, 1942년1월
 어린이어, - <개벽>, 57호, 1925년3월
 어린이의 건강 11칙, - <동광>, 2호, 1926년6월
 어린이의 동무되려, - <신가정>, 1935년3월호
 이광수, 천재야 천재야, - <학지광>, 12호, 1916년9월
 이광수, 자녀 중심론, - 청춘 통권15호, 1918년9월
 이광수, 野獸에의 復歸, 青年아 團結하야 時代 惡과 싸호자, - <동광>, 21호, 1931년5
 월
 이광수, 新女性の 十戒銘, 젊으신 姉妹께 바라는 十個條, - <만국부인>, 1호, 1932년
 10월
 이광수, 新年을 當하야 學生에게 보내는 公開狀, 英雄이 되라, - <동광>, 40호, 1933
 년1월
 이광수, 민족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삼천리>, 7권 9호, 1935년10월
 이광수, 一兵의 心構へ, - <경성일보>, 1940년7월14일, - 김원모, 이경훈 편역, <동포
 에 고향: 춘원 이광수의 친일 문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130-132쪽.
 李光洙, 六堂崔南善論, - <李光洙全集>, 서울:우신사, 1979, 제8권, 487-489쪽
 이극로, 절대로 필요한 것, - <신가정>, 1935년3월호
 이상천, 새 도덕론, - <학지광>, 5호, 1915년5월
 <六堂崔南善全集>, 서울: 현암사, 1973, 1-14권
 윤성순, 근본적으로는 찬의, - <신가정>, 1935년3월호
 장정심,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여론 - 인격적으로 기르자, - <신가정>, 1935년9월호
 장혁주, 야인으로 기르리라, - <신가정>, 1935년3월호
 朝鮮總督府 稟言, <施政二十五年>, 京城:1935
 주요섭, <조선 교육의 결함>, 경성: 세계서원, 1930
 주요섭, 시험철폐와 그 대책, - <동아일보>, 1930년11월14일
 주요섭, 학생풍기물란론, - <동광>, 28호, 1931년12월

채필근, 유익한 기관이다, - <신가정>, 1935년3월호
 崔奎東, 동양정취와 대의, - <조선일보>, 1939년2월3일
 崔奎東, 徴兵制度實施の感激(死を以て君恩に報い奉る), - <文教の朝鮮>, 1942년6월.
 최순주, 유치원이 필요하다, - <신가정>, 1935년3월호
 팔극, 장난감의 가지수와 우리의 것, - <부인>, 2권4호, 1923년4월
 학생은 모름지기, - <소년>, 제6권, 1910년6월
 현상윤, 強力主義와 朝鮮靑年, - <학지광>, 6호, 1915년7월
 Locke, John.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and Of the Conduct of the Understanding* Eds. Ruth W. Grant and Nathan Tarcov.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1996

2. 2차 자료: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역사, 2004
 김경자, 김민경, 김인전, 이경진, <한국근대초등교육의 좌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김경미, 학교운영 논리와 파시즘 교육체계: 한 실력양성론자의 사립학교 경영을 사례로, - 방기중 엮음,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 서울: 혜안, 2005, 199-232쪽
 김종수, 조선조 서당 교육 연구, - 계명대 한문학 연구회 발행 <한문학연구>, 제4집, 1987, 15-29쪽
 박익환, 남명 조식의 교육사상, -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서울: 집문당, 2003, 155-190쪽
 박철휘, 일제강점기 중등학교의 학생규율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 제30집 제1호, 2003, 85-102쪽
 박현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 소설의 성격>, 서울: 소명, 1999
 심진경, 이태준의 <성모> 연구, - 상허학회 엮음, <희귀 잡지로 본 문학과>, 서울: 깊은 샘, 2002, 125-148쪽
 유명중, <宋明哲學>, 서울: 형설출판사, 1992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서울: 태학사, 1999
 이운진, <일제하 유아보육사 연구>, 서울: 혜안, 2006
 <이태준 전집>, 서울: 서음출판사, 1988,
 이혜영, <한국 근대학교교육 100년 연구 (II):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서울: 한국교육

- 개발원, 1997
- 趙容萬, <六堂崔南善>, 서울:삼중당, 1964
- 조은, 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 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8: 여성>,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 退溪先生 年譜, - 김시황, 윤무학 엮음, <퇴계학 연구 논총>, 대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7, 17-133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한국 근현대 교육사>, 성남: 1995
- Robert M. Bruce, *Cook and Peary, the Polar Controversy, Resolved*, Stackpole Books, 1997
- Dom Cavallo, From Perfection to Habit: Moral Training in the American Kindergarten, 1860-192,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16:2 (1976), pp. 147-161
- Alice T. Friedman, The Influence of Humanism on the Education of Girls and Boys in Tudor England,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25:1/2 (1985), pp. 57-70
- Helen M. Jewell, *Education in Early Modern England*, NY: St. Martin's Press, 1998, pp. 7-15.
- David Hogan, The Market Revolution and Disciplinary Power: Joseph Lancaster and the Psychology of the Early Classroom System,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29:3 (1989), pp. 381-417
- Rolland R. Lutz, "Father" Jahn and his Teacher-Revolutionaries from the German Student Movement,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48:2 (1976), pp. 1-34.
- Samuel F Pickering, Jr. *John Locke and Children's Books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81
- Nathan Tarcov, *Locke's Education for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Roberta Wollons, The Black Forest in a Bamboo Garden: Missionary Kindergartens in Japan, 1868-191, -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Vol. 33, No. 1, 1993, pp. 1-35

IV.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청소년 여성성 구성과 관련한 담론분석:“변한 것이 없다”

1. 60, 70년대 학계에서 구축된 청소년 담론
2. 학생잡지 「학원」과 「여학생」을 통해 구축
되었던 60, 70년대 청소년 담론
3. 결론

IV.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청소년 여성성 구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변한 것이 없다”

“고1이었으니까 77, 78년쯤인가 봐요. 그 때 처음으로 좀 모범적인 학생들을 학교당 한두 명씩 뽑아 2박 3일인가 3박4일 정도 강원도에 있는 신사임당 교육원 보냈었어요. 갔는데 난데없이 한복차림으로 차 끓이고, 서예하고, 그네 뛰고...뭐 그런 걸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생소했죠. 돌아와서는 전교생 앞에서 제가 그곳에서 뭘 배웠고 느꼈는지 발표해야 했었어요. 여자의 도리, 어머니의 의미 대충 그런 거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죠. 현모양처에 대한 내용. 그 때 제가 발표한 내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웃음만 사죠 뭐 (웃음)”(40대 후반 여성; 고교시절 신사임당 교육원 경험)

위의 인용문은 본 연구를 위해 만난 40대 후반 여성과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의 자격으로 당시 강원도에 위치한 신사임당 교육원에서 이삼일 간의 ‘훈련’을 받았고, 그 내용은 언급한 바대로 ‘현모양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김수진(2007)에 의하면 신사임당에 대한 의미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였는데, 그의 시각으로 신사임당은 ‘군국의 어머니’에서 ‘한국의 어머니’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그의 논문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신사임당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1900년대 이후 신사임당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권 박탈의 위기였던 1900~1930년대 초반 신사임당은 역사와 민족의 영웅으로 의미화 되면서, 특히 깊은 학식과 시·서·화에 능한 여성으로 율곡 같은 대성현을 낳고 기른 현모였으며 남편을 계도한 양처로서 해석되었다. 그 후 일제의 황민화 길에 동참한 지식인들이 아들을 기꺼이 국가에 바치는 ‘군국의 어머니’, 혹은 ‘충(忠)의 화신’으로 신사임당을 재해석해냈다. 이후 해방과 함께 1960~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는 인용문에서 언급된 대로 군국의 어머니

니 이미지를 벗고 ‘한국의 여성상’ 즉, 현모양처 상으로 신사임당은 부활한다. 김수진은 특히 1976년 대통령령으로 개원한 사임당교육원이 인(仁)·의(義)·예(禮)·지(知)·신(信)이라는 성리학의 오덕(五德) 중, 인과 의를 충과 효로 바꾸어 충·효·예·지·신으로 원훈을 정하고, 그에 따라 미래 ‘어머니’가 될 여고생들을 교육하면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고 분석한다. 그의 분석은 신사임당이 식민지, 근대화,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단지 역사 속의 뛰어난 여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군국의 어머니에서 한국의 민족적 주체성을 구현한 여성이자 국가적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등 상징조작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2009년 발행 예정인 고액권 수표에 새겨질 인물에 대한 논의 과정 중 신사임당이 추천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계 인사와 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근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신사임당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현모양처로서 신사임당을 이해하는 것은 남성중심적 시선을 답습하는 것이므로 신사임당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에 따라 신사임당이 지폐에 새겨질 한국 최초의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신사임당이 군국의 어머니에서 현모양처, 그리고 여성주의자로서의 재해석이 가능할까. 물론 박무영 외(2004)의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에서 신사임당은 여성주의자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화폐에 실릴 정도의 대중적 해석력을 확보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어쩌면 신사임당에 대한 여성주의자까지로의 대중적 해석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사임당이 우리나라 화폐에 실릴 최초의 여성인물이 되는 까닭은 그가 여성주의자여서가 아니라 현모양처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본 글은 여성의 사회적 성취를 과장되게 읽어 내고 있는 ‘알파 걸 담론’¹⁾

1) 미국의 남성 심리학자 덴 킨들런이 지은 책 『Alpha Grils』 (2006)가 국내에서 『알파 걸: 새로운 여자의 탄생』 (2007)이라는 책으로 소개되면서 형성된 담론이다. 책 내용에 따르면 알파 걸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 문화, 사회 자본 등에 있어서 남성들을 능가하면서 성차별을 무화시킨다. 딱히 여성주의자들이 아닌 이들은 수퍼우먼과는 달리 일과 가정이라는 영역 모두에서 고통 받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 이들은 우선 성차별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과 ‘킹콩 걸 담론’²⁾이 지배하는 지금의 맥락에서까지도 현모양처로서의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신사임당이 여전히 한국 여성의 대표 인물로 유효한 것에 대한 질문의 과정으로 60년대와 70년대 청소년 담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9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50년대는 전쟁 이후의 혼란기를 경험한 시기였고, 비록 미약하기는 했지만 60년대부터 체계를 갖춘 인재양성 제도로써 국가 재건을 위한 학교교육이 본격화 되었다. 61년 5·16 군사혁명부터 79년까지의 박정희 정권이 사라진 지 한 세대가 되어가지만,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둔 2007년 11월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그와 그의 정부는 가치관과 관련한 세대 간 갈등의 지점에서 여전히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60년대와 70년대, 특히 그의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소녀, 여성에 대한 담론의 영향력이 지금 어떤 방식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유추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에 대한 담론 분석을 위해 60, 70년대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50년대 창간, 60, 70년대 당시 청소년 대상 대중 잡지 중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학원」³⁾과, 60년대에 창간되어 인기를 누렸던 「여학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프랑스 여성 비르지니 데팡트가 쓴 베스트셀러 『King Kong Theorie』 (2006)가 국내에서 『킹콩걸: ‘못난’ 여자들의 페미니즘 이야기』 (2007)라는 책으로 소개되면서 형성된 담론이다. 원저자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강간’이라는 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매춘을 수치로 취급하는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약간 비껴서면서 한국의 일반 대중들은 이기적이며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꾀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의 킹콩 걸 담론을 형성했다.

3) 근대적 형태를 갖춘 최초의 잡지는 1908년 육당 최남선이 창간한 『少年』이다. 1911년 5월 폐간되고, 1그 후 『학생계』 (1920~1925), 『신소년』 (1923~1934), 『새벗』 (1925~1933), 『아희생활』 (1926~1944), 소년중앙(1935~1940), 그리고 『진학』 (1946~) 등의 잡지들이 창간되고 또 사라졌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학원」은 52년에 창간되어 ‘학원세대’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TV 등의 매체가 없었던 당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면서 청소년 문화를 구성하였다. 「여학생」은 「학원」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원」과 유사한 시기에 발간되었다는 것과 표제와 같이 여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1. 60, 70년대 학계에서 구축된 청소년 담론

쿠데타로 완성된 박정희 정권은 자주경제와 자주국방을 시대와 역사의 요청으로 내세우면서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구축해 갔다. 그의 정권 아래서 민족주의와 유교적 윤리규범을 강요하는 성향은 높아만 갔는데, 청소년들은 이러한 이념을 구현해야 할 유일한 주체(정세구, 1977; 최창규, 1977)로 자주 언급되었다. 특히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자”를 그 골자로 하는 1968년 ‘국민교육헌장’ 공포 이후 미래의 국민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은 국가 재건을 위한 유일무이한 원동력으로 의미화 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교과목, 특히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이념교육에 몰입하였고(정세구, 1977), 특히 일부 학자들은 북한청소년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남한 청소년들의 이념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유종해, 1975).

정세구(1977)는 국민교육헌장,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교부 사상교육 자료집, 그리고 유신정치의 지도이념 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당시의 정치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현장교사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사명 등을 분석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념교육의 내용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의 연구는 자주국방과 자주경제를 이루기 위한 정신혁명을 그 핵심으로 제안하는 등 다분히 도구적 목표를 가진 학교교육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보다 강한 국가관, 민족관을 주입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될 것이고, 대학교과과정에서는 대폭적으로 북한연구의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고...공산주의 비판을 종전에 비하여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높여야 되겠다” 등의 내용(유종해, 1975: 93)에서 보듯 60, 70년대 청소년 교육은 공산주의를 경계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즉 개인과 민족국가의 일체감 혹은 개인에 앞서는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면서 발전지향적 개발과 반공을 강조하였다.

반공을 전제로 국가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60

년대 교육은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해야 할 시대적 요청으로 인해 ‘교육의 대중화’라는 현상을 낳으며 70년대는 학생인구 중 국민학생 73.1%, 중학생 16.8%, 고등학생 7.5%, 그리고 대학생 2.6%의 분포를 보이기도 했다(해방 당시의 비율은 국민학생 90.6%, 중고등학생 8.8%, 대학생 0.5%)(홍승직, 1986). 대학생의 증가와 동시에 1975년도에는 대학의 학생회가 폐지되고 학도호국단이 조직 되었으며, 교수들에게까지도 학문의 자유를 단속하기 위하여 교수재임용제를 도입하는 등 군부 독재 체제 대한 긍정을 넘어 그러한 체제를 유지 확대하려는 수단으로서 교육의 수단화가 본격화되었다(유대근, 1991).

이처럼 60, 70년대의 교육이 군사정부 하에서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발주의 등의 특징 혹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자주 지적되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식민시대부터 90년대까지의 중고생 복장규제(교복규제)에 대해 연구한 안성경, 양숙희(2001) 역시도 브르디외의 상징폭력의 틀로서 지배계급이 승인한 하나의 문화만을 강제 주입시키는 기제로서의 교복규제를 다루었을 뿐, 교복규제가 성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않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교복의 특징을 나열한 표(안성경, 양숙희, 2001: 110)의 내용은 성별화 되어 있으나 연구자들은 그것에 대해 주목하거나 해석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가방이나 블라우스 색깔은 물론 스커트 길이 신발, 양말, 머리핀의 종류와 색깔, 크기 등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구체적인 규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 성별화된 규제는 관심대상이 아니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홍승직(1986)이 교육연한에 있어서의 남녀 성별차이가 60년대(4.6년:2.8년)에서 70년대(6.2년:4.6년)로 넘어오면서 완만해졌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당시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 중 성별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여공’이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여성만큼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발주의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고용주나 국가는 여공과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이 민족과 국가의 재건을 위해 필수적

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세뇌했고, 그들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의 방식에 문제제기할 때, 즉 노동을 하지 않거나 노동 조건 등에 대해 불만을 품을 때 그들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철회 당할 것으로 믿게 했다(김원, 2004). 김원의 이러한 지적은 당시 문교부 장관이 성매매를 ‘애국적 행위’로 장려한 데서, 또한 박정희 정권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보교육과 그들 스스로에 대해 국가경제의 원동력임을 일깨우는 교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했던 정황(강준만, 2002)에서도 드러난다.

김원(2004)에 따르면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차이 강조는 여성들의 공적 영역 참여를 약화시키는 데 활용되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적 여성성과 근대적 여성성이 결합되어 여성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공헌하는 존재로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인식된 것은 아니었고,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인 ‘무성적’ 노동력으로 의미화 되었다(신건, 2000). 여성을 남성과 함께 노동하는 존재로서 설정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무성적 존재로 의미화 해야만 했던 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재건하는 데 그들의 노동력은 필수적이나 그들의 존재가 남성들을 ‘유혹’하여 남성들이 노동을 덜하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1973년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여성의 미니스커트를 단속한 것도 여성의 몸을 무성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매매가 ‘애국적 행위’로 장려된 것을 보면, 국가가 어떤 의도로 여성들을 분류하고 동원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성들은 명백하게 성녀(聖女)와 창녀(娼女)로 이분화 되면서 국가 재건의 ‘기둥’인 남성들의 욕망을 집 밖에서 채워주는 성매매 여성 혹은 그들의 성취를 집 안에서 보조하는 ‘전업주부’ 자리로 위치지어졌다. 어느 쪽이던 여성은 남성들을 위한 ‘2류적’ 존재로 구성되었다.

남성의 욕망을 채우지만 동시에 그들을 ‘유혹’하면 안 되는 존재로서의 십대 중후반 혹은 이십 대 초반의 여공들에게는 순결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으며, 동시에 남성들의 노동을 재생산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욕망이 투사되었다. 당시 동료 남성들과 여공들의 동거는 드물지 않은 것이었으나 이에 대

한 문헌은 물론 이들이 직접 쓴 수기조차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은 바로 ‘순결한 전업주부’와 관련한 이데올로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원(2004)은 국가-고용주-남성 지식인이 공모하여 남성들과 혼전 동거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순결하고 정숙한 현모양처라는 ‘표준적 여성’을 만들어 내려 했기 때문에 여공들 사이에서의 순결이데올로기는 보편적 가치였다고 말한다. 사실 모두(冒頭)에서 언급된 신사임당 교육원이 엘리트 청소년들을 표준적 여성으로 생산해 내기 위한 장치였다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예지원은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즉 이 기지의 여성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과 성인 여성 모두 민족과 국가 재건을 위한 노동력으로 동원됨과 동시에 그러한 노동력을 재생산해 내는, 건설하며 정숙하고 무성적인 존재로 기획되고 담론화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 시킨 모범 인물로서 신사임당이 제시되었고, 사임당 교육원은 미래의 ‘어머니’인 청소년들을 표준적 여성으로 생산하는 가시화 된 조직이었다.

박정희 정권을 아우르는 60, 70년대의 학계에서 청소년들이 국가와 민족의 재건을 위한 노동력인 것과 동시에 그러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정숙한 여성으로 담론화 되었다면, ‘학원세대’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학생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대중 잡지 「학원」, 그리고 당시 여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한 「여학생」을 통해 대중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방식의 담론이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잡지 「학원」은 김익달 씨에 의해 1952년 11월에 창간되어 1979년 3월에 폐간되기까지 3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당대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필진으로 대거 참가하였다. 당시가 최고의 일간지도 독자 5만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때임을 감안한다면 학원사가 기록한 1954년 8월호 8만부 발행은 「학원」의 인기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매월 발행되었던 「학원」은 창간 때부터 독자투고와 학원문학상을 통하여 많은 학생 문인을 배출시켰는데, 소설가 최인호, 문학평론가 김병익, 수필가 유경환, 시인 정공채, 마중기, 황동규, 이승훈 등 많은 문인들이 학원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여학생」은 박기세 씨에 의해 1965년 11월에 창간되어 1990년 11에 폐간되었으며

여학생사가 발행하였다. 창간 목적은 ‘여학생들의 교양·생활·오락·진로 등 학교생활 이외의 여러 방면에서 친근한 벗이 되는 것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아름다움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생활 감각에 세련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계도하는 잡지’를 표방하였다. 주로 여학생들의 꿈과 지혜를 길러주는 명작과 위인들의 발자취를 소개하였으나, 차츰 패션 등을 많이 실어 여성잡지의 성격을 띠다 1990년 11월 재정난으로 폐간되었다. 「학원」만큼의 폭넓은 독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필진에는 「학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당시의 문인들과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었다.

본 연구가 60, 70년 대의 청소년 담론의 지형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시대 「학원」과 「여학생」을 검색하는 것은 수순이나, 주요 도서관은 물론 출판사 자체도 「학원」과 「여학생」전권을 온전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당시 종이 질의 열악성으로 인해 손으로 넘기기만 해도 훼손이 초래될 위험한 상태이므로, 외부 연구자들은 물론 출판사 직원들조차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힘겹게 학원사 직원의 도움으로 「학원」의 일부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한 시간만의 시간이 허용되었으므로 한 권 당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다행히 중립중앙도서관에 필름의 형태로 「학원」과 「여학생」이 복원되어 있는 상황이라 본 연구는 그것을 복사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필름을 읽고 복사해야 하는 쉽지 않은 방식으로만 가능해, 60, 70년대의 「학원」과 「여학생」 전권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목차를 보면서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학생잡지 「학원」과 「여학생」을 통해 구축되었던 60, 70년대 청소년 담론

우선 60, 70년대의 「학원」은 68년 ‘국민교육헌장’의 공포를 기점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68년 이전의 내용은 주로 청소년들의 학업증진 및 이데올로기적 교양을 쌓는 등 개인을 위한 문학 및 교양 잡지의 성격이 강

하나, 68년 이후 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의 성과 연애에 관련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전과는 달리 그 내용이 현격하게 성별화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외 펜팔 홍보는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포즈 등의 노하우가 소개되기도 한다. 청소년, 특히 소녀들을 성애화 하는 경향은 6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되지만 70대 중반이 지나면서 「여학생」에서는 여성주의 학자들이나 여성주의에 동조하는 지식인들이 기고하며 여성의 낮은 지위나 여성차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70년대의 성별적 담론 구성은 성차별적이며 반여성주의적이다. 61년부터 78년까지 발행된 「학원」과 「여학생」의 내용을 ‘국민교육헌장’ 공포를 중심으로 61년~68년, 69~78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1) 61년~68년

(1) 국가재건을 위한 일꾼: 무화된 성별

60년대 초반의 「학원」은 권두언이나 권두시를 통해 한 호가 담고 있을 지향점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당대 명사들이 청소년들의 국가 재건 의지를 북돋는 것으로서 주로 “조국은 자네들 것”(조병화 61년 6월호, 24쪽), “국민재건 운동의 취지를 묻는다”(최한희 양과 국민운동본부 보도과장의 대담 61년 8월호, 42쪽) “학생들이 앞장서서 국가재건 이룩하자”(서정권 서울중·고등학교장 62년 3월호, 20쪽) 등의 제목을 갖고 있다. 권두언이 아닌 일반 사설에서도 국가 재건에 대한 강박을 보이는데 예컨대 “화재예방: 화재는 재건의 적이다”(62년 12월, 94쪽)처럼 일상적 생활습관을 다루는 내용의 글도 재건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들은 기성세대 지식인들이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에서의 희망을 청소년에게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호당 300쪽이 넘는 분량의 「학원」은 다양한 내용의 연재소설 또한 실고 있었는데, 주로 모험과 탐정 소설 혹은 명랑 소설을 다루면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이면서 긍정적인 정신과 태도로서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 간 주인공들을 부각시킨다. 허구라는 소설적 형식과 내

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도 국가재건에 앞장서는 청소년상을 만들려는 「학원」 편집부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또한 일지매, 홍길동전 등의 고전을 통하여서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키우며 건강한 국가 재건의 희망을 띄우려 했으며, 8.15 해방이나 5·16 혁명 혹은 현충일과 같은 국가적 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국가주의적 사고 함양을 의도했다(예, “군사혁명 1주년의 회고” (62년 5월, 80쪽), “현충일 기념식 엄수” (62년 7월, 205쪽), “8·15의 밤” (62년 9월, 26쪽) 등).

김원(2004)은 국가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초기 박정희 정권과 당시 사회적 담론은 성차이를 드러내면서 국가 재건 기획에서 여성을 배제하기보다는 포함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재건에 대한 절박성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브리스(Tavris, 1999)도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의 ‘똑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군수품 생산에 고용될 수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남성들과의 ‘다른’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여성의 자리’인 가정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렇듯이, 「학원」 필자들 역시 국가재건의 과정에서 성별적 역할이 있음을 전제하지 않았다. 예컨대 「학원」에는 여군훈련소나 여학생 교련훈련 등에 대해 다루는 장면이 여러 장의 현장 사진과 함께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방위의 의무를 남성과 어깨를 겨루며 완수해 나가는 육군 여군 훈련소를 찾았다. 박정희 소장의 지휘 아래 내일의 역군을 꿈꾸는 훈련병들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완성에 노력하고 있었다. 자신의 할 일은 자신이 한다는 것이 여군 훈련소의 모토--(61년 3월호 “우리도 국토방위 위해 배우고 있다: 한국 여군의 요람지 연구훈련소”에서)

위와 같은 여군 관련 기사가 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던 직전에 다루어졌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미 박정희는 소장으로서 여군 훈련소까지 직접 지휘하며 국가재건을 명분으로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도 군사화 기획에 동원하려 했기 때문이

다. 비슷한 시기에 여군 훈련소의 사진과 기사와 함께 “평온리에 성공 거둔 5.16 군사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16일 새벽 3시를 기하여 일어난 군사혁명은 삼시간에 서울을 위시한 전국 주요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곧이어 정쟁만 일삼는 현 정부를 불신임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다(61년 6월호: “평온리에 성공 거둔 5.16 군사 혁명”에서)

이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 「학원」에 실린 군사적 기사들은 편집인들에 의해 취재되거나 작성된 것뿐만이 아니다. 일선 교사들 역시도 기고를 통하여 5.16군사 혁명을 3.1운동, 6.10 만세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과 4.19민중/민주 혁명과 내용과 의도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군사화 된 혁명성을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에까지 적용하려 했다.

...학생들에 관한 일거일동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의 주목거리가 되고 온 겨레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3.1 독립운동이나 6.10만세 사건 같은 것도... 실제로 용감하게 싸운 사람은...학생들이나 까닭이다... 지난 번 4.19때는...제군들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 후 간접침략을 분쇄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일어난 5.16군사 혁명 이후에는 (학생들이: 연구자 첨부) 숭선하여 국가 재건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혁명을 맞이하였다... 성스러운 일에 (학생들이: 연구자 첨부) 선봉이 되어야겠다(62년 3월호: “학생들이 앞장서서 국가재건 이룩하자” 서정권, 서울 중고등학교장).

5.16 혁명이 일어난 직후 「학원」에는 “혁명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여섯 개의 공약이 소개되었을 만큼 청소년 문화의 군사화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혁명공약의 내용은 반공, UN헌장 준수, 부정부패 일소, 자주경제, 통일, 시민

적 임무 등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가재건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공약의 여섯 번째 항목이 군인과 민간인이 각각 낭독하도록 되어 있을 만큼 군사적 색채가 강하다. 이처럼 60년 대 초반 국가재건을 지향하면서 다분히 국가주의적 색채를 가졌던 「학원」은 재건 실현을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개개인의 군사화를 은연중에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글 내용들은 성별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성별화 된 내용의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 국가주의 실현을 위한 개인개발의 중심 원칙: ‘성별적’ 혹은 ‘성차별적’ ‘국민교육헌장’ 중 일부의 내용은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이다. 개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으로 의미화 되기보다는 그 역이 성립된다는 이 논리는 68년에 공포된 것이긴 하지만 국가가 개인 앞에 놓인다는 국가중심의 인식은 박정희 정권 초반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개인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소양과 에티켓에 대한 담론 형성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자기개발이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된 자원을 축적하여 그들과 다른 수준의 개인적 성공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의미화 되는 21세기적 담론과는 달리 60년대 초반 자기개발의 이유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 되었다.

「학원」에는 언급했듯이 독자들의 기고가 많은데, 특히나 여학생이 남학생을, 남학생이 여학생을 관찰하는 형식의 글 속에서 국가재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개발해야 하는가를 계몽하는 글이 많이 띈다. 상대 성(性)에 대한 글을 모음으로써, 그것도 당시 ‘엘리트’ 고등학교 재학생들로부터의 글을 실음으로써 편집부는 글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글 내용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당시 고등학생들에게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등 성역할 의식이 아직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소견에도 우리나라는 비상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혁명 때 보여 준 그 용맹성으로 대한민국 10대의 남학생들은 보다 건전하고 굳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앞날의 이 나라를 오늘의 10대인 우리들이 맡아서 명랑하고도 활기 충만한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61년 3월호: “나는 남학생을 이렇게 본다” 차양자, 숙명여자고등학교 2년)

과자방에 찾아드는 학생치고 뚜렷한 자기 신념에 사는 학생은 적은 듯합니다... 시간을 아낄 줄 아는 학생, 그리고 불의에 용감한 학생만이 장차 국가의 간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61년 3월호: “나는 남학생을 이렇게 본다” 감영애, 이화여자고등학교 3년).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에 있어서 남녀학생은 어깨를 겨누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 세대를 보람 있고 떳떳하게 보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장래 국가를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1년 3월호: “나는 남학생을 이렇게 본다” 정광미, 창덕여자고등학교 1년).

...요즘의 여학생,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주성을 유지하여 스스로 서보려는 강력한 자립의 발판을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앞날의 주인공의 힘찬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19후로 사회의 변천에 따라 학생의 시선이 뚜렷해지고 좀 더 목적 있는 방향으로 줄달음치는 모습은 기쁘다 하겠지만... 생의 고통소리와 박력 있는 행동을 오늘의 여학생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나로써 치열한 경쟁의 실사회로 오늘의 젊은 여학생, 그리고 남학생이 뛰어 들으로써 내 조국을 찬란하게 빛내는 굳센 기둥이 되리라 믿습니다(61년 3월호: “나는 여학생을 이렇게 본다” 민재식, 휘문고등학교 2년).

성역할과 관련한 의식은 4. 19 민주 학생운동과 5.16혁명기를 지나고 62년

들어서 조금씩 나타나는데, 이 역시도 남녀학생들의 서로에 대한 기고에서 드러난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치’를 지적하거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무례함’에 대해 언급하는 글들이 있다. 또한 62년 9월호의 “내가 잊을 수 없는 수업시간”에는 남학생교실 ‘공작’편과(최덕하, 174쪽), 여학생교실 ‘양재’편(김중윤, 176쪽)을, 그리고 남학교인 중앙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농촌계몽: 벽지에 희망을 안겨주다”(54쪽)를, 여학교인 중앙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미의 결정: 중앙여자중·고등학교 기계체조반”(197쪽)을 실는 등 같은 호에 전형적으로 성별적인 내용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63년도 4월호의 “희망특집: 꿈의 구름다리”는 편집부가 집필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장래 직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역시도 상당히 성별적이어서 여성에게 가능한 직업과 남성에게 가능한 직업들을 따로 소개해 놓았다. 비서, 항공사 승무원, 미술가, 교육가 등은 여성 종사자에 의해 여성의 직업으로 소개된 반면, 과학자, 군인, 의학자, 의사, 정치가, 사업가, 군인은 남성 종사자에 의해 남성의 직업으로 설명되었다.

물론 60년대 초중반까지도 “마산은 억세게 살아 있다” (63년 3월호)와 “4월의 탑을 찾아서” (64년 4월호) 등의 기사로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한편, 박정희 정권 탄생 과정을 정당화하고 기리는 국가주의 중심적 글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 양은 60년 대 초반의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미해졌다. 대신 64년도 소련의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의 실각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한-미 양국의 유대, 빠르게 변해가는 국내외 정세, 그리고 연재소설, 시, 세계 명작, 위인, 세계적 도시, 국내외 여행기, 과학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양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시기적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글들이 더욱 많이 실릴 법도 한데, 오히려 당시 비판적 글쓰기로 이름이 나 있었던 조세형 씨 등의 기자가 쓴 “다원화로 내닫는 세계 정국” (조세형,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54쪽) 등의 기사가 실려 있기도 하다.

65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세계인’으로서의 교양을 독려하는 글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 범주로 몸차림, 말씨, 공중도덕 등이 있다. “피부의 색과 과

거의 역사가 다른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똑같은 표정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 에티켓이 다를 이 없다”(『학원』 65년 3월호, 141쪽)라는 내용의 글로써 세계 ‘보편적’ 교양을 지향하는 편집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교장 선생님 충고를 담은 글도 있는데, “에티켓(etiquette)이란?”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박응경, 진명여자 중고등학교 교장)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도 남과의 접촉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남자는 사회에 나가서, 주부는 가정에서, 거리에 나가면 길에서, 버스, 전차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스치고, 부딪치고 합니다... 단정하고 산뜻한 몸차림, 이것이야말로 젊음이 넘치는 10대의 여학생에게는 그 싱싱한 맛을 더해 주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 하겠습니다... 매끈하고 눈처럼 흰 깃은 여학생의 청초한 마음 바탕의 상징일 겹니다... 스카트 길이가 너무 길면 몸이 축 처지는 것 같은 무거운 느낌, 그러나 무릎 뒤의 골창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짧게 입는 것은 품위가 깎입니다. 치마는 무릎에서 5cm내려온 길이가 보기에 아름답고 경쾌해 보입니다... 학교에서 머리를 빗을 경우에는 작은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빗도록 노력해 보세요... 끝은 항상 보아도 길고 짧은 것 하나 없이 가지런하고 흠으러진 머리칼도 없이 광택 있는 머리가 결대로 움직일 때마다 물결진다면 그 이상 없는 여학생의 매력일 것입니다.

총 11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지면으로 청소년들의 ‘에티켓’(용모, 말씨, 위생, 공중도덕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글에는 간간히 남학생 삽화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학생의 ‘에티켓’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다. 여학생의 ‘에티켓’에 대해서 상술한 다음 “비단 여학생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주의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글의 중간쯤에 할애된 국내외 펜팔 광고이다. 펜팔을 구하기 위한 양식을 설명하고 난 뒤 “여성 및 초보자 환영”이라는 글귀가 별표와 함께 있다. 삽화는 ‘S라인’의 여성과 ‘H라인’의 남성을 실루엣으로 처리한

만화인데, 여성이 발뒤꿈치를 들어 남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아빠는 정력은단, 우리는 고려은단: 운동과 학습의 전후에는 고려은단을 드시라”는 광고도 실리면서 글쓴이의 여성에 대한 통제 의도와는 달리 당시 사회에서 용인하는 남성 섹슈얼리티와 상품화된 여성 섹슈얼리티를 드러낸다. 당시 「여학생」에는 미용, 성형 광고가 실린다⁴⁾(「여학생」 65년 12월호, 85쪽).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이 성상품화 되거나 그것에 따른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가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

「여학생」은 여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만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며 그 논조는 상당히 보수적이다⁵⁾. 글쓴이가 이화여고의 여교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의 글이 당시 여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 어느 날 여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하도 공부하기 싫어하기에
“공부해서 남 주니? 어서 해라”라고 선생이 말하였더니, 어느 소녀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그럼요, 남 주죠. 공부해서 남자 주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물론 농담으로 오고 간 이야기라 펍 재미있는
웃음 소리였으나 나는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애**

4) “미성 정형외과”광고인데 처음 문구가 “미용, 성형”이다. 미도와 백화점 맞은편의 명동입구에 있는 약도상의 위치로 보아 당시에 유명했던 병원이라고 추측된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75-1. 전화번호 26-4363(명동 入口) 등이 광고 내용이다.

5) 경희대 교수 염병택은 같은 호에 “여학생과 가정”이라는 제목을 글을 싣는다. “여학생은 가정의 꽃, 그러나 가정의 부담이기도 하다. 훗날 추억의 보금자리가 되는 가정, 그러나 현재는 신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여학생이 맡고 있다”(「여학생」 66년 2월호 “여학생과 가정” 염병택, 경희대학교 교수), 이외에도 단국대 교수 김석하의 “춘향전의 성춘향”과 같은 글에서는 “어떠한 역경에도 한 사람의 순애자가 될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소녀들에게 성춘향의 정조를 본받으라고 강조하며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만을 강조한다. 이들과는 달리 이화여대 교수인 고영복은 “한국사회는 실질적으로 남권적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이 속에서 갈등을 느끼며 여성의 길을 찾는 한국 여학생들의 미래. 그것은 밝은 광명이여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글을 싣고 있다(「여학생」 66년 2월호 “여학생과 사회” 고영복, 이대교수). 그러나 염병택이나 김석하 교수 등과 같은 글이 60년대 중반 당시 「여학생」의 주요 논조였다. 66년 당시 「여학생」에는 “최고의 영양조미료 미원(味元)” “품질 제일 선풍기 간장” 등의 광고가 실리기도 한다.

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일은 여자의 최대의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연구자 강조)...어쨌든 남자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냐고 웅졸하게 대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그리고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1966년 2월호 「여학생」, “자기 발견” 중 ‘여학생과 사랑,’ 신지식, 이화여고교사).

여성을 정숙하고 현명한 아내로서 길들이기 위한 방식의 글이 교사 등과 같은 기성세대에 의해서만 쓰여진 것은 아니다. 68년 7호에 “학생이 본 기성사회”라는 특집 기사가 실리는데 제목에서 보여주듯 기성세대에 대한 학생들의 혹독한 비판을 담고 있다.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비윤리적 상도덕을 꼬집는 반면, 여학생 필자에 의한 기성세대 여성들의 소비와 ‘몸가짐’을 비판하는 글도 있다. 그것은 현모양처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 여성들이 현명하지도 정숙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 어느 외국인이 한국 여성의 옷차림을 보고 ‘한국 여성은 매일 파티에 나가느냐’고 묻더라는 웃지못할 넌센스가 있습니다... 외래품을 쓰지 않고는 직성이 안 풀린다는 마나님이나... 비싼 사립 초등학교에 (자녀를: 연구자 첨부) 입학시켜 놓고 가정에서는 찢절매고 애꿎은 남편만 들볶는 주부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한 마나님들의 사치가 젊은 국가의 일꾼을 가정교사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결과도 나오는 것입니다... 앞날의 주인이 될 우리 학생들이 기성인들의 사치와 허영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여학생」 68년 7월호: “학생이 본 기성사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없어요,” 전영자, 진명여고 1년).

...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그 여자 쪽으로 쏠렸기에 나의 시선도 그곳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말만 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었구나’... 그녀가 내릴 때까지 난 불안하였고 저런 여자가 전 여성을 대표한다면

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여성은 아름다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격이나 생활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부문이 크게 발달하여서 선진국에 못지않게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여학생』 68년 7월호: “학생이 본 기성사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없어요,” 강경숙, 대구 경북여고 1년).

위의 글들이 여고생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아래의 글은 「여학생」에 기고한 남자 대학생이 쓴 글이다. 그 내용 역시 여성의 ‘몸’에 대한 것인데 여성들에게 ‘순결’을 계몽하고 있다. 저자가 여고생들이 선망했을 ‘서울대학교’ 남학생임을 볼 때 그 글이 가지는 영향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서양에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격언이 있다고 한다... 나는 십대의 소녀들은 꿈이 많다고 듣는다... 나의 논조는 이렇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정성어린 자세라면, 모름지기 그 꿈들을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키워 가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만약에 나의 말하는 바들이 딱딱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소감도 역시 목욕재계한 연후에 품으시도록(1967년 2월호 「여학생」 “대학생들의 의견” 중 ‘내가 바라는 십대소년상: 몸을 좋게 하고 있을 것’(연구자 강조), 김재의, 서울문리대 철학과 4년, 114쪽).

60년대 초반 강력하게 시사되었던 국가재건 일꾼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중후반을 넘어 오면서 남학생의 탈선에 대한 염려와 여학생에 대한 순결 계몽으로 변한다. 「학원」 68년 3월호 “사랑하는 여학생에게”(전규태, 시인)와 “존경하는 남학생에게”(전숙희, 수필가)라는 제목으로 문인들이 쓴 글에는 청소년들이 조국의 현실을 직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다루어진다. 제목에서 보듯 국가재건을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60년대 초반과는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더 이상 국가재

건의 일꾼으로 호명되지 않는다. 여학생들은 「여학생」에 실린 글들의 제목 “神秘의 女性 金活蘭: 싱그런 숲속의 妖精 같은” “家庭的인 女性 黃溫順: 母性愛 그 눈물의 깊이” “淸楚한 女性 高鳳京”(「여학생」 67년 5월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순결과 전통적 모성 이데올로기를 담지한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기대 받는다. 아래의 글들이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외국의 소녀에 비하면 우리네 소녀는 순수하다. 그러나 욕심 같아서는 우리의 소녀는 활발한 소녀상도 좋지만 어딘가 앓되고, 청순하고, 수줍음에 얼굴을 붉히고.... 조그마한 숙녀이기를 원하고 싶다(「여학생」 67년 12월호: “流行 앞에서의 오늘의 韓國少女, 開放的 表現은 멋이 아니다,” 전규태, 연세대 국문학 교수, 102쪽).

여성은 사회적, 특히 경제적으로 아직도 약한 위치에 서 있다. 하기에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고, 소녀들도 여기에 물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배금주의에 눈이 어두울 때 여성들이 흔히 깨뜨리는 것은 육체의 존엄성이기 쉽다. 돈은 어디까지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겠다(「여학생」 67년 12월호: 拜金主義 앞에서의 오늘의 韓國少女, 지켜져야 할 人間의 尊嚴性, 조우현, 연세대 철학과 교수, 106쪽).

여학생들의 여성적 역할에 대한 계몽과 강요와는 달리 60년대 중후반부터 이른바 탈선 남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가정교육’(68년 8월호: “청소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가정”)이다.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가르친다는 내용의 글에서 가정이 청소년들의 안식처가, 부모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청소년 남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68년의 12월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되었다. 물론 그 의도가 청소년 남성에 대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박정희 정권이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그것에 우선함을 천명하면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 혹은 강화하는 공식적 계

기를 마련한 것이다. 유대근(1991)은 ‘국민교육헌장’이 60년대의 교육이념을 집약하고 70년대 유신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반이라고 평가한다. 즉 그것은 학교교육의 직접지배는 물론 사회교육의 통제 및 조직화를 통한 통치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원」 68년 12월호에 “국군의 날 스냅: 그 용맹 온누리에 (29쪽)”라는 제목의 사진이 실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국민교육헌장’은 군사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주의에 대한 공포이다.

그런데 「학원」의 성격은 68년도와 69년도를 경계로 연애담과 연애전략 등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선정적으로 변화된다. 「여학생」역시도 그러한데, 특히 여성을 소비자로 담론화 한다. 군사주의에 관한 연구들은(권인숙, 2005a; 권인숙 2005b; 나운경, 2005b; 나운경, 2007a) 군사주의의 핵심장치는 성 정치(gender politics)라고 말하고 있다. 성 정치 안에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는 자로, 여성은 남성에 의해 보호받는 자로 의미화 된다. 남성에 의해 보호 받는 여성은 그 대가로서 남성에게 성적 대상이 되는데, 성 정치 안에서 그것은 문제시 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남녀에 대한 이러한 구도는 군사정부인 박정희 정권 초반을 넘어서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여학생들은 60년대 초반 국가 재건의 주인공으로 잠시 호명되다가, 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순결하고 정숙한 남성의 조력자로 담론화 되고, 60년대 후반을 지나 70년대로 들어서면서 성애화 된다. 그러나 여전히 순결 이데올로기는 이 시기에도 팽배하다. 여성들은 성애화된 방식으로 담론화 되는 동시에 ‘순결’하도록 세뇌되는 등 모순적 담론 속에서 존재한다.

2) 69~78년

(1) 청소년 담론의 변화: 국가재건 일꾼에서 이성교제 주인공으로

60년대 초반, 「학원」의 논조는 언급했듯이 국가재건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거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실력과 교양 향상에 주력했었다. 특집으로 마련된 “수험생의 고민에 답한다”(61년4월호, 76쪽)

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1) 시험 때는 실력을 발휘 못해, (2) 공부에 곧 싫증을 느낀다, (3) 암기가 잘 안 되어 걱정, (4) 클럽 활동을 계속하고 싶으나 등 11가지 항목에 걸쳐 청소년 남녀에 상관없이 학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이러한 기사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된 직후인 69년부터 청소년의 이성애적 관계나 사춘기성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성에 눈 뜰 무렵”(「학원」 69년4월호)이라는 제목 하에, 집 바래다 준 여학생(「학원」 69년4월호 126쪽), 말없이 돌아선 남학생(「학원」 69년4월호 128쪽), 한번 사귀 여학생이 내 아내(「학원」 69년4월호 132쪽), 분홍 빛의 편지(「학원」 69년4월호 134쪽) 등 기성세대의 연애담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더욱 본격적으로는 69년 12월호의 특집 “러브레터”는 러브레터와 10대(208쪽), 생전 처음의 러브레터(211쪽), 우정과 사랑의 골짜기에서(213쪽), 통학 버스에서 알게 된 그(216쪽) 등 학생들의 기고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면으로서, 60년대 초반 남녀학생들이 서로에게 국가재건의 기둥이 되어 줄 것을 충고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담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은 ‘건전한’ 연애를 강조하는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연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청춘 특집: 사춘기, 그 싹트는 계절”(「학원」 69년 5월호)이라는 제목 하에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198쪽), 사춘기의 생리(200쪽), 명작에 나타난 사춘기(202쪽) 등 주변인으로서의 고민과 방황이 사춘기의 ‘정상’이라며 청소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60년대 초반, 기성세대들이 국가재건의 희망을 청소년에게서 찾으려 그들이 고민하거나 방황하기보다 국가재건을 위해 행동해주길 바랬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국내외 연예인에 대한 소개가 줄을 잇게 되는 것도 「학원」의 69년부터 시작된 특징 중 하나이다. 이성애적 연애에 대한 글들이 보다 선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성에게는 보다 보수적인 충고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즈음이다.

70년에 들어서게 되면 늘어난 펜팔광고들은 증폭된 청소년 이성애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펜벗, 오빠, 누님, 그리고 데이트 상대자를 원하는 학생은

사진과 편지를 넣어 ‘국내팬팔계’로 보내면 된다”라는 광고문안(71년 3월호 “메아리 펜팔협회”광고 중)은 ‘해외팬팔’이라는 광고의 큰 제목을 무색하게 한다.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이성애적 관심을 염려해서인지 7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 교수나 의사 등 여성 인사들이 성교육 차원의 글들을 ‘직접화법’으로 쓰기 시작한다. 물론 그 내용은 ‘건전한’ 이성교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 사춘기를 거친 청소년은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된다. 성의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성과의 분별없는 교제는 쉽사리 성적충동을 자극하기 쉬운 것이며... 끝없이 알고자 하는 이성의 호기심을 살려 자기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을 내리기 위해 젊은 이성교제를 가지기를 권한다(「학원」 71년 3월호 특집: “사랑의 비결. 10대에 있어서의 사랑의 한계,” 정희경, 서울사대 교수, 78-81쪽).

이성교제에 대한 담론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학생들은 그로 인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연애 가능한 여성 주체는 곧 그 사실 때문에 비난 받기 시작한다. 70년대는 여학생에 대한 비난이 증폭되며, 따라서 여성에 대한 길들이기식 담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기였다.

(2) 반(反) 여고생 담론: 30년대식 신여성, 2000년대식 ‘된장녀’

당시 청소년들의 이성애적 교제가 어느 정도 보편적이었던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새로운 현상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응은 건전한 교제를 위한 충고 수준을 넘어 ‘경고’에 이르는 것도 있다. 물론 그 경고는 여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전의 글들이 남녀학생 모두에게 ‘건전한’ 이성교제를 유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70년대에 등장한 여학생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대구 K여고의 S양은 기혼자인 영어 교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자살소동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로메적인 비극이다. 사로메는 자신의 애인인 요나캉의 목을 스스로 자르므로써(자름으로써: 연구자 설명) 결별을 초대하는 그러한 사랑이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일. 이발사로 근무하는 K양은 자기의 애인을 영원히 잡아두려는 욕심에서, 변심하지 않고 영원히 자기 곁에 있게 하고 싶어서 스스로의 손으로 애인의 국부를 단 한 적이 있었다(71년 3월호 특집: “사랑의 비결. 비극으로 끝난 불장난,” 원동은, 「학원」 편집부 기자, 88-90쪽).

여성들에 대한 ‘꾸며진’ 이야기가 분명한 위의 글들은 여성들의 ‘방종’에 대한 원인을 여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지목하고 싶어 한다. 다음에 인용되는 「학원」 71년 3월호 “르포, 여학생 이방지대를 가다”의 글쓴이는 여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논조는 1920~30년대 신여성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저자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⁶⁾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신여성』의 저자들에 따르면 잡지 「신여성」에서는 신여성의 소비가 대부분 허영이사치로 비판받았다. 나아가 신여성들이 물질적 향락과 사치에만 열을 올리며 남자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기를 바라고, 세속적이며 천박한 허영심을 갖고 있다고도 비난한다.

(소제목 ‘여학교 교육의 이상기후’하에) 즉 대개의 여학교에서는 현 모양처를 귀감으로 하여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과 같은 재색이 겸비한 여성으로서의 성장을 고취시키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교만하고 철딱서니 없는 여자로 되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자신들이 차용한 교복자체에서부터 그들은 불만족을 나타낸다... (소제목 ‘여성상위시대’

6) - 숙녀 녀학생 아씨들은 한껏해야 외투 만또가 가물에 콩나기처럼 각금각금 보이고는 거지만 검점 두루마기에 술·이다. 년년이 거울마다 말성거리 되는 것이지만은 금년에도 그 술이 꽤 문제되는 모양이다. 쌀간 자주 긴 술을 거지만 두르고 단닌다. 길에서는 “아이구 망칙해 담요·가 요때긴가 이불을 쓰고 단니지”(‘가두잡화’ 「신여성」 4권1호, 26년 1월 p.36(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2005 재인용)

- 하숙에 모 녀학교의 학생 세 분이 유하는데 ‘야끼이모’를 엇지나 잘들 먹는지 한 달에 ‘야끼이모’ 값이 4원이나 된다고 한다(‘색상자’ 「신여성」 4권4호, 26년 4월. p. 69(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2005 재인용)

하에)... 개화기를 분수령으로... 그토록 남성에게 추종해야만 했던 여자들이 점차 자기주장을 내세우게 되었고 이제 와서는 남녀동등권을 넘어서 ‘여성상위시대’라는 유행어가 나돌 만큼 여권의 신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여학교 근처를 가봐도... 외상거래로 통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수예숙제는 수예점이 맡아서 해준다는 것일까... 식당 안은 온통 여학생들로 꽉 차있어... 도시락을 이용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먹는다는 것이... 그녀들이... 용돈에 궁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여학생만을 상대로 하는 다과점도 있다고 한다... (소제목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선’하에)... 어린 여학생들로 하여금 되도록 짧은 스커트--그것이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자 치마허리를 과도하게 뚝뚝 말아올리는 변칙이 나타났고...

아래 각주에 인용된 20년 대 중반 「신여성」에서 평가되는 당시 고등교육의 수혜자 ‘신여성’과 70년대 초 「학원」에 실렸던 ‘여고생’들은 2000년대 초반의 ‘된장녀’들을 연상하게 한다. 최근의 뉴스 기사 “현시점 최고 소비주체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은 20대 여자다. 이들은 매력과 커리어를 진취적으로 개발하려는 긍정적 세대인 동시에 된장녀 논란으로 대표되는 ‘허영’과 ‘사치’의 상징으로 이중 평가된다”(뉴시스, 2007. 11. 2)에서 인용되었듯이 된장녀는 허영과 사치의 상징이며, 이는 개화기 신여성, 70년대 여고생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특히 70년대의 ‘여성상위시대’ 운운은 현재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의와도 상당히 유사해 30~40년마다 등장하는 반여성적 담론의 자장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된다.

1920~30년대의 시대적 특징에 대해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신여성』의 저자들은 당시의 조선이 소비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선은 소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여성적 욕망과 그러한 소비를 통해 보이는 여성의 허영과 사치가 여성들의 미성숙함이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남성적 욕망이 상충하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개화기 조선은 일본식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소비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이점은 박정희 정권이 자주경제를 이루고자 1966년 실시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을 거두며 기틀을 다져가기 시작한 1970년 초중반의 한국 사회와 유사한 지점을 만들어 낸다. 생산과 수출지향적인 박정희 정권의 경제계획은 여공(남공)들에 대한 저임금을 기반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는 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빈곤에서 벗어나며 70년대 소비사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2000년대의 한국은 생산보다는 소비를 지향하는 후기근대적 특징을 보이며 소비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개화기, 근대, 후기근대라고 불릴 수 있는 30년대,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각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소비가 증폭되는 소비사회라는 것인데, 그 특징은 소비가 조장되면서 동시에 그것에 부응하며 소비하는 여성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소비하는 여성에 대한 비난은 여성을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하는(그렇게 인식하고 싶어 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인식에는 생산하는 자로서의 남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은 성별 이분법적 도식에 근거한다.

국가재건이 지상과제였던 60년대 초반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청소년과 청소년에 대한 성별 이분법적 도식에 근거한 담론이 70년 소비사회의 도래와 함께 여학생들을 소비의 주체로 내세우면서 「학원」과 「여학생」에서도 여학생 소비를 조장하는 글들이 실리기 시작한다. 소비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담론은 여성 스스로를 성 상품화하도록 하는 담론과 연결된다. 여성의 소비는 결국 자신의 몸과 외모를 위한 것이 되는데,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담론은 여성 성 상품화와 구별하기 어려운 지점을 만들어 낸다.

(3) 소비자화, 성애화되는 여학생: 여성 길들이기

언급했듯이 소비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때 두드러지는 현상은 과잉 소비에 대한 전사회적 경계이다. 특히, 굶주리고 헐벗었던 전쟁과 그 후 몇 년간 이어진 빈곤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던 70년대 초반은 언급했던 “르포, 여학생 이방지대를 가다”에서 보았듯 여성들의 소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여학생을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며 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여학생 살롱”이라는 제목 하에 실린 아래의 글은 미용품 광고보다 더욱

지나치게 미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원」의 내용이 성별화 되어 가는 것은 물론 여학생을 소비자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욕이나 세안 등으로 죽은 세포를 제거할수록 피부는 항상 윤이 나고 싱싱함을 간직하는 것이다” *크림세안...*비누세안...*더블세안...*삼중세안...*세안으로 눈동자를 아름답게...*이를 아름답게...*아름다와지는 목욕법...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미용적인 목욕이므로 다소 시간을 걸리기 마련이다...목욕시간은 약 40분...팔꿈치 발뒷꿈치 무릎 등은 속돌이나 레몬, 유자 등으로 문지른다....*목욕 후의 손질...등 따위에 여드름이 생겨나는 사람은 오데·콜론을 바르든지 레몬 조각으로 문질러 놓는다...피부가 건성이라 윤택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올리브유를 약간만 살결에 발라 둔다. 중성의 피부는 오데·콜론·댈컴·파우더로 두드리면 좋다(71년4월호: “여학생 살롱: 미용, 올바른 세안법, 288-291쪽)

“여학생 살롱”은 이후 미의 창조, 나의 아픔들, 아름다운 것들, 3월의 식탁 등의 내용을 실으면서 소비자로서의 여성을 재현해 내었다. 지금도 화장이나 목욕으로 레몬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일은 그 가격의 만만치 않음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다. 하물며 70년대에 “여학생 살롱”이라는 제목 하에 실린 위와 같은 글들은 그 내용의 사치스러움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이나 대중들에게 여성 혐오 혹은 비하적 시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당시 여고생 또래의 여공, 이른바 ‘주변부’ 여성들은 ‘산업역군’으로 호명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불평 없이 자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되었으며, 여대생과 여고생 등 이른바 ‘중심부’ 여성들은 의식주 과학화와 근검절약하는 여성상을 확립하도록 독려받고 있었다(신건, 2000). 이러한 때에 생산하지도 않고 근검절약을 내면화하지도 않는 70년대 소비의 주체인 여고생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감수성은 개화기 신여성에 대한 남성적 혐오와 분노, 그리고 2000년대 ‘된장녀’들에 대한 민족주의적이며 계급주의적인 폄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소비자로서의 여성을 부각시키면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의 미를 강조하는 글들이 많이 소개 되었는데,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글들은 여학생들을 상품화·성애화 하면서 이성애적 연애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글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성애적 관계에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김원(2004)의 분석에서처럼 70년대 여공들에 대한 ‘무성적’ 존재로서의 담론 혹은 김수진(2007)이 밝힌 것처럼 신사임당에 대한 70년대식 요구 ‘현모양처론’과 만나면서 여학생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담론을 구성한다. 여학생들을 주 독자로 갖고 있었던 「여학생」도 역시 10대 소녀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지만, 그러나 10대 여성에게 성적 충동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새롭다. 최근의 청소년 성교육 서적이나 강사들의 논조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는 ‘없는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나운경, 2002). 이렇게 볼 때 70년대 초반(71년 8월호) 「여학생」이 “예비숙녀에게 필요한 9가지 트레이닝”에서 ‘성적 충동을 승화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있는 것은 지금의 시각으로도 진보적이다.

...『안네의 일기에서』...안네가 느끼는 봄이 바로 소녀가 느끼는 성적인 추동인 것이다...성적인 충동은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승화해야 한다. 꽃을 가꾸고 수를 놓고, 테니스나 탁구, 등산으로 몸에 고이는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71년 8월호 「여학생」 “예비숙녀에게 필요한 9가지 트레이닝”에서 ‘성적 충동을 승화하는 지혜,’“ 강준상, 의학박사, 98-10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조장되었던 사회에서의 여성 소비는 혐오의 대상이, 이성애적 연애와 사랑 담론이 풍성한 사회에서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등, 70년대는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시각이 뚜렷이 가시화되었던 시기이다.

「학원」 72년 7월호의 “公開합니다, 내 理想의 戀人을!”이라는 경쾌한 제목의 글은 미용 소비에 충실하며 자신의 몸을 성애화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적인 ‘길들이기’를 보여준다. 각목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성이 하이힐과 민

소매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에게 맞아 쓰러져 용서를 빌고 있는 여성의 팔꿈치를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삽화와 함께 실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이상 연인? 우선 나처럼 얼굴에 사이클을 매달고 다닌다면 그건 곤란. 미인은 아니라도 추녀도 아니어야 하는데 뭐니뭐니 해도 여자란 행실이 고와야지. 내가 왜 이토록 그녀를 때려야 했겠소. 가슴이 메어질 듯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대낮에 정강이를 드러내고 핫팬티를 입고 테이트 때 나타났으니 속상해서 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두 손 모아 비는 걸 보니 안됐기도 합니다. 핫팬티가 싫은 거지 그녀가 싫은 건 아니니까요(72년 7월호: “公開합니다, 내 理想의 戀人을!” 윤형주).

이렇게 폭력적인 삽화와 글 내용이 경쾌한 제목의 글과 함께, 그것도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남성 가수 윤형주라는 이름으로 실린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당시의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글 내용에 등장한 여성처럼 섹슈얼리티를 ‘남발’하는 ‘행실이 곱지 못한’ 여성에 대한 길들이기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쪽의 해석이던지 이 그림과 글은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길들이기가 정당화되었던 70년대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담론의 의도는 여성은 정숙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담론은 바로 여고생을 어머니로 전제로 하는 담론과 연결된다.

(4) 자식과 남편 위한 ‘어머니’ ‘아내’ ‘성녀’를 향한 순결교육

이후 「학원」에는 여성과 남성을 대별시키며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한 논의와 그것에 기반한 충고 등이 실리기 시작한다. 아래의 글은 “원래 男子라는

7) 이 글을 쓴 이의 이름이 가수 윤형주씨와 동명이인이거나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글쓴이의 익명을 의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 다음 쪽에 소개된 글이 당시 윤형주와 함께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 김세환씨로 되어 있다. 아무래도 유명인의 이름으로 익명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것은?”이라는 제목에 실린 글인데 여성은 아름답고, 남성은 그 아름다운 여성을 위해 돈을 벌거나 싸움을 하는 것으로, 또한 여성은 그러한 남성을 위해 기꺼이 모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의 본질적인 차이를 대별한다.

...한자의 男이란 밭에서 힘을 쓰며 일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듯이 여왕벌을 위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일벌처럼 일해야 하는 것이 남자... 그리고 항상 여자가 유도 조종하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는 재산을 모으고 여자는 이것을 처분한다』는 이탈리아 속담도 있고,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는 것이다... 여자가 아름다움을 생명처럼 생각한다면 남자는 자존심을 위해선 목숨과도 바꾸려 한다... 누가 자기 애인을 치근거리기라도 하면, 아무리 자기보다 힘이 세어 도저히 적수가 되지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기사도를 발휘하여 대항하려 든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지만, 이때 인간이란 말을 남자란 말로 바꾸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알랭의 말처럼 『남자는 건설해야 할 것이든가 파괴해야 할 것이 없어야 하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와 결혼했으나 남자는 사업과 결혼하고』 『남자의 사랑은 그의 생활의 일부이지만 여자의 사랑은 그 전부이며』(바이론) 『남자로서는 세계가 심장이지만 여자로서는 심장이 세계』(그라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남자를 가정이란 새장 안에 가둬 놓으려 해도 그는 이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며, 설사 용케 울안에 가둬 놓는다 해도 그는 이내 질식사하고 마는 것이다. 남자는(물론 여자도 그렇지만) 어머니라는 여성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남자는 아무리 커서 늙더라도 어머니=여성에게 향수를 느낀다... 여인에게서 어머니와 같은 자애스러운 모성에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여자들에게는 어린애를 대하는 듯한 측은함을 느끼게 하고 또 자연 여성의 본능인 모성애를 자극하기도 하는 것이다(72년 7월호: “원래 男子라는 것은, 208~209쪽).

남녀를 대별하며 여성에게 모성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위의 글들은 60년대 초반 남녀 공히 조국재건의 기둥임을 강조하던 논조와는 상당히 다르다. 60년대 초반의 논조가 남녀학생 모두 생산 노동 인력임을 강조했다면 그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성은 생산노동, 여성은 재생산 노동 인력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여학생」에 실린 70년대 초반 여군 훈련소에 대한 글의 논조와 60년대 초반 「학원」에 실린 같은 주제의 글이 보여주는 논조가 달라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언급했듯이 61년 3월호 「학원」에 실린 “우리도 국토방위 위해 배우고 있다”에서의 여군은 국토방위를 위해 훈련받으며 자주국방을 실현시킬 조국의 역군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71년 8월호 「여학생」에 실린 여군 훈련소 여군들은 그들의 평균 연령이 17~19세임에도 불구하고 “상관 모시듯 시어머님 모시면 훌륭한 며느리 돼”(304쪽)라는 글에서 인용된 내용처럼 모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는다.

...그(임동순 대령)의 첫 마디부터가 빈틈이 없다...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한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연구자 강조). 그러므로 그 때 그 때 자신의 위치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 해 낼 때 그는 현명한 여성입니다...임대령의 이념은 여군 지휘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지, 용, 미로서 배우고 익혀서 지식을 쌓고 견디어 용기를 배양하며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는 것으로 지휘지침을 삼고 있다(「여학생」 71년 8월호: “총 들고 나선 여성장병,” 박순희 기자, 299-305쪽).

여성 역할에 대한 모성 강조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담론화 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데, 섹슈얼리티 통제는 여학생들에 대한 ‘순결’교육이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학생」은 특히 71년부터 73년까지 꾸준히 순결 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순결의 이유가 “내일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여학생」 72년 9월호, 142쪽)이다. 순결의 책임이 여성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할 때 남성들은 국가재건의 주체로 호명될 때와

는 달리 무능하고 단순한 존재로 그려진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 자신을 지켜가야’... 남자들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단순하므로 여자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요구해 온다. 이런 때에 육체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싹 거절해야 한다.. 똑똑한 여자들은 남녀간에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결혼)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성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자의 남녀동등권이란 이런 경우 『노우』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여학생」 72년 9월: “왜 순결은 필요한가”, 편집부).

...마음의 순결이 앞서야 함은 물론이지만 몸의 순결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순결이 중요하되 간혹 순결치 못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씻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그것이 몸을 직접 더럽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몸의 순결이 지켜지지 못하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치명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된다. 희망도 없고 자신도 없고 보람도 없고 떳떳함도 저버린 막된 길을 걷게 되기가 쉽다. 그것은 결국 사람다운 사람됨을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을 과멸로 이끄는 것이다(「여학생」 73년 5월 특집 “순결”, ‘순결은 왜 필요한가?’, 박준희, 이대교수).

그러나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조가 노골적인 이성관계와 관련한 글들과 경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70년대 초중반부터 「학원」에는 “男女交際特集: 첫 데이트의 秘訣”(73년 3월호, 162쪽), “青春心理特集: 하이틴과 性”(73년 6월호, 102쪽), “쇼킹 리포트: 지난 여름 갑자기”(73년 10월호, 208쪽), “러브러브 特集: 러브레타 강좌”(74년 4월호, 202), “남녀교제: 서머 러브”(74년 8월호, 109쪽) 등 내용보다 훨씬 선정적인 제목의 글이 잡지의

여기저기서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더니 「학원」 76년 2월호의 “여학생 페이지”(65쪽)에서는 ‘성적(性的)으로 조숙하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제목의 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패팅은 키와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남녀관계가 키스나 패팅 단계에까지 들어가면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잘 자랄 수가 없다. 죄악감을 갖는다는 것은 정신적 불안정으로 성장을 방해한다. 너무 마음에 걸릴만큼 깊은 교제는 피하도록 하자.

여학생 순결 교육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학생」의 글쓴이들 중 특히 이화여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여학생에게만 강조되어 온 순결 교육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회하여 여성의 낮은 지위나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비판하거나 성찰하게 하면서 당시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성교육 내용들에 균형추를 제공하였다.

(5) 여성주의와 반여성주의의 경합

1974년 「여학생」 7월호에서는 특집으로 “왜 여자만이 울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다. 이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데 사진에 대한 설명 글이 “여자는 고달프다. 살림하는 것만이 미덕의 전부이기”에 “과연 여자는 아들을 낳았을 때 제 구실을 다하는 것일까” “예전에는 교육의 기회마저 여자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는 성의 차이뿐이다” “여자는 직장에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글 내용 역시도 성차별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것인데 남아선호, 출가외인,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차단, 출산의 고통을 중심으로 한 여성적 경험에 대한 사회적 폄하, 성도덕의 이중 잣대, 호주제 등 법의 남성중심성을 아우르며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비판하고 있다. 1974년 이후 학생대상 잡지들의 주요 논조가 여성 해방적이거나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학생」은 「학원」과는 확실하게 여성주의적 글들을 많이 실었는데, 그 중 일부는 지금의 시각으로도 진보적이다. 아래의 글은 74년 7월호 「여학생」 특집

“왜 여자만이 울어야 하나요?”의 일부이다.

... 지금 서구에서는 성의 혁명이 거세게 물결 치고 있다. 남자의 노예화에서 여자를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삼중지도를 미덕으로 내세우는 우리풍토에서는 아득한 얘기. 그래서 여자는 울고 있다. 왜? (「여학생」 74년 7월호: 특집 “왜 여자만이 울어야 하나요?” 이해란, 본지 기자).

... 법은 이렇게 평등을 내세우나 타고 날 때부터 남자에게 복종하는 하나의 『노예』로 운명 지어진 여자는 성스러운 도덕과 진리같이 그르침이 없는(?) 법의 뒤에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우는 것이다 (「여학생」 74년 7월호: 특집 “왜 여자만이 울어야 하나요?” 이해란, 본지 기자).

이처럼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7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방식의 관계를 모색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학교의 대안으로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대한 담론이 출현하고 이전의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유교적 윤리를 제고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성교육의 필요성, 남녀평등의 주장이 절실해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남녀공학교가 환영받고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중학교의 공학제에 선 여간 세심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남녀공학 안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남녀평등이라는 것이다. 밝고 건전한 남녀학생들의 틈 라이프를 위하여, 남녀가 평등하고 조화 있는 개방사회를 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남녀공학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교육전문가들의 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편적 실시 시기는 과연 언제쯤이 될지? (「여학생」 75년 8월호: “남녀공학이 환영 받고 있다,” 김승희 기자).

성평등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찰되어지는 여성의 경험은 주로 결혼이다. 76년 7월호에는 서울대 가정대학교 교수가 실시한 여성들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루어졌는데 지금의 청소년이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 현대인의 결혼관은 대체로 근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필종부인 관념은 여전히 뿌리 깊고, 여대생들은 자기가 살아갈 능력만 있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 76년 7월호: “여성의 결혼관이 바뀌어 간다,” 유영주, 서울대 가정대학 교수).

여성들의 결혼관이나 이성관계의 질이 변화되면서 성별 영역에 대한 예상들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엄마는 회사일로 출장을 떠났다. 아빠는 혼자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가의 기저귀를 갈아 채운다. 낮 동안은 아가를 『전문 부모』에게 맡기고, 설마 이런 가정생활이 20년 후, 아니 백년 후에 지구상에 벌어질까? (「여학생」 76년 7월호: “미래의 가정생활--부모와 자녀 이야기,” 이성진, 서울대 교수)

인용된 이성진 교수는 당시 독자층을 이룬 10대들이 성인기를 맞게 되는 시기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성별 영역의 변화에 따라 “아빠가 밥을 짓고 기저귀를 갈고, 엄마가 운전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지 않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성별 영역의 해체를 가르친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효재 교수의 글에 이르러서는 “딸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여학생」 76년 7월호: “딸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 이효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한다. “아들 가진 어머니는 소구루마 타고 딸 가진 어머니는 비행기 탄다”(388쪽)는 당시의 유행어는 최근의 딸 예찬론과 유사하다.⁸⁾ 양쪽의 경우 모두 남아선호에 대

한 달라진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학원」의 2월호에는 부자지간의 윤리를 “군사부일체”로 가르치며 “핵가족 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른을 구심점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대가족 제도이다”(61쪽)라는 유교적 가르침을 강조해 「여학생」에 실린 성별 영역에 대한 해체적 담론과는 다른 논조를 보이며 여성해방적 담론과 억압적 담론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당시 여성주의적 담론 역시도 반여성주의적 담론, 이를 테면 여성 상품화나 여성 외모중심주의 등과 같은 담론과 경합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 언급했던 “왜 여자만이 울어야 하나요?” 다음 쪽에는 “노출의 계절: 각선미 종합연구”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이라면 누구나가 아름답고 건강한 다리를 갖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미운 다리만을 생각할 뿐 예쁘게 가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없는지... 여기 이러한 여학생을 위하여 십대의 이상적인 다리는 어떤 것이며 십대다운 다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여학생」 74년 7월호: “노출의 계절, 각선미 종합연구).

여성들에게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역시 지금과 다르지 않았으며, 성형수술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역시도 지금과 그 정도가 비슷했다. 76년

-
- 8) 이효재 교수의 주장이 나온 지 30여 년이 지난 최근에는 딸 가진 어머니에 대한 예찬론뿐만 아니라 아들 가진 어머니에 대한 동정론까지 나오는데 “딸 둘 둔 엄마는 금메달, 남매 둘 둔 엄마 은메달, 아들 둘 둔 엄마 목메달”이라는 유행어가 그것이다. 또한 최근의 딸 선호와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애 원장은 “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억압돼 있던 여성 능력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아들에게 효도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20대 성인이 되면서 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딸에 비해 더 큰 것도 요인이다. 군대→복학→취직→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부모의 부담도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5월 한 결혼문화연구소가 남녀 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48%(168명)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답했다. 첫 아이로 여아를 답한 응답은 33%, 남아를 답한 응답은 19%(67명)에 불과했다. 남아선호 사상이 수그러들고 여성의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2007.11.20 중앙일보).

2월호의 「학원」에는 쌍꺼풀 수술한 여학생의 상담 내용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39쪽).

...“선생님, 다른 애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쌍꺼풀을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샘이 나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저희들도 나처럼 눈이 작았다면 쌍꺼풀 수술을 안 하고는 못 견뎌를 거예요. 저는 지금 전학을 하고 싶은데 1년간 더 이 학교를 다녀야 할지 또 다닌다면 어떻게 내가 따돌림 받는 것을 극복해야 될지...”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외모는 예나 지금이나 성형수술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하는데 78년 3월 “주니어 성형 수술 그래도 좋은가: 너도나도 쌍꺼풀 수술”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릴 정도였다. 필자는 경희대학교 부속 병원 성형외과 과장인데 그는 수술 전 여러 사람과의 상의와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단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286쪽)이다. 여학생들의 외모 중심주의는 남학생들에게 여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강조되는데, 남학생들은 “여학생 매력의 포인트”(「여학생」 78년 5월호, 272쪽)와 같은 제목의 글에서 ‘바람직한’ 여성상을 구성하며 여성을 대상화한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희고 고운 목덜미’ ‘고르고 깨끗한 치아’ ‘밝은 미소를 띠는 여학생’ ‘자신의 미용에 관심을 갖는’ ‘웃 입는 감각을 지녀라’ ‘눈이 맑아야 매력 소녀’ ‘청결한 교복 칼라’ ‘정돈된 머리’ 등 외모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다.⁹⁾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을 대상화한 만화가 76년 2월호의 「학생」에 실리는데, 만화의 제목은 “이색 새마을 운동”으로, 한 남학생이 새마을 사업이 한창인 그때 “나의 새마을 사업은 누드 사진에 옷을 입히는 것부터...”라고 말하면서 벽에 걸린 여성의 누드 사진 위에 색칠을 하고 있다. 여성 몸에 대한 노골적인 대상화 역시 청소년 대상 잡지에서도 가능했던 것이다.

9) “여학생의 매력의 포인트”에서 지적된 것 중 ‘양보의 미덕’ ‘연예인 까ship이나 남의 흠을’ ‘버스간에서는 조용히’ ‘인사성이 바른 여학생’ 등 외모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으나 전형적인 여성성과 관련한 덕목들이다.

76년 2월호의 「학생」에는 또한 여학생들의 몸매를 가꾸는 일명 ‘미용체조’가 소개되기도 하는데 “아름답고 건강한 여성의 체격 표준치”가 일목요연한 표로 제시된다. 신장에 따른 정상 체중,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대퇴위둘레, 게다가 이상적인 발목둘레가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당시의 여성에게 강조되었던 외모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보다 더 표준화된 것이 아니었다 싶다. 표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신장 cm	체중 kg	바스트 cm	웨스트 cm	히프 cm	대퇴위 cm	발목둘레 cm
158	46.7~50	79.4~94.8	54~59.6	83.9~94.8	47.8~50.6	18.1~21.1
165	53.3~58	82.5~99	56~61.5	87~99	49.2~53.5	18.8~22

위와 같은 ‘표준적’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체조를 소개하면서 “가슴은 역시 풍만하여야 할 터, 바스트에 자신이 없는 사람에겐 부처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 같은 합장이라는 체조가 효과적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다. 또한 체중감량을 위한 체조도 소개되는데 “암만해도 전체적으로 뚱뚱해지는 것 같다. 체중계 바늘도 심술궂게 마구 올라간다. 자아 큰일이다”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체조법이 사진과 함께 소개된다.

물론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외모 중심성 같은 내용의 글들은 “여성해방 운동이란 무엇인가”(「여학생」 78년 8월호: “특집 여성해방론”, 108쪽)이나 “외국의 여성해방과 우리의 경우”(120쪽)와 같은 여성 인권에 대한 계몽적 글들과 함께 여학생들의 관심을 놓고 경합해야 했다. 외국의 사례를 설명한 이 글에서는 ‘출산을 국가적 차원에서’(121쪽)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주의자들이 의제화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78년도의 11월호에는 “개화백년의 여인 산맥, 김활란: 여성 교육의 완성자”(278쪽)라는 제목의 글로 김활란 박사를 추모하는 글이 실려 있다. 그의 여성해방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나

10) 쪽수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질 않다. 신장 158cm~168cm를 2~3cm 단위로 잘라 신장에 따른 표준 몸 사이즈를 표시했다.

라 지식층 여성들 가슴속에 지금도 맥맥히 흐르고 있다”(279쪽)라고 글쓴이(구현봉, 전기작가)는 말하고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60~70년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두 개의 대중 잡지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형성된 청소년 관련 담론의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이 시기는 박정희 정권 시기로, 대한민국이 근대적 의미의 정부와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본 논문에서 ‘국민 교육현장’이 공포된 1968년을 기점으로 둘로 나뉘었는데, 그 이유는 잡지의 논조가 68년을 중심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두 잡지 「학생」과 「여학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1961~1968년까지 담론의 특성은 60대년 초반의 국가재건기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과 ‘같은’ 존재로서 국가재건과 생산 노동자로서의 임무를 부여 받으며 ‘작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그러나 6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청소년들은 청소년과 ‘다른’ 존재로서 남성의 생산 노동을 보조하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기대를 받는다. 60년대 후반부터 잡지에서의 청소년들은 성애화되어 연애의 주체가 된다. 70년대 초반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성공으로 우리사회 중산층에게 소비가 조장되면서 이성애적 연애의 주체로서 여학생들은 광고나 글을 통해 몸 관리와 치장에 대해 끊임없는 유혹과 충고를 들으며 미용과 관련한 소비를 부추김 당한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과잉 소비에 대한 질타를 받으며 여전히 생산에 몰두하고 있었던 사회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한다. 성애화되거나 소비하는 여학생들과는 달리 일군의 여학생들은 검소하고 순결한 미래의 ‘어머니’로도 호명되면서 남학생들과는 차별적 존재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7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여성주의적 담론은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성별적인 담론과 경합한다.

60, 70년대의 청소년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알과 결’과 ‘킹콩 결’들이 등장했다는 현재의 맥락에서조차 여전히 신사임당이 우

리사회에서 향수를 자아내고 있는 배경이다. 담론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주체 형성과 관련한 권력의 의도 혹은 음모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수진(2007)의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권력이 주체들을 특정 방식으로 형성해냄으로써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신사임당이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시기에 현모양처로, 전시에는 군국의 어머니로,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상으로 맥락에 따른 조작적 의미화를 거쳐 온 과정은 (식민지) 남성중심적 권력이 어떠한 여성주체 형성의 의도를 가졌었는지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예상보다 지체된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고지를 넘겼다며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당찬 계획을 추진해 왔다. 기대했던 대로 여성인력 활용 담론의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1호’ , ‘수석’ ‘최연소’ 등 ‘여풍’을 일으키는 여성과 일 중심적 여성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출산은 물론 결혼도 하지 않는 ‘골드 미스’이거나, 하더라도 출산과 상관없는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딩크족’이 되자 저출산 현상이 초래 되었다(혹은 그렇게 믿게 되었다). 저출산율은 인구수와 대비한 노령인구 비율을 늘림으로써 노령 사회를 만들어 냈고, 그러자 사회는 재생산은 되지 않은 채 보살핌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인구의 급증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알과 걸’들이 임금 노동은 물론 결혼과 출산도 잘 해 내는 거칠 것 없는 ‘별종’ 여성들이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녀들은 “공부 잘 하는 여성은 다 잘 한다.”는 어불성설의 신화를 창조하고 실체로서가 아닌 담론으로서만 존재하면서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거부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러자 남성중심 사회는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반격(backlash) 모드로 전환했다. ‘킹콩 걸’들이 남성들의 모든 자원과 기반을 독식한다고 분노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현모양처인 신사임당이 재생산 노동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남성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어루만지고 우리사회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너”라는 호명에 대답하며 새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수순일 것이다.

한 세대 전인 60년과 70년대에 청소년들은 국가재건의 일꾼, 무성적 존재

로서의 남성 보조자, 재생산 노동자, 한심한 소비자, 순결한 현모양처, 그리고 여성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관련한 스펙트럼의 양극단을 오가는 담론 속에 위치했었다. 이렇게 본다면 21세기 한국 여성들을 둘러싼,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 자녀 사교육, 된장녀, 그리고 새로 등장한 현모양처론, 그리고 ‘꼴페미’ 등의 담론은 60, 70년대 여성 담론의 단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담론구조의 이러한 반복은 특정 여성주체 형성 의도를 가진 남성중심 권력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 주체(subject)가 알튀세의 설명대로 규제, 법, 혹은 헤게모니적 질서가 호명하는 것에 ‘복종’(subject)하면서 구성되어진다면 주체는 저항의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무력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 무저항의 무력함이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복종하는 여성주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규제, 법, 헤게모니의 호명에 전략적으로 부응하면서도 동시에 부응하지 않기도 하는 주체의 잉여 혹은 잉여에 대한 담론이 저항하는 여성주체를 만들어 낸다는 버틀러식의 주체 형성과정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코스프레를 실천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집이나 학교에서 ‘착한 소녀’라는 호명에 전략적으로 부응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응하지 않기도 한다. 물론 그 잉여의 부분에서 그들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넘나들며 성별 헤게모니적 질서를 무화시킨다.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물론 해방적 주체이다.

어떤 인류학자 한 분이 여성주의자들이 만나는 포럼에서 “스타 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된장녀와 적막강산의 시골에서 된장을 담그는 그녀가 만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외제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된장을 담글까? 물론 그 인류학자가 의도한 바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노하우를 교환하며 에너지를 주자는 데 있었지만, 이 두 여성의 전략적 만남은 남성중심 사회의 여성 주체 혹은 여성성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를 교란한다. 버틀러 식으로 말하자면 어차피 ‘여성성’이라는 것은 환상적(imaginary)일 뿐 실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을 상상하면서 충실하게 담론화된 여성성을 반복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잉여의 부분을

갓게 될 테고, 그 잉여가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해방의 여지, 즉 해방적 주체의 여지를 만들어 낸다. 바로 그 점에 주목하면서 해방된 주체로서의 청소년에게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가능할 때 한 세대 혹은 훨씬 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여성에 관한 지루한 담론의 구조를 깨면서 새로운 주체 탄생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지루하게 반복되어 온 여성성에 관한 담론에 가려진 혹은 그 담론이 의도적으로 덮고 있는 여성적 주체는 무엇일까. 그러한 주체에 대한 담론화는 가능할 것인가. 물론.

참 고 문 헌

- 강문규(1991). 한국의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한국청소년 연구 제 5호, 172-182.
- 강준만(2002). 한국 현대사 산책, 서울: 인물과 사상.
- 권인숙(2005a).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 권인숙(2005b).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병역의무: 카투사의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 (2), 223-254.
- 김수진(2007).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대회 “분단체제하 남북한의 사회변동과 민족통일의 전망” (2007. 7. 19-20).
- 김원(2004). 여공의 정체성과 욕망: 1970년대 ‘여공 담론’의 비판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2(1), 44-80.
- 나운경(2002).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손승영 편).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성 교육, 서울: 지식마당
- 나운경(2005b). 군사주의가 재현되고 실천되는 공간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 평생교육연구, 11(4), pp. 1-32.
- 박무영 외(2004).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서울: 돌베개.
- 나운경(2007 a), 남녀공학대학교의 군사주의: 음대 성악과 여학생들의 시민권 구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1), pp. 69 - 102.
-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2005).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신여성**, 서울: 한겨레신문사.
- 신건(2000). 1960-19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논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
- 안선경, 양숙희(2001). 복식에 대한 검열방식 연구: 청소년 용의복장 규제와 방송복장심의 규제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1), 105-117.
- 유대근(1991). 5·16군사 독재 정권과 60년대 한국교육, 초등우리교육, 3(13), 122-127.
- 유종해(1975). 남북한 청소년·학생의 가치관형성: 교육제도를 통해 본 관찰, 북한, 통권 47호. 78-93.
- 정세구(1977). 한국인의 사명: 청소년 이데올로기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상명대학교 논문집.
- 최창규(1977). 국가발전과 청소년, 윤리연구, 6, 85-100.

타브리스(1999). **여성과 남성이 똑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히스테리아 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홍승직(1986). 한국의 교육 세계 및 교육가치관 변화: 60·70년대의 교육, 한국사회
개발연구.

V. 한국 전쟁이후 청소년의 남성성과 관련한 담론 연구

1. 기억속의 청소년 제도 교육과 국민 만들기
2. 무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
3. 연구의 의의와 방법
4. 변화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5. 청소년의 국민 만들기
6.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박정희정권의 내용적
독창성은?
7. 국민 만들기의 약한 고리: 서구화
8. 근대화와 함께 진행된 국민의 성별화
9. 순결문화와 남성의 대범한 섹슈얼리티
10. 결론

V. 한국 전쟁이후 청소년의 남성성과 관련한 담론 연구

이 연구는 한국의 근대화기간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이후 30년간 청소년 잡지를 통해 청소년의 남성성과 관련한 사회화 담론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재건, 부국강병의 주체로 탄생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요대상이었던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을 젠더적 관점 속에서 보려는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젠더적 성체성에 관한 담론 분석은 청소년 시기가 성정체성의 정립시기이고 역할을 찾아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청소년과정이 국민훈련생으로서, 정부이념의 적극적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성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근대화에서 요구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으로 청소년은 적극 포섭되기 마련이다. 이들은 새로운 근대화의 중요한 요소인 서구적인 에티켓과 관습을 키워나가고 서구적인 기준에서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형성할 것을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경계의식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검열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은 경계하는 방식과 승인하는 방식이 다르다. 남자 청소년은 정치, 사회의 주체로서 여자 청소년은 소비와 가정영역의 주체로서 만들어지며 근대화과정에서 검열과 경계는 주로 여성성의 영역으로 모아진다. 청소년은 국민 만들기의 희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문젯거리가 많은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서서히 획득해 나간다. 이 또한 주로 여학생들의 순결과 소비, 의상문제로 집중되어 나타난다. 남자 청소년은 남자다운 기상을 재정립하여 사회, 정치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핵심적 국민으로의 성장을 일관되게 기대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는 행동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이 본능에 충실해도 된다는 관용적 담론이 고정화된다.

1. 기억속의 청소년 제도 교육과 국민 만들기

최근 근대화시기를 국민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당시의 기억을 재조명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다. 그 기억중 남성학자의 기억과 신문 기사를 섞어 보았다.

70년대 초반, 서울 전동고등학교 5학년 5반 시절입니다. 당시 담임선생님은 특하면 ‘영양학적으로 쌀보다 밀가루가 훨씬 훌륭하다’는 강의를 하셨지요. 선생님은 ‘서양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것은 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혹은 우리 반 애들은 쌀밥을 먹으면 미개한 것이고, 밀가루를 먹으면 문명이요, 문화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키가 작아 땅콩이란 별호를 갖고 계시던 공포의 훈육주임께서 직접 우리 반에 왕립하셨습니다. 제 도시락의 흰 쌀밥을 보신 그 분은 저를 매우 치셨습니다. 한 10분간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시면서, 10분간이나 떠드신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이런 거였지요. ‘이 애국심이라곤 코딱지만큼도 없는 놈! 나라 걱정 하나도 안 하는 놈! (이승호, 2002: 182, 183).

신입생에게 줄 맞추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학교 때도 반복되었다. 철원중학교 신입생들은 한 달이 넘도록 하루 2시간씩 제식훈련이라고 이름 붙여진 교육을 받았다. 강원도 철원은 남한에서 가장 춥고 눈도 제법 오는 곳이다. 3월이 다 지나도록 운동장의 눈이 녹지 않았다. 300명의 신입생들은 그 눈밭 위에서 줄을 맞춰 운동장을 돌거나, ‘우향우!’ ‘좌향좌!’와 같은 구령에 맞추어 훈련을 받았다. 남녀공학이었는데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충만 안 메었을 뿐 군사훈련과 똑 같은 훈련을 받았다. 중학교에서 처음 배운 동작은 ‘우로 봐!’였다. 6년 동안 ‘앞으로 나란히!’에서 ‘우로 봐!’로 발전했던 셈이다. (전인권, 2003: 23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중의 경우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도시락을 일제히 검사, 잡곡을 50% 이상 섞지 않은 학생은 일주일 동안 실

내 청소를 시키고 해당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이행 각서를 쓰게 하고 있으며, 종로구 옥수동 지역중에서도 담임교사가 매일 도시락 점검을 하여 이행이 안 된 학생은 도덕 성적에 반영시키고 있다¹¹⁾ (1976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월요일에는 국민교육헌장의 낭독으로 시작되어 재건체조로 마무리되는 애국조화, 목요일에는 사열과 분열행진으로 이어지는 교련조화, 국기에 대한 맹세, 점심시간의 혼식검사, 학생과 공무원들을 아침 일찍 동원하는 조기청소, 열손가락의 지문을 짹 짹 눌러 찍는 주민등록증[만주국에서는 국민수장(國民手帳)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충효이데올로기, 채변, 쥐 잡는 날 ...](한홍구, 2003: 98)

한국 전쟁이후 60, 70년대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은 개발독재시대의 정치사회문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한 이들에게는 대체로 비슷하게 기억되고 있다. 반공과 부국강병의 이념적 포화의 집중적 대상으로서, 홍위병 같은 행동주체로서 강고한 국가주의 사회에서 국민으로 키워졌던 청소년으로서의 기억들도 채워진다. 조혜정은 이런 기억을 만든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일제시대에는 배타적인 저항 민족주의였다면, 그 이후에는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국가동원을 용이하게 하는 '국민 만들기'주의였던 것이다 . . . 개발 독재 국가는 “빨갱이를 물리치자”는 공포 아래 길들여진 '국민'을 “선진국 대열에 끼자”는 구호로 손쉽게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역대 정권은 이 복합적인 애국주의/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한 이데올로기적 관리 체제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정권 유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해 왔다 (조혜정, 1998: 322).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와 분노가 지배적인 시대이념으로 자리 잡고 개인보다는 모든 면에서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11) 이승호, 2002, p. 180에서 재인용.

이해되고 도덕화 했던 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화는 개인의 성장이 아닌 국가도구의 생산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고 띠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홍승직, 1986) 학교교육은 더 중요한 표적이 되고 청소년은 각종 지배적 이념교육의 최적의 대상이 되었다. 유대근은 1960년대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0년대의 교육은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의 교육은 ‘조국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발전교육론과, 군사독재정권의 허약한 정통성을 메워주고 미국의 냉전 논리에 충실한 반공교육으로 일관되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가의 교육통제가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 . . 교육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인력개발의 수단,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인 반공정신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대근, 1991: 124).

2. 무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의 경험을 기억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의 젠더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앞의 이승호, 전인권이나 한홍구의 기억 속에서 청소년은 무성적 존재로서 기억된다. 청소년만 있고 청소년란 단어가 없듯이 청소년시기는 마치 학교라는 체제 속에서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경험으로 이해되기 쉽다.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은 서로 다른 사회화의 과정을 밟게 되고 그 서로 다름이 한 사회의 이념적, 실천적 유지에 주요한 수단이 됨이 쉽게 간과되는 것이다. 임은정은 “청소년기의 사회화에 있어 심리적인 면의 특성은 성(性)적 성숙, 자아의식의 확충 및 직업적 발달 등을 지적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성역할 인식에 따른 성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임은정, 2000: 135)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청소년기의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성별적 자아정체성의 형성인데 이것이 국가와 발전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는 쉽게 도외시된다. 마

치 모두가 부속화 되어 있다는 상상은 국민은 모두가 같이 동원되고 이념적으로 세뇌되고 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실천 활동을 했을 거라는 또 다른 형태의 기억의 획일화를 낳는다. 이는 국민화의 과정이 바로 젠더화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권혁범은,

국민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고 그것들을 매우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가령 ‘우리’는 이제 여성과 남성, 노동자와 부르조아, 이성애와 동성애 등의 다른 차원의 자기규정을 배우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것은 ‘국민’이라는 거대하고 본질적인 틀 안에 존재하는 하부단위적 정체성에 불과하다(권혁범, 2004: 57).

앞의 전인권의 기억에서도 드러나지만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같이 군사교육을 받고 새마을 운동의 주체로서 동원되고 근대화의 기수로서 산업역군으로서 노동자화 하였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이런 몰성적인 성향을 주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사임당으로 대표되는 현모양처적 여성성이 군사정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옹호되고 교육되며 확산되고, 여성의 모성적 역할이 국민화의 진행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청소년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의 한계가 명확해진다. 정유성의 주장대로 근대화는 남녀를 구분하고 영역을 구분하고 역할을 구분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르고 나누어 밀어붙인 국가주도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가족을 식민화해버린 것이다. 결국 ‘모든 성년 남자를 산업역군으로 열 두 시간 이상 붙잡아 둔 개발독재 시대가 국가라는 유일한 부권의 독재를 통해 사실상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만든 것이다. 가정과 학교와 국가가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결탁하여 아버지들은 직장에, 아이들은 학교에 어머니들은 가정에 붙잡아 놓음으로서 서로를 가르고 나누는 결과를 가져왔다(정유성, 2001:36.7).

이런 국민 만들기의 젠더화 과정에 대해 노동영역이나 새마을 운동¹²⁾등은 페미니즘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는 학자들에 의해 분석이 되어있다. 유정미나 신현옥은 각각 <국가 주도 발전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새마을 부녀지도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국가 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 조직에 관한 연구>와 라는 석. 박사 논문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의 젠더성을 밝히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도 당시 노동운동의 주역이 여성이고 특히 10대 말 2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젠더적 관점에 의하여 분석한 글은 나오고 있다. 김승경의 *Class Struggle or Family Struggle: The Lives of Women Factory Workers in South Korea*(1997)은 70, 80년대 여공의 집단적 정체성과 삶을 그리고 있고, 김원의 여공 1970⁶은 식모와 여공 등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노동계급 여성의 여성성과 섹슈얼리티, 문화등을 둘러싼 담론분석을 하고 있다 (김원, 2005).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청소년의 젠더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데,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남녀를 가르는 명칭조차 부재한 청소년의 젠더성이 관심의 영역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탓도 크다. 또한 청소년의 남성성뿐만 아니라 근대화에서 전반적인 남성성을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 국민 만들기의 물성적 경향이 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곧 남성이라는 남성기준적 판단이 만든 주체의 성별성에 대한 무관심도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12) 농촌 지역의 근대화라는 측면 외에도, 농촌 지역의 새마을운동은 그 운동의 주체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 운동이기도 하다. 새마을운동은 수년 동안 가장 중요한 국가 주도 사회 정책으로 농촌 여성들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서 기존의 봉건적으로 여겨지던 논리에 대항하면서 동원되고 참가하였던 운동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의식은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도전하게 하지만, 기존의 역할에 사회적 역할을 더하여 노동량이 추가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동원 주체였던 국가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등 여성의 변화된 역할에 따른 변화된 남녀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추구하지도 않았다. 여성 지도자들은 일정하게 공동체 내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오히려 가정에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했기 때문에 더욱 과중 노동을 하게 된다(권인숙, 2005)

3. 연구의 의의와 방법

이 글에서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남성성의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잡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한국 전쟁이후부터 박정희 시대 바로 뒤까지 청소년을 둘러싼 근대화의 이념적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졌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특히 근대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형성해나가는데 출발적 주체가 되는 청소년은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으며 그들의 섹슈얼리티와 사회적 존재의 의미, 역할, 기대되는 기질이나 성질은 무엇이었을까를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시기적인 구분을 필요에 따라 두면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사회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하고 근대화의 핵심개념인 국민 만들기의 성별적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는 잡지의 기사에 담겨져 있는 담론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잡지는 전쟁이후부터 70년대까지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잡지라고 할만한 학원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잡지분석은 50, 60, 70년대 대표적 청소년 담론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크다. 다른 대중매체가 다양하게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잡지는 문화적 교류와 담론생산의 주거지로서 문학적, 문화적 활동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잡지는 당시의 청소년문화와 사회화를 위해 규범적 국민을 생산하고 지도하려는 기성세대의 의지와 이에 대한 청소년자신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통사적 접근은 시기마다 변화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기대와 갈등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면이 있다. 잡지 편집진의 주제선택이나 기고하는 글의 변화는 시기 시기의 대표적인 남성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쟁이후 국민형성의 도구로서의 청소년담론을 분석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는 학원의 경우 1952년 11월 부산에서 발간되어 이후 ‘학원세대’¹³⁾라는

13) 학원세대라는 말을 주간조선 정창열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간조선 2006.12.8, 1934호) “학원세대를 만들어낸 청소년 문학잡지 ‘학원’은 출판계의 원로 김익달씨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대구에서 창간했다. 이 잡지는 정비석, 윤백

말을 낳을 만큼 문화적 파급력이 컸던 잡지이다. 정비석, 최정희, 노천명, 조지훈, 박두진등이 문학 작품을 신거나 시론을 기고 하였고 정부 고위급 관료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글이 늘 실리는 잡지였다. 당시 학원은 학원문학상으로 많은 고교필진을 배출하기도 했고, 1950년대 중반에는 8만부라는 기록적인 매수를 판매하기도 했다. 1964년 발간되기 시작한 여학생은 학원정도의 문화사적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인기 있는 잡지로서, 청소년잡지로서는 학원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리스트에 오르고 있고 여학생문학상등을 통해 여학생문화의 중심에 서있었다.

4. 변화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전쟁이후 학원은 중학생종합잡지를 표방하면서 출간하였다. 1959년에는 일시적으로 중고등학교 문예지로 바뀌고 1960년대에는 하이틴잡지로 정체성을 바꾸어 고등학교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초기에도 중학생 고등학생을 아우르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중학생종합잡지로서 명명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50년대에 중학생이 교육받은 청소년을 대표하였기 때문일 거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1946년의 한 통계를 보면 중학생 수는 76,467명이거나 고등학생 수는 6960명뿐이다(이치석, 2005:151). 50년대에도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숫적으로 압도하는 현상이 지속되지만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등학생수도 많이 늘고 70년의 경우 국민학교 학생이 73.1%, 중학생 16.8%, 고등학생 7.5%, 대학생 2.6%의 비율이 된다 (홍승직, 1986, pp.33-34). 숫자의 문제는 잡지의 논조에서도 드러난다.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로 갈수록 대

남, 김광주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소설가들이 작품을 실었고,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같은 시인이 학생의 작품을 직접 자상하게 평해 주었다. 당시 학생에게 별다른 취미활동이나 오락거리가 없었던 요인도 있지만 잡지 자체가 문학계의 정수였기에 ‘학원’은 1978년 마지막 권이 나오기까지 30여 년 동안 수많은 소년 소녀 문인을 길러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실제로 현역 작가 상당수는 청소년 시절 ‘학원’에 작품을 발표해GT다. 안도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 작품 ‘연’으로 ‘학원’에서 제정한 학원문학상을 받았고, 최인호씨도 학원에 시를 발표했다. 윤후명씨도 학원문학상을 휩쓰는 학원스타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문학상 단편소설에 당선된 황석영씨는 19세 때 사상계의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했다”

상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즉 50년대는 장래의 분명한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있는 반면 그런 경향성은 학생의 대중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60, 70년대로 가면서 줄어든다. 또한 학생의 대중화는 청소년이 무조건 꿈꾸는 희망의 씨앗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성과 행동에서 많은 탈선과 문제점을 가지는 집단으로 규정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1950년대의 경우 전쟁 이후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또한 상대적으로 특권화된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계층이었다. 이 계층적 특권성과 전쟁이후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각종 기고의 글에서 대학생들 상대하는 듯한 진지함을 느끼게 한다. 시급한 시기에 정치사회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와 포부가 글속에 많이 담겨져 있다. 이런 기대감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방식으로 나타나고 청소년들에게 지사적 진지함을 요구하는 글들이 주류를 이룬다. 자신이 공부하는 목표가 당연히 국가의 재건과 번영에 있다는 것은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상식적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54년 6월 호에서 문교부장관 이선근은 권두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러분이 각각 중,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만은,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업을 닦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우리민족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형편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54년 2월호에서 맹 지천도 조국에 대한 충성과 책임을 강조한다.

학도란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지고 있는 후계자이며 다음 세대의

책임을 맡을 자이다. 그러므로 학도들의 조국을 위하는 충성된 마음
이 다음 세대를 내다볼 수 있는 기본 척도가 되는 것이며, 학도들의
걸어가는 한걸음 한 걸음 발자취가 조국이 걸어가는 전방 코오스가
되는 것이다 (p.23).

이런 권두언 등의 글이 형식적인 수사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는 것은
편집진이 선택한 각종 기사에서 드러난다. 잡지에 실린 여러 가지 정치 분
석 기사들은 청소년들을 대학생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주체
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남북한의 정치회담(53.9월호)이나 한국
방위조약체결에 대한 기사(53년 12월호), 해방 9주년의 발자취(54년 6월), 54
년 9월에는 남북한의 정치회담에 대한 꽤 진지한 분석이 적혀있다. 이는 학
생들을 정치적인 사건을 판단하는 존재로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치적 기사들은 60년대의 잡지에도 실린다.
5.16혁명이 난 이후에 학원지에는 그에 관한 사진이 실렸고 학원, 61년 6월
호). ‘평온리에 성공 거둔 5.16 군사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상황보도를 하고
있다. 62년 3월호에는 당시 서울 중고등학교장인 서정권의 잡지의 권두언으
로서 ‘학생들이 앞장서서 국가재건 이룩하자’라는 글을 쓰고 있다. 학생들이
나서서 군사정권의 국가재건운동에 앞장서 달라는 요지의 글이다. 이러한
정치기사는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중이 줄어들고, 여학생지에는 관심사항
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5. 청소년의 국민 만들기

이들 잡지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잡지의 대상인 청소년을 근
대화에 적합한 국민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군인이나 정치지도자의 글이
자주 실리는 것도 그 한 증거이다. 잡지에서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50년대이고 이시기 가장 강조되는 정치적 경
향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이다. 이 치석은 이 경향이 48년 대한민국정
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교육은 국민교육이었고 국민이라는 단어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민화된 존재이며 그 언어적 가치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국민화된 존재로 규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가 헌법 제 1조에 ‘국민’을 명기한 후부터이다. 그때부터 ‘국민’은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인민’과 대립되기 시작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모든 국가적 도덕의 기본도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두 이데올로기가 충돌한 한국전쟁 이후 ‘국민’은 반공을 ‘인민’은 용공을 동시적 (synchronique)으로 은유하게 된다 (2005, 136-7).

이런 국민 만들기는 50년대 잡지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54년 6월호의 민병총사령관 신태영은 ‘국민의 길을 배우자!’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인격이 높다 해도 국가와 민족의 성격에 맞지 않고 국리민복에 이바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국토가 폐허화 되어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도 망각하는 사람이 없지나 않은지? 일신의 안락.000을 위하여 병력을 기피하는 사람은 학도 층이나 식자층에는 없는지? 우리는 우선 학문의 기초로서 국민된 길을 배워야 할 것이다.

국민됨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실천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호 문교부 장관 이 선근은 ‘먼저 반공정신을!’이라는 주제의 글을 기고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적을 미워하고 끝까지 이를 쳐부수려는 불타는 적개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에 대비할 태

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매일 매일의 학습이 그대로가 반공(反共)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국토를 통일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두언에서 교육의 수장은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로서 청소년들에게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국민 만들기의 핵심적 사고방식은 나와 남의 분리와 남에 대한 경계와 분노, 불신이었다. 이런 경계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토대로 조한혜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내부에서 가족에 대한 단위적 고집과 그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조혜정, 1998: 318).

국민 만들기에서 주요한 또 다른 부분은 ‘군인 만들기’이다. 위의 글에서도 표현되어졌지만 군대는 친근한 소재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학원지 53년 5월에는 ‘봄 하늘을 날다-육군 비행대 중군기-에서 비행조종사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54년 6월에는 ‘만화전선방문기’라고 하여 만화를 포함하여 화천의 군부대를 방문한 기록을 담고 있다. 훈련과 건설에 힘쓰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과 내부반의 정경을 묘사한 글이다. 54년 9월에는 ‘민주 민족 군대, 백만 양군의 기지’라는 제목으로 논산훈련소 방문소감을 적고 있다. 이 방문기에는 군인들이 배고프다는 생각을 부정하기 위하여 먹는 양이 충분한 일일 급식표를 소개하고 기합 없는 민주훈련등 군대가 갈만한 곳임을 인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편집일기’라는 기자 후기에도 “백만 양군의 기지 논산훈련소를 방문하였다. 이는 국민개병을 부르짖고 있는 현 단계에 우리들이 알아 두어야 할 곳으로 믿는다” 라고 적고 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 나라의 방패 태룡건아들!-육군사관학교를 찾아-를 싣고 있다. 58년 5월에는 진해해군기지의 하루와 오끼나와 합동 공주시위에서 ‘우리 공군 대활약!’ 했다고 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문예지로 변신을 선언한 후에도 평양을 탈출한 GI 태극기 남쪽 하늘에 올리다’라는 기사를 쓸 만큼 군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60년 10월호).

이런 군인 만들기의 욕구와 민족재건의 상징으로서 군인의 희생을 교육의

모범으로서 삼으려는 의도는 53년 11월 호의 당시 대구시 교육감인 우타관의 ‘중학생에게’라는 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중학생 여러분의 씩씩한 자람에서 이 겨레, 이 국가의 생장의 기쁨과 힘을 느끼며, 학생 여러분의 태타(?)가 민족국가의 절망의 장벽 앞에 서게 됨도 항상 느끼게 된다. ... 대한 민족의 아들 대한민국의 희망으로서의 여러분의 본연의 자태를 찾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민족의 흥망을 결정 지을 결전 태세하의 오늘 총력전의 한 전사로서 중학생 여러분은 중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닦음에 한 층 더 힘을 다하여 화선에 선 용사의 성스러운 피를 헛되이 아니하며 훌륭한 민족의 기둥이 되어주기를 거듭 부탁하는 바이다.

55년 2월의 권두언에서 당시 민의원이었던 조병옥은 ‘민족의식을 새롭게 하자’라는 글을 쓰면서 군인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조국의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용감히 총 칼을 들고 성전(聖戰)에 작렬한 용사들의 뉘은 그대로 우리 배달 겨레의 크나큰 자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로 변하여 가는 국제정세는 우리들의 생활과 현실에 잠시의 안도감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주 독립을 침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학생잡지에 이렇게 군인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는 것은 군인이 시대정신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장래 군인이 될 청소년에 대한 의식화의 욕구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인 만들기적 욕구는 60년대 70년대로 가면서 잡지의 주제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징병제가 50년대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일상적 공급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남학생들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미래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영역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싶은 추측을 한다.

6.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박정희정권의 내용적 독창성은?

잡지를 분석하다보면 박정희 정권과 이미지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박정희의 독창적 발명품인 듯 기억되는 이 국민만들기프로젝트나 반공이데올로기의 종교화가 박정희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적극적인 형태로 비슷한 내용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학원지의 편집후기인 ‘엮고 나서’의 인쇄, 발행인란 옆에는 항상 우리의 맹세가 실려 있다.

1. 우리는 대한 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 부시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라는 결의의 코너이다. 이는 54년 4월 21일부터 56년 6월 7일까지 문교부장관을 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반공민주교육’으로 정한 이선근의 재임당시 정하였던 우리의 맹세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맹세는 교과서의 표지 뒷면에 항상 실려 있었다 (이치석, 2005:146). 국기에 대한 맹세의 전신의 형태를 떠는 우리의 맹세는 당시 청소년반공교육의 강도를 읽게 해주는 대목이고 반공주의의 대중성을 확인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로 5.16 혁명당시 박정희의 혁명공약 1호가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¹⁴⁾라고 하고 6개의 공약중 2개의 공약을 반공주의에 바친 것은 그만큼 반공이 대중적 뿌리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60, 70년대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졌던 전쟁관도 그렇다. 학원지에 실린 전쟁의 역사는 70년대 교과서 내용과 다르지 않다. 53년 11월호에 실린 이현구의 ‘새서울 건설하자’에서 1.4 후퇴에 대한 기억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14) 학원지 1962년 3월호의 표지는 혁명공약으로 장식되어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 북한 공산당 놈들에게 혼이 빠진 서울 시민들은 저 무지막지한 오랑캐의 행패를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서 모두들 정든 집 정든 물건을 모조리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 . . 그리고 난 후 70여 일만에 우리의 용감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중공 오랑캐를 완전히 서울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또 다시 4월 23일을 기하여 서울을 빼앗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소위 제 1차 춘기공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제 고향이라고 찾아 들어 온 수 십만 서울 시민들은 또다시 한강을 건너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결사적으로 서울을 지켜 한 치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뻗치고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해 4월 30일 벤. 푸리르 장군은 서울에서 우리는 우리 연합군의 힘으로 서울을 넉넉히 방위할 수 있다고 연명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적의 침략도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p.19).

북한이 전쟁발발에 책임을 지고 있고 남한사람 모두가 북한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는 사실이나 중공군이나 연합군에 대한 평가도 다른 점이 없다. 이 치석은 전쟁이후 50년대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반공과 국민과 미국을 마치 삼위일체의 신앙처럼 아이들에게 세뇌시켰다 . . . 분단국가의 정신적 보호자로서 반공이념과 그 동형성의 군사적 보호자로서 미국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국민화된 존재로서 ‘국민’이 내면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미국은 분단체제와 군사문화의 거대한 배경이었으며, 그 미국을 대한민국의 강력한 보호자로 만든 것은 바로 한국전쟁이었다(이치석, 2005: 140-141).

친미는 학원지에서도 핵심적 기본 기조이다. 학원창간호에는 ‘한국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주제로 대구 미국 홍보원장인 아더 엘번의 편지가 실려 있다. “더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각자의 의무

인 것이며 자기 나라와 동시에 온 세계에 대하여 각자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p.49)는 요지의 글이다. 그와 함께 오늘의 인물에는 달레스-미국외교의 일인자-가 소개되고 있다. 53년 10월호에는 대구미국문화관의 문화관에 대한 소개의 글이 영어와 한글로 실려 있고(p.57), 1953년 12월 호의 박기준의 ‘시사해설: 한국과 일본’이라는 글에는 일본은 약고 피가 많은 반면, 미국은 후덕하다고 표현되어 있다(p.53). 1955년 2월 ‘민주학도가 되자!’라는 글에서 보면 미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모델로서 소개되기도 한다. 50년대의 화두였던 국가재건에 친미가 주요한 조건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70년대 많이 강조되었던 화랑도의 경우도 그렇다. 학원지 54년 4월호에는 ‘다시 살리자 화랑도’라는 제목의 긴 글이 실려 있다. 당시의 국가적 처지에 적합한 청소년의 모델로서 화랑도가 초대된 것이다.

신라는 주위에 있는 고구려, 백제, 가라(가야) 제국의 대외적 세력을 막으려면 암만해도 어떤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타낼 만한 자신 있는 무엇을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되게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이롭지 못한 환경에 처한 신라가 다시 정치와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 있어 항상 주위의 강대국에 압박을 받게 될 때 그들은 그 무스힘으로 국토를 방위하며 국권을 펴고 나아가 민족 통일의 원대한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가 곤궁과 수난 속에서 신라의 선인들이 그 시대의 젊은 기백과 젊은 정열을 기울이어 분개하고 쫓기하여 호국정신(護國精神) 구민방략(救民方略)을 안줄(?)하고 수립해 놓은 것이 곧 화랑도이다(p.33).

또한 53년 8월호에 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 유관순(p.71)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주의적 반공국가건설의 내용마련이 50년대에 상당 정도 진행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7. 국민 만들기의 약한 고리: 서구화

반공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이루어나가는데 서구화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대부 같은 국가로서 미국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새로운 지향성의 모델로서 서구가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구에 대한 소개나 서구적 에티켓에 대한 소개가 자주 이루어지곤 했다. 악습은 동양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52년 11월 창간호¹⁵⁾에는 부산 서여자중학교 방문기가 포함되어 있다. 학교 교장과의 인터뷰에

기자: “선생님의 여자교육에 첫째 모토라 할까 그건 어떤 의식적인 교육이념은 무엇인지,”
교장, “예, 동양식인 너무나 동양적인 사상 즉 남존여비의 사상타개 올시다” (p.33).

53년 8월호의 ‘전국 중학생의 소리: 독자 구락부 지상 좌담회’에서 학생들의 숭배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참가한 중학생의 답을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3명, 이순신, 유관순, 헬렌켈러, 나폴레옹, 카네기,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에디슨, 예수그리스도, 피에테, 00빋취(폴란드에서 국어를 숭배한 사람으로 설명됨), 세종대왕 아버지 2명, 어머니 1명이 나왔다. 당시 중학생이 상당 정도 서구의 인물과 역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p.71, 72).

그러나 서구적인 것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되었던 부분은 에티켓에 관련된 부분이었다. 50년대 잡지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다가 60년대 중반 이후 빈번한 소재거리가 된다.

학원지 65년 10월호에는 ‘교양특집: 생활 에티켓’이 실리는데 취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5) 창간호를 만들 당시에는 피난지인 부산에 집필진이 있었다.

에티켓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은 세계가 같은 마당에 서게 되니 인류공통의 생활에티켓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지면서도 세계가 가는 대열에 들어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에티켓>을 연구하여 새 세대의 교양을 쌓자(p.141).

이어서 진명여자중고등학교 교장 박용경의 에티켓에 대한 설명이 있고, 단정한 옷차림이나 청결을 지향하는 신체, 이발, 화장 등에 대한 예법, 소개 방식, 액세서리, 말씨, 인사, 방문 방식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별로 서구적인 내용을 많이 담지 않은 부분에 에티켓이라는 서구적 용어와 세계인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편집진의 설명이 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언가 삶에서 교양이라는 부분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시국적 판단과 교양은 서구적이라는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리라 보인다. 학원지 72년 7월호에는 ‘앉은 자세로 보는 당신의 에티켓’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학생의 꼴불견, 남학생의 꼴불견이 나온다. 여학생의 꼴불견에는 자주 언급되는 미니 스커트가 또 등장한다. ‘무우다리에 미니스커트’와 포장마차에서 교복을 입고 먹고 있는 여학생, 큰소리로 웃고 떠드는 여학생이 나오고 남학생의 꼴불견은 교복모자를 이상하게 쓴 거라든가 흡연이야기가 나온다. 미니스커트는 서구화에 대한 부작용의 산물로서 늘 표적이 되었고, 여성이 성적표현욕구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더 심한 반발을 샀던 것 같다.

서구화하여야 하는 그렇게 가는 사회에 대한 경계심이 여성에게 물리는 현상은 여학생잡지에서도 나타난다. 66년 1월호 ‘특집 자기발견’에는 서구화해야 하는 사명과 서구화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서 나타난다. ‘여학생과 가정’이라는 글을 쓴 당시 경희대 교수 양병택은

오늘의 부덕은 어제의 그것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전 근대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 유교적인 윤리관은 차츰 쇠퇴하고 새로운 민주적인 윤리관이 대두하고 있다. 이를테면 여필중부의 사상은 부부협동의 사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 . . 이처럼 근대화

되어가는 현모양처의 길은 곧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생활의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생활의 과학화를 부르짖고 있다(p.73)

그러나 곧 서구화에 대한 경계심을 보인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버리고 무작정 서구문화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가정은 우리의 고유한 미를 대를 이어 간직해 왔고 전통적인 문화를 육성 보호해 온 곳이다. 그러므로 동양적인 미는 가정을 통해 몸과 마음속에 배어있다(p.73).

같은 특집아래 ‘여학생과 국가’라는 글을 기고한 당시 연세대 교수 이군철은 “외국문화를 받아들이는 국민적인 올바른 태도가 오늘날처럼 절실하게 아쉬울 때가 일찍이 없을 것으로 본다”(p.79) 며 낭비가 심하고 식모 등에 의지하는 주부들의 방만한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서구대중문화의 관심을 꾸짖는다.

자기 나라의 일년 예산액은 몰라도 할리우드의 일류 배우들의 연봉은 소상하게 알고 있다든가 자기 아이들의 몸무게는 몰라도 미스 유니버스의 힙 사이즈는 알아야 하는 것이 교양인의 조건이라면 차라리 교양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이 부럽다(p.81).

서구화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여성의 공간과 여성의 관심에 주로 한정되어서 나타났고 남성들의 의식이나 생활방식은 ‘남존여비’외에는 문젯거리로서 지적되지 않았다.

8. 근대화와 함께 진행된 국민의 성별화

50년대 보다 국가재건의 절박함이 덜해진 60년대의 경우 부국강병의 길을

여는 주체로서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에 대한 추구는 남녀고등학생의 발언속에서 여전히 나타난다. 학원지 61년 3월호의 ‘남학생을 말한다. 여학생을 말한다’라는 기획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사치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16) 여학생들은 실속을 잃지 않는 남학생, 정치주체로서의 남학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숙명여고의 차양자는 “제 소견에도 우리나라는 비상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혁명때에 보여준 그 용맹성으로 대한민국 10대의 남학생들은 보다 건전하고 굳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p.137)라며 정치화된 남성성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화여고 김영예는 “내가 만일 남학생이라면 나는 그 무슨 허영에 사로잡히거나 잡된 행동의 함정에서 그날그날을 즐기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깨우쳐 주는 동시에 커다란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업에 열심을 기울여 보람 있는 생활과 문명한 국가를 이루어 세계 우방과 어깨를 겨누어 나갈 수 있는 나라의 영도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p.138)며 정치지도자로서 성장하는 남학생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남학생을 말한다. 여학생을 말한다’라는 코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남학생들은 모두 이렇다 저렇다는 주장적 반어 체를 쓰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유의 경어 체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차양자의 글에서도 보이지만 소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이래라라고 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한다. 남학생이 정치지도자가 되어줄것에 대한 기대감은 여학생잡지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이다. 1966년 2월호에 ‘우정을 위한 남학생을 위한 긴급동의’라는 회의에는 여섯 명의 여고생이 모여 남학생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남학생에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곧 그 당시 여자 청소년

16) 당시 서울고등학교 1학년 소설가 최인호는 ‘사치는 자랑이 아니다’라는 글속에서 “부모님들의 찌푸린 이마 주름살 사이의 돈으로 멋을 내려는 여학생, 과연 이 분들의 머릿속엔 그 무엇이 교차되고 있는 걸까? 멋진 스케인, 좋은 옷, 멋진 카메라와 만년필, 예쁜 구두 ... 이것들에 내 가난한 이웃들의 여학생이 결국 매혹되고 마는 것인가? “라고 하며 현실을 모르는 소비주체로서 여학생을 꾸짖고 있다. (p.135)

이 남자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남성성을 잘 보여준다.

최의선(상명여고): 남학생들에게서 야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일을 기도하다가 잘되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실망 내지 절망해서 방탕해지기도 하나 봐요. 기백이 있어야 할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일의 핀트가 안 맞을 땐 몇 번이라도 고쳐나가는 끈기가 아쉬워요.

최종숙(창덕여고): 저는 남학생들이 무엇을 할 때 스케일이 크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령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노벨상을 꿈꿀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요. 겨우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장(長)자리나 하나 잡아야겠다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박춘자(사대부고): 하나의 원대한 포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남성답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최민숙(이화여고): 우리나라 남학생은 참 웅졸한데가 있어요. 한 두 끼 굶게 되면 아주 안달을 할 거예요. 백결(百結) 선생과 같이 초월하는 듯한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p.274, 275).

여고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사대 부고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남녀공학에 대해서 묻자 박춘자는 다른 학교의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을 위해준다고 했고, “시험까지 대신 치러주는 건 아니겠죠? 혹은 청소 정도는 해주겠죠”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좌담 부분에 대해서 편집진은 ‘기사정신을 기대한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상적이라고 제시되었지만 동시에 남자라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정상적 남성상의 기준은 통크고 기사도 정신을 겸비한 실천력이 있는 강인한 남성상이다. 이 당시 현모양처가 여성성의 이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시기이고 이에 걸맞은 가장 낭만적인 남성이 이러한 남성상이었던 것이다.

여학생지는 66년 5월 ‘남녀학생들은 이런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특집을 싣고 있다. 66년 당시 여학생 편집자의 시대진단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요즈음의 십대들은 줏대도 없고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으며 쓸데

없이 반항하기만 하는 주제에 너무도 무기력하다는 것이 어른들의 평이다”라고 진단하는데 쫓대나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십대 여성보다는 십대 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인다. 앞의 여고생들이나 진배없이 현모양처에 걸맞은 남성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교교육의 대중화속에서 청소년집단의 수가 늘어나면서 소수정예적 평가를 더 이상 하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남학생들에 대한 이런 실망감에도 지배적인 남성성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획에서 이루어진 통계조사에서 남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힌 이는 슈바이처와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슈바이처와 동물로 1위를 했는데 “이유로는 굳건한 의지와 지도력과 철두철미한 반공 반일주의라고. 이라고 보면 4.19때의 학생사조와는 좋은 대조가 된다고 보겠다” (p.93)라고 편집진의 설명이 붙어있다. 이는 한일회담이 열리면서 반대운동에 대한 지지가 강력한 반일주의자였던 이승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을 거라는 판단이 들게 하는데 그때까지도 반공, 반일주의의 상징이 이승만이라는 것도 흥미롭다. 남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의 특징은 “1.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칠 수 있었다는 점, 2. 의지적이며 의욕적이고 용기가 있다는 점”(p.93) 이고 이상적인 여성은 순진하고 복종성있는 여성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희망하는 직업은 정치가가 8%로 가장 높다.

60년대 중반에는 이미 확실하게 근대화의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남성-정치사회지도자, 여성-현모양처라는 이상형의 구분이 명확해져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50년대에는 이런 성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50년대에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모두 지도자적 소명감을 가지도록 요구되고 있는 모습이 잡지에서 확인되는 반면 60년대로 넘어가면서 남성만이 국민국가의 정치적 주체로서 여자는 보조자로서의 정체성이 성별화되어 나타난다.

학원지 54년 1월호에는 ‘건설의 새해, 희망의 새해: 사회 명사를 모신 중고등학생의 모임’이라는 좌담회특집이 실렸다. 사회명사로는 아동문학가 마해송, 소설가 정비석, 문교부 편수관 홍웅선등 6명이 학생은 여자 중고생 3

명과 남자 중고생 3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여학생 박명자는 정치가가, 여학생 권제순은 의사가, 여학생 이중인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한다. 남학생 3명 모두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한다. 장래희망에 대해 먼저 말하는 것도 여학생이고 좀더 다양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여학생인 점이 흥미로웠으며 여성이라는 것이 이런 꿈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거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새로웠다. 특히 이중인의 경우는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언제나 앞장 서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과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과학 공부에 힘써서 이 나라 이 거레를 위해서 과학자로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p.33, 34)며 희망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이에 대해 대학교수 조병옥은 다른 학생들 보다 이중인에 관심을 기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1954년 4월 호에는 시사평론가 정연후가 ‘시사 동남아 민중 반공전선 제네바회의’에 대해 여중생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의 초입에서

정희=아저씨 안녕하쎄어요. 오늘은 어머니도 모시고 같이 왔읍니다.
 아저씨=오! 정희가 왔구나! 부인께서도 오시구그래 이번에 정희는 우등으로 진급을 했다지, 정희가 벌써 중학교 2학년생이 되었구나. 참 기특도 하지....
 어머니=정희를 늘 그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희를 따라서 저도 좋은 말씀 좀 들을까 하고 같이 왔읍니다.
 아저씨=참 잘 오시었읍니다. 오늘은 정희한테 상을 줄려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거리를 준비해 났단다.

라면서 제네바회의에 대해 정희라는 여중생에게 설명하는 형식은 50년대가 60년대보다 더 여성문제에 고루할 것이라는 시기적 거리감만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할만한 대목이다. 당연히 똘똘한 남자아이와 함께 정치를 이야기해야 할 듯하기 때문이다.

50년대는 전쟁이후 여성들이 생계를 잇는 실질적 가장으로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시기이다(이임하 2004). 현모양처가 될 수 있는 여성은 극소수였고 국가재건과 생계해결의 시급함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현모양처론의 사회적 파급력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가재건에 대한 절박함과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의 여학생이 가지는 리더로서의 사회적 의미가 덜 성별화된 기대감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 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또한 여학생, 남학생의 문화적 분화가 덜 이루어진 상황이기도 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대적 동등함은 당시의 시대적 긴급함은 맹0천의 권두언에서의 기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건강에 힘을 써서 체위의 향상을 꾀하여 국방력을 도읍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도의면에 마음을 써서 서로 도우고 서로 자라나도록 젊은 아들 딸들이 서로 단결하여 조국 재건에 이바지할 용기와 노력과 자신을 갖는 건설적 학도가 되기를 바란다” (1954년 2월, p.23).

60년대 이후에는 서구성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역할모델이 확실하게 분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성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현모양처적 이상형에 포섭되고 소비자, 사치의 주범 등으로 규정되었고 남성은 사회적 주체, 정치적 리더로서의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더 이상 소수정예가 아닌 남자 청소년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행동에 사회적 실망도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9. 순결문화와 남성의 대범한 섹슈얼리티

청소년 잡지에서 70년대의 화두는 연애와 순결이다. 이는 청소년이 언제든지 탈선할 수 있는 문제적 집단으로 규정되어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염려이고 여전히 남자청소년은 대범한 남자다움을 유지하라는 일관된 정체성이 별 도전을 받지 않고 이어진다.

학원지 1971년 3월호의 ‘연애에 대하여’에서 당시 학원지의 사장 박재서는 이렇게 남자의 연애관을 규정한다. “남자, 헤어진 사람의 행복을 비는 사람, 비록 자기를 배반한 인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행복을 기원하는 사

람, 그것이 남자인 것이다. <참된 남성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p.141).

이 대범한 남자다움은 남자의 성과 관련하여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범한 관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동물이고 그래서 자기 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기존의 담론이 과학적 지식으로 포장하여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런 글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남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 그 자체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여학생의 탈선과 순결에 대한 집단적 염려와 관심 때문이었다. 학원지 72년 7월 호의 ‘원래 남자라는 것은?’이라는 기사에서

차라리 철저한 야수라면 마음이나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중간해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짐승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물론 여자도 인간인 이상 이와 같은 면이 없지 않으나 남자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남자는 늑대>라는 말이 있고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도 <남자의 얼굴을 모두 근엄하다 손으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p.208).

여학생 잡지도 1968년 3월호부터 여자의 몸의 순결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후 70년대 80년대까지 순결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된다. 순결은 음주나 흡연(1980년 4월)등의 문제와 동반 출연하는데 탈선하는 여자 청소년을 막는 캠페인 형식으로 주로 다루어진다. 여학생지의 순결에 대한 기사를 보면 특집: 순결(73년 5월): 순결은 왜 필요한가? , 한국청소년의 순결관, 간추린 순결교과, 여학생순결세미나(1981.8), 여학생 순결세미나(1982.1), 여학생 순결교육: 자위(1983.2)등을 통해 여학생에 순결파괴가 현안이고 여성청소년이 문제적 집단임을 이미지화 시켜 나가고 있다.

남자의 성은 이런 여학생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규정된다. 여학생 71년 8월호에 강준상이라는 의학박사가 쓴 ‘특집, 참으세요! 충동을 억제하는 지혜’에서 ‘성적 충동을 승화하는 지혜, 그건

안돼 잊어야 돼’ 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 강박사는 서구적인 성개방 풍조를 염려하면서 여학생의 성욕을 위협시한다. “자기 몸속에 <봄>을 느낄 때 소녀들은 당황한다. 갖가지 매스컴이 전하는 성의 개방풍조는 <순결>을 위협한다. 여학생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가져야 만이 행복한 여성이 될 수 있다”(p.98)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의 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여학생이 예뻐서거나 매력적이어서거나 좋아한다고 해서 어디나 데리고 가길 망설이지 않으며 전혀 사랑하거나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감행한다”(p.100). 즉 남자는 성적인 측면에서는 무책임하고 본능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서 여성이 성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가 이호철은 같은 호의 글에서 “이미 싹터있는 모성본능으로 동생이나 조카, 이웃의 아이라도 잘 돌봐주는 등 건전하고 보기 좋은 승화를 하고”(p.101), “너무 모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릇된 것을 많이 알면 일부러 성적인 충동을 얻길 갈구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여학생 아니 여성답지 않게 날뛰 수도 있는 것이다”(p.102)라며 여성의 성욕을 여자답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여자다운 방식으로 승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학생 72년 9월호의 “왜 순결은 필요한가”라는 글은 남자의 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남자들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단순하므로 여자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요구해 온다. 이런 때에 즉 육체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싹 거절해야 한다.”(p.142)

결국 절대화된 순결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야할 책임이나 승화시켜야 할 책임 또한 여학생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남학생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문제화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동에 대해서 조절하거나 제어할 필요를 요구받지 않는다. 조절하거나 제어하지 않은 대범한 성이 남자다운 성이기 때문이다.

여학생지 1977년 1월호 ‘올바른 성교육은 남녀평등사상에서’라는 제목의 “남녀가 서로 사랑과 존경과 평등과 협력으로 연결될 때 남아선호사상이 불식되고 성교육은 사랑, 존경, 평등, 협력하는 지식과 태도와 행동을 배우는

것이어야 하겠다.”(374)라는 주제어로 시작된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녀의 차이는 남자에게서 이 두 가지 요소 즉 방출욕과 접촉욕이 모두 강하게 나타나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방출욕은 거의 미약하고 접촉욕만이 강하게 나타난다. 남자가 여자보다 성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이러한 사실에 있다고 보겠다”(377)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남녀평등을 이야기해도 남녀의 성은 평등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981년 여학생 순결세미나에서는 이런 남자의 성에 대한 규정이 더욱 더 구체적이 된다. 박영옥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 상담부장은 ‘여름에 조심합시다. 남자의 성충동’에 대한 글에서 남자의 성충동은 여자와 다르며 남자의 몸은 금욕에 견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자의 성충동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적은 글에서 ‘남자의 성충동은 사춘기로부터’, ‘남자의 성충동은 촉발적이다’, ‘남자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 ‘남자의 성적인 상상력은 무한하다’. ‘남자의 성충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남자의 성충동은 사랑과 무관하다’. 특히 이중에서 남자의 성충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대목의 설명은 “남자의 욕망은 일단 행동으로 옮겨지면 소리건 빛이건 냄새건 온도든 무엇이든 그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할 힘이 거의 없어진다”(p.264)라고 되어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남자의 성폭력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만큼 남자는 성적 행동에 대해서 제어할 힘이 전혀 없고 이 모든 것이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성폭력적 가치관을 더욱 공고히 해왔던 것이다. 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과 비난을 여자에게 맞추는 논리와 문화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10. 결론

청소년을 둘러싼 젠더적 성체성에 관한 담론 분석은 청소년 시기가 성정체성의 정립시기이고 역할을 찾아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청소년과정이 국민훈련생으로서, 정부이념의 적극적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성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근대화에서 요구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

잡지를 통해본 한국 근대화시기의 청소년의 남성성에 대한 담론은 단순히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분석으로 멈추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남자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국가 중심적 국민의식과 반공의식, 친미의식을 상식화하는 과정이었고 현모양처를 지켜주고 감싸줄 수 있는 대범한 남성성을 가져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쟁이후 여성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뤘던 50년대 보다 현모양처라는 여성적 이상형이 크게 과급력을 갖고 지배적 여성성을 장악했던 60년대 70년대에 청소년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세밀하게 분화된다. 남자 청소년은 정치, 사회의 주체로서 여자 청소년은 소비와 가정의 주체로서 현모양처라는 이상형에 강력하게 포섭된다. 50년대 장래 국가의 기대주로서 희망적 존재로서 사랑을 받았던 청소년이 60년대 70년대로 가면서 문제적 집단으로 비쳐지는데 특히 여학생이 소비습관 성행동, 의복문화등이 이런 염려의 표적이 되어가는 것도 흥미롭다. 경제가 발전하고 서구적 문화가 유입되면서 여성성에 대한 경계의식이 다양하게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성은 큰 차이 없이 남자 청소년은 사회, 정치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단련이 요구되는 이성적 기대주로 섹슈얼리티 문제에서는 행동 제약 없이 본능적 짐승이 되어도 상관 없는 대범한 사회적 관용 속에서 남자다움을 형성할 것을 요구받는다. 아마도 가장 변화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한국 근대화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화 담론분석은 현재의 우리 문제를 규정짓는 뿌리이고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극복된 것과 극복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자기 확인의 기회임을 강조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 권인숙(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청년사
- 권혁범(2004),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국민국가, 진보, 개인, 삼인
- 김원(2005), 그녀들의 반 역사: 여공 1970, 이매진.
- 신현옥(2000), 국가 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 유대근(1991), 5.16 군사독재정권과 60년대 한국교육, 초등우리교육, 3월호(vol.13). pp.122-137
- 유정미(2001), 국가 주도 발전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 새마을 부녀지도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임은정(2000), 여학생 문화의 남성화 경향 연구, 성심사회학 제 6집
- 이임하(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한국전쟁과 젠더, 서해역사책방
- 이승호(2002), 옛날 신문을 읽었다. 다우.
- 이치석(2005), 전쟁과 학교, 삼인
- 전인권(2003), 남자의 탄생, 푸른숲
- 정유성(2001), 따로와 끼리-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책세상,
- 조(한)혜정(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과 남성 2, 또 하나의 문화
- 한홍구(2003), 대한민국사 2, 한겨레 신문사
- 홍승직(1986), 한국의 교육체계 및 교육 가치관의 변화: 60, 70년대의 교육, 한국사회개발연구.
- Kim, Seung-Kyung,(1997), Class Struggles or Family Struggles? The Lives of Women Factory Workers in South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방향성을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찾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성인과 구별되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가 만들어졌는가? 근대사회의 담론들이 규율의 내면화를 통해서 어떻게 근대적 청소년상을 만들어갔는가? 경제개발독재시대를 국민만들기 틀 속에서 청소년들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떻게 구축되어갔는가? 등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계몽기로부터 80년대까지의 신문·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관련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계몽기에 있어 소년과 청년은 엄격히 구별되지 않았으나 1910년대 들어 청년이 10대 후반과 20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면서 소년은 점차 10대 초반으로 구체화되고, 다시 1920년대에 들어 10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아동기, 어린이기, 혹은 유년기가 탄생되는 식으로 연령개념이 분화되어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연령별 생체주기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성생활을 포함한, 자연에 반하는 생체주기를 강요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국가, 학교, 가족의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대를 뛰어넘어 민주주의가 진보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욱 조밀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하는 국가와 사교육에 올인하는 가족, 여전히 자율적이기보다는 통제적인 학교, 이 세 축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패기를 상실하고 있다.

둘째, 식민지 시기에 근대 학교교육제도는 도덕을 “충효”, “선량한 황민”의 논리로 대체시킨 반면 규율의 차원에서 극단적 억압성을 드러냈다. 근대 교육제도는 “자유”의 가치, 개인주의와 인권의식을 뿌리내리기보다는 “지나친 또는 비교육적인 체벌”, “질서적 생활”, “신체단련”과 같은 억압적 훈육

의 이념을 생산해 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계몽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청소년상이라는 것도 “민족적 전사”에 다름아닌 “쾌남아”, “영웅”, “천재”와 같은 이미지였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아동교육”, “인격 본위의 교육”이 실종된 채 “민족”, “성공”, “경쟁”이라는 과거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은 사회가치가 청소년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

셋째, 60대년 초 국가재건기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과 ‘같은’ 존재로서 국가재건과 생산 노동자로서의 임무를 부여 받으며 ‘작은 국민’으로 호명되지만, 60년대 초반 이후에는 남성의 생산 노동을 보조하는 재생산 노동자로서 기대를 받는다. 60년대 후반 이후 잡지에서 청소년들은 성애화되면서 연애의 주체가 되며, 70년대 초반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성공과 함께 여학생들의 과잉 소비가 질타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검소하고 순결한 미래의 ‘어머니’로 호명되는 동시에 남학생들과는 차별적 존재로 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성의 강조는 ‘알과 걸’, ‘킹콩 걸’이 회자되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한국사회에서 남자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국가 중심적 국민의식과 반공의식, 친미의식을 상식화하는 과정이었고 현모양처를 지켜주고 감싸줄 수 있는 대범한 남성성을 가져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이 한국전쟁이후 청소년 잡지기사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 남자 청소년은 정치, 사회의 주체로서 여자 청소년은 소비와 가정의 주체로서 현모양처로 이상화되었다. 50년대 장래 국가의 기대주로서 희망적 존재로서 부각되던 청소년이 60년대 70년대에는 여학생의 소비습관과 성행동 등 여성성에 대한 경계의식이 부각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사회, 정치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단련이 요구되는 이성적 기대주로 부각되면서도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용을 보이는 등 젠더 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피력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와 관련이 된다. 근대사회의 주류적 입장에서는 청소년은 보다 관리되어야 할 존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사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였고, 남성성과 여성성에 내재된 차별적 요소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연구는 이러한 주류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다.

왜 그들은 근대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애주기 상의 마이너리티로 남아 있는가?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을 구축하는 재료들, 즉 청소년들이 주변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전형적인 여자로서 그리고 또 전형적인 남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론 이론적이거나 과학화되었거나 상식화되어버린 문화적 코드 또는 신호들이 일상 속에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담론의 재료들은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재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참여를 진작시키려는 노력들이 적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참여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는 근대기를 통해서 점점 더 약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상 속의 참여는 이들에게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어른이 되기 위한 여정은 더 길어졌다. 청소년들이 참여적이거나 주체적인 삶을 유보당하는 모라토리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다른 보고서(총괄보고서와 세부과제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부모들에게 너무 의존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상호의존적이다). 그것은 한국적 모라토리엄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로 보인다. 즉, 더 의존적인 만큼 더 통제받아야 한다. 이 문제가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된다.

물론 이 연구로부터 아직 충분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 따라서 2008년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강할 것이다.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 · 김기현 · 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 · 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 · 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 · 김신영 · 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 · 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 · 최우영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 · 김영호 · 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 · 장근영 · 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 · 박창남 · 이종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 · 김희균 · 조아미 · 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 · 권일남 · 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 · 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 · 오성배 · 정의철 · 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 · 최인재 · 설인자 · 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혜연 · 서정아 · 조홍식 · 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은정 · 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함인희 · 최연혁 · 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함인희 · 최연혁 · 배지혜 · 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 · Gudrun Quenzel · Michaela Janotta · Janina Hermann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 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운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구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미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혜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a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2-4

청소년기 사회와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경성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 978-89-7816-707-9 (93330)